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1권 (제1회 ~ 제1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회 — 영근이 잉태되어 근원이 흘러나오고, 심성을 닦아 대도가 생겨나다	5
제2회 — 보리진묘리를 깨달아 통달하고, 마를 끊어 근본으로 돌아가 원신과 합치다	32
제3회 — 사해의 천산이 모두 엮드려 복종하고, 구유의 열 부류가 모두 이름에서 지워지다	59
제4회 — 관직은 필마사로 봉해졌으나 마음이 어찌 족하랴, 이름은 제 천대성이라 적혔으나 뜻이 어찌 편안하랴.....	86
제5회 — 반도 잔치를 어지럽히고 대성은 단약을 흠치며, 천궁에 반기를 들자 여러 신이 괴물을 잡으러 나서다.....	113
제6회 — 관음이 모임에 가서 원인을 묻고, 소성(小聖)이 위엄을 떨쳐 대성(大聖)을 굴복시키다.....	138
제7회 — 팔괘로에서 손오공이 빠져나오고, 오행산 아래 마음의 원숭이를 가두다	162
제8회 — 부처가 경전을 지어 극락을 전하고, 관음이 어명을 받들어 장안으로 올라가다	181
제9회 — 진광예가 부임길에 재앙을 만나고, 강류승이 다시 원수를 갚아 근본을 갚다	206
제10회 — 늙은 용왕이 어리석은 계책으로 천조를 범하고, 위 승상이 유서를 남겨 명리에게 부탁하다.....	232

제1회 — 영근이 잉태되어 근원이 흘러나 오고, 심성을 닦아 대도가 생겨나다

靈根育孕源流出 心性修持大道生

시로 이르되,

혼돈이 갈라지기 전 천지는 어지럽고 아득하고 막막하여 보이는 이 하나 없었네. 반고가 혼돈을 깨뜨린 뒤로 천지가 열리며 비로소 맑고 탁함이 나뉘었도다. 만물이 생겨나 지극한 인애를 우러러보고 세상 만물은 저마다 선(善)을 이루게 되었으니, 천지창조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유석역전(西遊釋厄傳)』을 읽어보아야 하리라.

듣자하니 천지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 12만 9천 600년을 한 번의 큰 주기인 '일원'이라 한다. 이 일원을 다시 열두 번의 작은 주기인 '십이회'로 나누는데, 이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십이지(十二支)에 따른 것이다. 각 회는 1만 800년씩이다.

이를 하루의 흐름에 비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시(子時)에 양기가 생겨나면 축시(丑時)에 닭이 울고, 인시(寅時)에 아직 빛이 통하지 않다가 묘시(卯時)가 되면 해가 뜬다. 진시(辰時)에 식사를 마치면 사시(巳時)에는 나른해지며, 오시(午時)에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미시(未時)가 되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신시(申時)에 오후의 나른함이 찾아오면 유시(酉時)에 해가 지고, 술시(戌時)에 황혼이 찾아오면 해시(亥時)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다.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대입해 보면, 술회(戌會)의 끝에 다다랐을 때 천지는 어둑어둑해지고 만물은 생기를 잃고 멈춘다. 거기서 다시 5천 400년이 지나 해회(亥會)의 초입에 이르면 온 세상이 캄캄해져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니, 이를 두고 '혼돈'이라 한다.

다시 5천 400년이 흘러 해회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정하(貞下)를 지나 자회(子會)에 가까워지면 세상은 다시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한다. 학자 소강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지 무렵 자시의 중간쯤 되면, 하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일양(一陽)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 만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늘의 근간이 세워진다. 다시 5천 400년이 지나 정확히 자회(子會)가 되면 가볍고 맑은 기운이 위로 솟구쳐 올라 해와 달, 별과 별자리들이 나타난다. 해, 달, 별, 별자리를 일컬어 '사상(四象)'이라 하니, 이 때문에 하늘은 자(子)에 열렸다고 한다.

또 5천 400년이 지나 자회가 끝나가고 축회(丑會)에 가까워지면 만물이 점차 견고하고 실체 있게 형성된다. 『주역』에 이르기를, "크도

다 건(乾)의 으뜸이여! 지극하도다 곤(坤)의 으뜸이여! 만물이 이로부터 생겨나 하늘의 뜻을 순리에 따라 받드느니라"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땅이 응결되기 시작한다.

다시 5천 400년이 지나 정확히 축회(丑會)가 되면 무겁고 탁한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아 물과 불, 산과 돌, 흙이 생긴다. 물, 불, 산, 돌, 흙을 일컬어 '오형(五形)'이라 하니, 이 때문에 땅은 축(丑)에 열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다시 5천 400년이 흘러 축회가 끝나고 인회(寅會)의 초입에 들어서면 만물이 발생한다. 역법에 이르기를, "하늘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올라가니, 천지가 서로 맞물려 모든 생물이 태어난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하늘은 맑아지고 땅은 상쾌해지며 음양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다시 5천 400년이 지나 정확히 인회(寅會)가 되면 사람과 짐승, 새들이 생겨나니, 이로써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삼재(三才)'가 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은 인(寅)에 태어난다고 한다.

반고가 천지를 가르고 삼황이 세상을 다스리며 오제가 인륜을 세운 이래, 세계는 마침내 네 개의 큰 대륙으로 나뉘었다. 동승신주, 서우합주, 남섬부주, 북구로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그중 동승신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동승신주 해외에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큰 바다와 인접해 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화과산이라 불리는 명산이 솟아 있다. 이 산은 열 개의 대륙을 잇는 조상의 맥이자 세 섬의 용맥으로, 하

늘과 땅이 나뉘어 맑음과 탁함이 구분된 뒤 혼돈의 시기가 지나며 형성된 곳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산이니, 이를 증명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있다.

부(賦)로 이르되,

거대한 바다를 누르는 기세는 요요한 바다를 평온하게 하네. 밀려드는 파도는 은빛 산처럼 솟구쳐 물고기 떼를 굴속으로 이끌고, 뒤집히는 물결은 눈부신 파도 되어 신비로운 조개들이 심연을 떠나네. 물과 불의 기운이 사방에 높이 쌓인 동해 끝자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가 위용을 자랑하네. 붉은 절벽과 괴상한 바위, 깎아지른 듯한 기이한 봉우리들. 붉은 절벽 위에는 채색 봉황이 쌍으로 울고, 깎아지른 절벽 앞에는 기린이 홀로 누워 있네. 봉우리 끝에서는 금빛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위 굴에서는 용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네. 숲속에는 장수하는 사슴과 신령한 여우가 살고, 나무 위에는 영험한 새와 검은 학이 노니네. 요초(瑤草)와 기이한 꽃은 시들 줄을 모르고, 푸른 소나무와 푸른 측백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르네. 선도(仙桃)는 늘 열매를 맺고, 곧게 뻗은 대나무에는 늘 구름이 머무네. 계곡 사이로 덩굴이 뻗뻗하게 얹혀 있고, 사방의 언덕에는 새싹이 푸르게 돋아나네. 이곳은 수많은 강물이 모여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억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대지의 뿌리로다.

그 산 꼭대기에는 선석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돌 하나가 있었다. 돌의 높이는 삼 장 육 척 오 촌이었고, 둘레는 이 장 사 척이었다. 높이 삼 장 육 척 오 촌은 하늘의 운행인 주천 삼백육십오 도를 따랐고, 둘레 이 장 사 척은 달력의 이십사절기를 따랐다. 돌에는 아홉 개의 구멍과 여

덥 개의 틈이 있어 구궁팔괘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늘을 가릴 나무 한 그루 없었으나, 좌우로는 지란과 같은 향기로운 풀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 돌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하늘의 참된 기운과 땅의 빼어난 정기, 그리고 해와 달의 정수를 오랫동안 받아온 덕분에 영험한 기운을 품게 되었다.

돌 안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이 켜 갈라 지더니 둥근 공처럼 생긴 알 하나가 튀어나왔다. 이 알이 바람을 맞자 돌원숭이로 변했는데,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사지 또한 온전했다. 원숭이는 곧바로 기어 다니고 걷는 법을 배우더니 사방을 향해 절을 올렸다. 이때 눈에서 두 줄기 금빛이 뿜어져 나와 하늘의 별자리마저 꿰뚫을 듯 강렬하게 빛났다.

이 광경은 높은 하늘에서 자비로운 성인으로 추앙받는 옥황대천존을 놀라게 했다. 옥황대천존은 금빛이 나는 금궐운궁 영소보전에 앉아 신선들을 모아놓고 살피다가, 금빛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고 천리안과 순풍이에게 명하여 남천문을 열고 살피보게 했다. 두 장수는 명을 받들어 문밖으로 나가 자세히 살피고 또렷이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신들이 명을 받들어 금빛이 나는 곳을 살피고 들어보니, 그곳은 동승신주 해동에 있는 오래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경계에 있는 화과산입니다. 그 산에 있는 선석에서 알이 하나 나왔는데, 바람을 맞아 돌원숭이로 변하더니 사방에 절을 하며 눈에서 금빛을 뿜어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과 음식을 먹으며 지내고 있어 금빛이 곧 가라앉을 듯합니다."

옥황대천존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교했다.

"저 아래 세상의 물건은 천지의 정수가 만들어낸 것이니,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 원숭이는 산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풀과 나무를 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산꽃을 꺾고 나무 열매를 찾아다녔다. 늑대나 벌레와 어울려 지내고 호랑이, 표범과 무리를 이루며 노루나 사슴을 친구 삼고 원숭이들을 친척처럼 대했다. 밤이면 바위 절벽 아래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봉우리와 동굴 사이를 노닐며 지냈다. 참으로 다음과 같았다.

"산속에선 날짜를 알 길 없으니, 추위가 다 가도 해가 바뀌었는지 모르는구나."

어느 날 날씨가 무척 더워지자, 원숭이들은 무리를 지어 더위를 피하며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창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제각각 노는 모습이 참으로 다채로웠다.

어떤 놈은 나무를 타고 가지 사이를 누비며 꽃을 꺾고 열매를 찾고, 어떤 놈은 돌맹이를 던지며 공놀이를 하고, 또 어떤 놈은 모래 구덩이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한다. 잠자리를 쫓아다니거나 나방을 잡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살님께 절을 올리는 흥내를 내기도 한다. 찰떡궁을 잡아다가 풀을 엮어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서로 이 잡기를 해주며 꼬집고 깨물기도 한다. 털을 다듬어주거나 손톱을 정리해 주는 놈도 있다. 서로 밀치고, 비비고, 누르고, 잡아당기며 정신없이 노느라

여념이 없다. 푸른 소나무 숲 아래에서는 마음껏 뛰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원숭이 무리는 한참 동안 놀다가 산골짜기 계곡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니 마치 끓는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듯했다. 옛말에 "새에게는 새의 말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말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원숭이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 물이 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인지 모르겠구나. 오늘 마침 한가하니,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보며 놀아보는 게 어떨겠느냐!"

누군가 외치자 원숭이들은 모두 아들딸을 끌고 형과 아우를 부르며 우르르 달려 나갔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산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폭포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흰 무지개가 피어오르듯 솟구치고 천 길 높이 눈부신 파도가 날아다니네. 바닷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오고 강물에 비친 달빛은 여전히 머무는데, 차가운 기운은 푸른 봉우리에 흠어지고 남은 물줄기는 초록빛 산등성이를 적시네. 졸졸 흐르는 저 폭포의 모습은 마치 하얀 발을 드리운 휘장 같구나.

원숭이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좋다, 정말 좋다! 알고 보니 이곳은 산기슭에서부터 바다까지 곧장 이어져 있구나!" 또 다른 원숭이가 말했다. "누구든 재주가 있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 근원을 찾아 나온 뒤에도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

원숭이들이 세 번이나 연달아 외치는데, 갑자기 덩불 사이에서 돌원숭이 하나가 쾅충 뛰어오르며 소리 높여 대답했다.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마!" 참으로 영리한 원숭이었다. 바로 이 원숭이었다.

시로 이르되, "오늘 그 이름 세상에 드러나니, 때를 만나 큰 운이 트이는구나. 이곳에 머물 인연을 얻었으니, 왕의 명을 받들어 선공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더니, 단숨에 솟구쳐 폭포 안쪽으로 뛰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그곳에는 물결도 파도도 없이 그저 맑고 환하게 놓인 다리 하나가 보였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어 자세히 다시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철판으로 만든 다리였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바위 틈새를 뚫고 거꾸로 쏟아져 내려가며 다리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다리 위로 올라가 다시 살펴보았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아늑하니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했다.

푸른 이끼는 쪽빛처럼 쌓여 있고, 흰 구름은 옥처럼 떠 있으며, 빛나는 안개와 노을이 조각조각 흩날린다. 빈 창문과 고요한 방 안에는 매끄러운 의자에 꽃무늬가 피어 있고, 젖줄이 흐르는 동굴에는 용주가 걸려 있으며, 기이한 꽃들이 땅 위에 가득 피어 있다. 절벽 옆에는 술과 아궁이가 있어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고, 탁자 위에는 술잔과 그릇, 음식 찌꺼기가 놓여 있다. 돌로 만든 좌석과 침상은 참으로 아늑하고, 돌로 만든 대야와 그릇은 더욱 훌륭하다. 또한 대나무 몇 대가 길게 뻗어 있고 매화가 여기저기 피어 있으며, 푸른 소나무 몇 그루가 늘 비를 머금고 있어, 마치 정말 사람이 사는 집과 같았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다리를 건너가서 좌우를 살펴보니, 딱 그 한가운데에 돌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비석에는 정갈한 글씨로 '화과산 복지, 수렴동 동천'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석후는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더니 물 밖으로 꺾충 뛰어올라, 두어 번 꺾꺾 웃으며 외쳤다.

"천지신명이 도우셨다! 정말 대단한 행운이야!"

원숭이들이 그를 에워싸고 물었다.

"안은 어때? 물은 얼마나 깊어?"

석후가 대답했다.

"물 같은 건 없어! 전혀 없다고! 알고 보니 그건 철판으로 만든 다리였어. 다리 건너편에는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보금자리가 있단 말이야."

원숭이들이 다시 물었다.

"그게 왜 보금자리라는 거야?"

석후가 웃으며 말했다.

"저 물줄기는 다리 아래를 뚫고 흐르다가 돌다리 밑에 거꾸로 매달려 문을 가리고 있는 것뿐이야. 다리 주변에는 꽃과 나무가 있고, 돌로 만든 집도 있어. 집 안에는 돌로 만든 둥지랑 아궁이, 그릇, 대야, 침

대, 의자까지 다 갖춰져 있다고. 집 한가운데 있는 돌비석에는 '화과산 복지, 수렴동 동천'이라고 새겨져 있어. 정말이지 우리가 편히 쉴 곳이지. 안이 아주 넓어서 수천수만 마리의 원숭이가 들어가 살아도 충분해. 우리 모두 저기로 들어가 살자. 그래야 하늘의 모진 풍파를 피할 수 있잖아. 그곳은 이렇단다.

바람 불면 피할 곳 있고, 비 내려도 몸 누일 곳 있네. 서리와 눈도 두렵지 않고, 천둥소리 들릴 일 없으리. 노을과 안개가 늘 비추고,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네. 소나무와 대나무는 해마다 푸르고, 기이한 꽃들은 날마다 새로워라."

원숭이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먼저 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라, 어서!"

그러자 석후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더니 안으로 훌쩍 뛰어들며 외쳤다. "모두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들어와!"

배짱이 두둑한 원숭이들은 앞다투어 뛰어 들어갔고, 겁이 많은 원숭이들은 목을 움츠리고 머리를 굽적이며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다리를 건너 들어간 원숭이들은 저마다 그릇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부엌과 침상을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며 분주히 움직였다. 원숭이들의 성격이 워낙 장난스럽고 극성스러운 탓에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모두가 힘이 빠져 지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멈추었다.

그때 석후가 높은 곳에 단정히 앉아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능력이 있어

들어왔다 나갈 수 있고, 몸을 다치지 않는 자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며 여러분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이 동굴을 찾아냈으니, 이제 모두가 이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십니까?"

원숭이들은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숙이며 따랐다. 원숭이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위를 향해 절을 올리며 "천세 대왕님!"이라고 칭송했다. 이때부터 석후는 높은 왕위에 올랐고, '돌 석(石)' 자를 빼고 '미후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를 시로 이르되,

삼양의 기운이 조화로워 만물이 생겨나니 신령한 돌은 해와 달의 정기를 품었도다. 알을 빌려 원숭이로 태어나 대도를 완성하고 이름을 빌려 쓰며 단을 이루어라. 안으로 살피면 형체 없는 인연을 알 수 없고 밖으로 합치면 형체 있는 이치를 깨닫나니 역대 모든 이들이 다 이와 같아서 왕이 되고 성인이 되어 세상을 종횡무진하도다.

미후왕은 원숭이와 털원숭이, 말원숭이 등 무리를 거느리고 임금과 신하, 보좌역을 나누어 배치했다. 아침에는 화과산에서 노닐고 저녁에는 수렴동에서 잠을 자며, 모두가 마음을 합쳐 날아다니는 새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들판을 달리는 짐승 무리보다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그들만의 왕이 되어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에 시로 이르되,

봄에는 온갖 꽃을 따다 먹고 여름에는 여러 과일을 찾아 생계를 잇는다. 가을에는 토란과 밤을 거두어 계절을 보내고 겨울에는 황정(黃精)을 찾아 세월을 넘긴다.

미후왕은 천진하게 즐거움을 누리며 삼오백 년을 보냈으나, 어느 날 원숭이 무리와 즐겁게 잔치를 벌이던 중 갑자기 근심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 원숭이들이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물었다.

“대왕님, 무엇 때문에 그리 근심하십니까?”

미후왕이 말했다.

“지금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되는 일이 있어 근심이 되는구나.”

원숭이들이 웃으며 말했다.

“대왕님은 참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신선이 사는 산이자 복된 땅이며, 신비로운 동굴이 있는 신령한 땅입니다. 기린이나 봉황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인간 세상의 왕에게 구속받지도 않으며, 이토록 자유자재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걱정하며 슬퍼하신단 말입니까?”

미후왕이 다시 말했다.

“지금은 비록 인간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짐승들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훗날 늙고 기력이 쇠하여 어둠 속에서 염라대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찌겠느냐? 한 번 죽고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헛되지는 않을지, 천인(天人)의 반열에 들어 영원히 머물지는 못할지 걱정이 되는구나.”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저마다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며, 모두가 삶의 무상함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원숭이 무리 사이에서 갑자기 통배원후가 튀어나오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대왕께서 이토록 깊이 고민하시니, 참으로 도를 깨우칠 마음이 생겼군요! 지금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세 부류만이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후왕이 물었다.

“그 세 부류가 누구인지 아느냐?”

통배원후가 대답했다.

“바로 부처와 신선, 그리고 성스러운 신들입니다. 이들은 윤회를 벗어나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천지 만물 및 산천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미후왕이 다시 물었다.

“그 세 부류는 어디에 머무느냐?”

통배원후가 말했다.

“오직 이 염부세계의 오래된 동굴과 신비로운 선산 속에만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미후왕은 기쁨에 겨워 말했다.

“내 당장 내일부터 너희를 떠나 산을 내려가겠다. 세상 끝까지 구석 구석 돌아다니며 반드시 그 세 부류를 찾아내어, 늙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배워 염라대왕의 재앙을 영원히 피하리라!”

아! 이 한마디가 바로 윤희의 그물을 뛰어넘게 하여, 훗날 제천대성 손오공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원숭이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내일 고개를 넘어 산을 오르며 맛있는 과일을 잔뜩 찾아와 대왕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겠습니다!”

다음 날, 원숭이들은 저마다 선도와 신비로운 열매를 따고 산악과 황정을 캐러 흩어졌다. 지란초와 요초, 기이한 꽃들이 가득했고, 온갖 진귀한 것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원숭이들은 돌탁자와 돌의자를 펼쳐 놓고 그 위에 선주와 선채를 정성껏 차려냈다. 그 풍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금빛 구슬처럼 탱글탱글하고 붉게 피어난 열매들이 가득했다. 금빛 구슬 같은 앵두는 색이 참으로 달콤하고 아름다웠으며, 붉게 피어 노랗게 익은 매실은 맛이 향긋하고 새콤했다. 용안은 속살이 달콤하고 껍질이 얇았으며, 리치는 씨가 작고 붉은 속살이 주머니처럼 가득했다. 푸른 사과와 가지마다 줄지어 바쳐지고, 비파는 붉은 꽃봉오리에 잎을 머금은 채 받쳐져 있었다. 토끼 머리 모양의 배와 닭 심장 같은 대추는 갈증을 없애고 번뇌를 씻어내며 술기운까지 달래주었다. 향긋한 복숭아와 잘 익은 살구는 그 달콤함이 마치 옥액과 같은 술 같았고, 아삭한 자

두와 다래는 그 새콤함이 마치 기름진 크림 같았다. 붉은 껍질에 검은 씨가 박힌 잘 익은 수박과 네 갈래로 나뉜 노란 껍질의 커다란 감도 있었다. 석류는 껍질이 터져 붉은 알갱이가 불타는 구슬처럼 빛났고, 토란과 밤은 쪼개어 놓으니 단단한 속살이 금빛 마노 같았다. 호두와 은행은 차로 마시기 좋고, 코코넛과 포도는 술로 빚기에 제격이었다. 개암, 솔방울, 잣, 사과가 쟁반 가득 넘쳐나고, 굴과 사탕수수, 감귤과 오렌지가 상 위에 가득 놓였다. 폭 삶은 산약과 부드럽게 끓인 황정도 있었다. 복령과 울무를 찢어 돌솥에 넣고 약한 불로 은근히 끓여낸 죽도 있었다.

세상에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 있다 한들, 어찌 산속 원숭이들이 누리는 이 즐거움에 비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 무리가 미후왕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 아래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줄지어 앉았다. 원숭이들은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가 술과 꽃, 과일을 올렸고, 그들은 하루 종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

다음 날 아침, 미후왕은 일찍 일어나 원숭이들에게 일렀다. "애들아, 마른 소나무 가지를 좀 꺾어다가 뗏목을 만들고, 대나무를 가져다가 노로 써라. 과일 같은 먹을거리도 좀 챙겨두거라. 이제 길을 떠나겠다."

미후왕은 홀로 뗏목에 올라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뗏목은 물결을 따라 둥둥 떠다니며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남섬부주 땅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이번 여정은 바로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하늘이 낸 신비한 원숭이 도력이 높으니, 산 내려와 뗏목 타고 하늘바람을 이용하네. 바다 건너 도를 찾아 떠나는 길, 큰 뜻

품고 마음을 다해 공을 세우리라. 인연이 닿으면 속세의 미련을 버리고, 근심 걱정 없이 진리를 깨닫게 되리니, 반드시 마음 통하는 스승을 만나, 근본을 깨우쳐 만법을 통달하리라.

운이 따라준 덕분에 그는 나무 뗏목을 타고 나아갔다. 며칠 동안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 그를 서북쪽 해안가로 밀어 올렸는데, 그곳은 바로 남섬부주 땅이었다. 그는 장대를 이용해 물의 깊이를 재보더니, 마침 얕은 곳이 나오자 뗏목을 버리고 육지로 뛰어올랐다.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기러기를 사냥하고, 조개를 캐거나 소금을 거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호랑이 흉내를 내며 재주를 부렸는데, 그 바람에 사람들이 바구니와 그물을 내팽개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는 도망치지 못한 사람 하나를 붙잡아 옷을 벗긴 뒤, 그대로 자기 몸에 걸쳐 입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누빈 그는, 시장터에서 사람들의 예절과 말투를 배웠다. 아침이면 먹고 밤이면 잠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로지 부처와 신선, 그리고 성스러운 도를 구하며 영생할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명예와 이익만을 쫓을 뿐, 자신의 목숨을 보살피는 이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며 시로 이르되,

이름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 언제쯤 끝날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 하네! 나귀와 노새를 타면서도 준마를 그리워하고, 재상이 되어 왕후를 꿈꾸는구나. 다만 먹고사는 일이 고달플까 걱정일 뿐, 염라대왕이 명부를 가져가는 것을 무엇이 두렵겠는가. 자식과 손자에게 부귀를 물려주려 애쓰지만,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원숭이 왕은 도를 닦는 신선을 찾아 나섰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는 남섬부주를 떠돌며 성곽을 지나고 작은 고을들을 구경하며 어느덧 8, 9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서쪽의 큰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는 바다 너머에 분명 신선이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예전처럼 홀로 뗏목을 만들어 서해를 건너 서우하주 경계에 다다랐다. 해안에 상륙하여 한참 동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중, 문득 산세가 수려하고 숲이 깊고 그윽한 높은 산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늑대나 이리, 호랑이나 표범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산 정상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았다. 과연 참으로 좋은 산이었다.

천 개의 봉우리는 창을 세운 듯 솟아 있고, 만 길 낭떠러지는 병풍을 펼친 듯 장관이다. 햇빛은 안개 속에 잠긴 푸른 빛을 비추고, 비가 그치면 검푸른 산빛이 서늘하게 감도네. 가느다란 덩굴은 오래된 나무를 휘감고, 오래된 나무터는 깊은 길을 가로막네. 기이한 꽃과 상서로운 풀, 곧게 뻗은 대나무와 커다란 소나무가 가득하구나. 대나무와 소나무는 만 년 동안 푸르러 복된 땅을 다투고, 기이한 꽃과 상서로운 풀은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아 신선이 사는 곳과 맞먹는도다.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는 가까이 들려오고, 샘물은 맑게 흘러 소리를 내네. 깊은 골짜기마다 지란이 감돌고, 험한 절벽마다 이끼가 자라났구나. 굽이치는 산줄기는 용의 맥이 흐르는 듯하니, 필시 이곳에 이름 높은 고인이 은거하고 있으리라.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숲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여 보니, 알고 보니 노래 부르는 소리였다. 노래는 이러했다.

"바둑을 구경하다 보니 도끼자루가 다 썩고, 나무 베는 소리만 쪼쪼 울리는구나. 구름 끝 골짜기 따라 천천히 걸으며, 땀나무 팔아 술 한 잔 사 마시고 미친 듯 웃으며 흥을 돋우네. 가을빛 높은 오솔길에서 달을 마주하고, 소나무 뿌리 베개 삼아 한잠 자니 어느덧 날이 밝았네. 옛 숲을 거닐고 절벽을 넘어 고개를 넘으며, 도끼를 들고 마른 덩굴을 베어 내네.

베어낸 나무 한 짐 짊어지고 노래하며 저잣거리에 나가, 쌀 세 되와 바꾸어 오네.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없이 물가도 평온하구나. 잔꾀나 계산할 줄은 몰라도 영욕에 휘돌리지 않으니 마음이 담백하고 삶이 여유롭네. 길 가다 마주치는 이들은 신선 아니면 도사라, 정좌하여 《황정경》을 논하네."

미후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신선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러고는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시로 이르되,

머리에는 대나무 껍질로 엮은 삿갓을 쓰고 몸에는 무명으로 짠 벼옷을 걸쳤으며 허리에는 실로 끈 끈을 매고 발에는 풀을 엮어 만든 짚신을 신었네. 손에는 단단한 강철 도끼를 들고 불마로 만든 밧줄을 어깨에 댔으니 소나무를 꺾고 마른 나무를 패는 솜씨가 그야말로 나무꾼의 정석이라 할 만하구나.

원숭이 왕이 앞으로 다가와 외쳤다. "어르신, 제자가 예를 올립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를 내던지고 몸을 돌려 답례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먹고살기도 힘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신선'이라는 대접을 받겠습니까?"

원숭이 왕이 말했다. "신선이 아니면서 어찌 신선 같은 말을 내뱉었던 말입니까?"

나무꾼이 되물었다. "제가 신선 같은 말을 하다니요?"

원숭이 왕이 대답했다. "내가 방금 숲가에 도착했을 때, 당신이 '만남의 자리, 선이 아니면 도라네. 정좌하여 《황정》을 읊조리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황정》은 도덕의 참된 진언인데, 신선이 아니고 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하겠소?"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이 글의 제목은 《만정방》이라는 곡인데, 한 신선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신선께서는 저희 집과 이웃 사촌인데, 제 집안 형편이 고달프고 매일 근심이 많은 것을 보시고는,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곡을 읊조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침 제가 근심거리가 좀 생겨서 읊조리고 있었는데, 뜻밖에 당신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원숭이 왕이 말했다. "그대의 집이 신선과 이웃이라면, 어찌 그분을 따라 수행을 하지 않는단 말ियो? 늙지 않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소?"

나무꾼이 말했다. "제 인생은 고통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자라 여덟아홉 살쯤 되어 세상 물정을 알 때쯤, 불행히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이 저 혼자뿐이라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한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논밭은 황폐해져 먹고살 길도 막막하니, 그저 나무 두 묶음을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 몇 푼이라도 벌고, 그 돈으로 쌀을 조금 사다가 직접 밥을 지어 노모를 봉양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니 수행을 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미후왕이 말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그분은 효심 깊은 군자이니, 분명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구려. 그러니 그 신선께서 계신 곳을 내게 알려주소. 직접 찾아가 뵙고 싶소."

나무꾼이 대답했다.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 산의 이름은 영태방촌산이고, 산속에 사월삼성동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지요. 그 동굴에는 수보리조사라고 불리는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셀 수 없이 많아서, 지금도 서른에서 마흔 명 정도가 그분 밑에서 수행하고 있지요. 저 작은 길을 따라 남쪽으로 칠팔 리쯤만 가면 바로 그분의 집이 나옵니다."

미후왕이 나무꾼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여보게, 나와 함께 가세 나. 만약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자네가 길을 알려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네."

나무꾼이 말했다. "이 양반이 참 눈치도 없으시구려.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소? 만약 내가 당신과 같이 갔다가 내 일감을 놓치면 어찌란 말이오? 집에 계신 노모는 누가 봉양하란 말이오? 나는 나무를 해야 하니, 당신 혼자 알아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미후왕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작별을 고했다. 그는 깊은 숲을 헤치고 나와 길을 찾아 산등성이를 일곱여덟 리쯤 넘어가니, 과연 눈앞에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몸을 내밀어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시로 이르되,

안개와 노을은 채색을 띠며 흩어지고, 해와 달은 빛을 발하며 흔들리네. 천 그루 노송은 비를 머금어 허공에 푸르게 솟아 있고, 만 마디 대나무는 안개를 머금어 골짜기에 푸룻푸룻하구나. 문밖에는 기이한 꽃들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고, 다리 옆에는 신령한 풀들이 향기를 뿜어 내네. 깎아지른 바위 절벽은 이끼로 촉촉이 젖어 있고, 높은 벽에는 푸른 이끼가 길게 자라났구나. 때때로 신선 학의 울음소리 들려오고,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습 자주 보이네. 학이 울 때면 그 소리 아홉 늪을 울리고 높은 하늘까지 멀리 퍼지며, 봉황이 날아오를 때면 깃털은 오색찬란한 빛을 내며 구름 사이를 누비네. 검은 원숭이와 흰 사슴은 은밀히

나타났다 사라지고, 금빛 사자와 옥빛 코끼리는 자유로이 거니는구나.
자세히 살펴보니 영험한 복지이니, 참으로 천상 낙원과 다를 바 없네.

다시 보니 동굴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적막만이 감돌 뿐 사람의 흔적
이라곤 전혀 없었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절벽 끝에 높이 3장, 너비
8척 정도 되는 석비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위에는 '영태방촌산, 사월삼
성동'이라는 커다란 글자 열 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후왕은 매우 기뻐
하며 말했다. "이곳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구나. 과연 이 산과 동굴이
실재하는 것이었어!" 한참 동안 구경하던 그는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
하고, 대신 근처 소나무 가지 위로 뛰어올라 술방울을 따 먹으며 장난
을 치며 놀았다.

잠시 후,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동굴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선동
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이 참으로 풍채가 당당하고 용모가 맑고
기이하여,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 모습은 이러하
였다.

머리는 비단 끈으로 정갈하게 묶어 올렸고, 넓은 소매의 도포는 바
람에 휘날리며, 용모는 온화하나 몸과 마음이 본래 비어 있어 세상의
번뇌가 없고, 세속을 벗어나 영원한 세월을 사는 손님이자, 산속에서
무병장수하는 아이로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세월
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이 없구나.

선동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크게 외쳤다.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
는 것이냐?”

원숭이 왕이 나무에서 펄쩍 뛰어 내려와 앞으로 나아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선동님, 저는 도를 닦는 스승님을 찾아온 제자입니다. 감히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려던 것은 아닙니다.”

선동이 웃으며 물었다. “네가 도를 구하러 온 사람이냐?”

원숭이 왕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선동이 말했다. “우리 스승님께서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에 올라 도를 설하시려던 참이었는데, 아직 본론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나를 불러 문을 열어주라 하셨다. ‘밖에 수행하는 사람이 왔으니 가서 맞이하거라’라고 하시던데, 필시 네가 그 사람이겠구나?”

원숭이 왕이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선동이 말했다. “그럼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너라.”

원숭이 왕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로 선동을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겹겹이 이어진 누각과 화려한 궁전들이 끝없이 펼쳐졌고, 구슬로 장식된 문과 조개껍데기로 꾸민 문들이 이어지며 고요하고 아늑한 거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요대 아래에 이르니, 수보리조사가 대좌 위에 단정히 앉아 있고 그 양옆으로는 서른 명의 어린 신선들이 대 아래에 시립해 있었다. 과연 그 모습은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대각금선은 때 묻지 않은 모습이요, 서방의 묘한 형상은 수보리조사라.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삼삼한 도리니, 기운과 정신

이 온전하여 자비가 끝이 없도다. 공적하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따르며, 진여의 본성을 따라 마음껏 행하는구나. 하늘과 수명을 같이하는 장엄한 몸으로, 모든 겁난을 거치며 깨달음을 전하는 대법사로다.

미후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외쳤다. “스승님, 스승님! 제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스승님을 받드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뵙나이다!”

수보리조사가 말했다. “너는 어느 곳에서 온 누구냐? 고향과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다시 절을 올리거라.”

미후왕이 대답했다. “제자는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수보리조사가 호통을 쳤다. “당장 나가라! 이놈은 본래 남을 속이는 사기꾼일 뿐인데, 어디서 도를 닦겠느냐!”

미후왕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멈추지 않고 말했다. “스승님, 제자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수보리조사가 말했다. “네가 정말 정직하다면, 어찌 동승신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냐? 이곳에 오려면 거대한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남섬부주를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말이나?”

미후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다. “제자는 바다를 건너고 여러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십수 년을 헤맨 끝에 겨우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수보리조사가 말했다. "그럼 차근차근 찾아가며 배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네 성은 무엇이나?"

미후왕이 다시 대답했다. "저는 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저를 욕해도 화가 나지 않고, 저를 때려도 성내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예의를 갖추 뿐입니다. 평생 성질이 없습니다."

수보리조사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부모님의 성은 무엇이나?"

미후왕이 말했다. "저에게는 부모도 없습니다."

수보리조사가 물었다. "부모가 없다면, 아마 나무에서 태어났느냐?"

미후왕이 대답했다. "나무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저 화과산에 신비로운 선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이 깨지던 해에 제가 태어났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수보리조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것이로구나. 일어나서 좀 움직여 보아라, 내가 한번 보겠다."

미후왕은 몸을 훌쩍 날아올라 이리저리 두어 번 뛰어다녔다. 수보리조사가 웃으며 말했다. "몸집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꼭 솔방울이나 까먹는 원숭이 같구나. 네 몸을 보고 성을 하나 지어주마. 뜻은 '호(獏)'라는 성을 쓰게 하려는 것이다. '호' 자에서 짐승 수(豸) 자를 빼면 옛 문자의 달 월(月) 자가 남지 않느냐. 옛것은 늙은 것이고, 달은 음기를 뜻

한다. 늙은 음기는 만물을 길러낼 수 없으니, 차라리 '손(獼)'이라는 성을 주는 편이 좋겠구나. '손' 자에서 짐승 수(豸) 자를 빼면 아들 자(子)와 맏 계(系) 자가 남는다. 아들은 사내아이를 뜻하고, 계는 갓난아가 어린 것을 뜻하니, 갓 태어난 아이라는 본래의 뜻에 딱 들어맞는구나. 그러니 네 성을 '손'이라 하마."

미후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려 절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을 얻었으니, 이제 부르기 편하도록 이름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수보리조사가 말했다. "우리 문중에는 이름을 짓는 열두 글자의 체계가 있는데, 너는 그중 열 번째 항렬의 제자가 될 것이다."

미후왕이 물었다. "그 열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수보리조사가 대답했다. "광, 대, 지, 혜, 진, 여, 성, 해, 영, 오, 원, 각, 이렇게 열두 글자다. 네 차례는 바로 '오' 자에 해당한다. 네 법명을 '손오공'이라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미후왕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손오공이라 불러 주십시오."

시로 이르되, "혼돈이 처음 열릴 때 본래 성은 없었으나, 텅 빈 허망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오공(悟空)'해야 하리."

결국 그가 나중에 어떤 도를 깨달아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회 — 보리진묘리를 깨달아 통달하고, 마를 끊어 근본으로 돌아가 원신과 합치다

悟徹菩提真妙理 斷魔歸本合元神

미후왕은 이름을 얻게 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수보리조사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조사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손오공을 동굴의 두 문 밖으로 안내하게 하고, 그곳에서 청소하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물러나고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했다. 선동들이 그 명을 받들어 손오공을 데리고 나갔다. 손오공은 문밖에서 다른 선동들을 사형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고, 복도 옆에 마련된 곳에 자리를 잡고 잠자리를 정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손오공은 사형들과 함께 언어와 예절을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도를 논하고, 글씨를 쓰고 향을 피우는 법을 익혔다. 매일같이 이런 일과가 반복되었다. 틈이 날 때면 마당을 쓸거나 밭을 일구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손질했으며, 땀감을 찾아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오는 일도 도맡았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동굴 안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6,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어느 날, 조사가 단 위에 올라 높이 앉아 여러 신선을 불러 모으고 대도의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하늘에서는 꽃이 흩날리고 땅에서는 금빛 연꽃이 솟아나네. 삼승의 가르침을 묘하게 설파하니 만 가지 법의 정수가 온전하구나.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구슬 같은 법문을 쏟아내니,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져 구천(九天)을 뒤흔드네. 한때는 도를 말하고 한때는 선을 논하니, 세 가지 가르침이 본래 하나로 어우러지네. 밝은 깨달음의 한 마디로 진리에 귀의하게 하고,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신비로운 이치를 인도하네.

손오공은 곁에서 강의를 듣다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리를 굽적이고 눈을 반짝이며 싱글벙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발을 휘저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조사의 눈에 띄고 말았다. 조사가 손오공을 불러 꾸짖었다.

“네가 반에서 공부하는 녀석이 어찌 그리 미친 듯이 날뛰며 내 강의는 듣지도 않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자는 진심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너무나 절묘하고 오묘하여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들썩거렸습니다. 부디 스승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조사가 말했다.

“네가 그 오묘한 소리를 알아듣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 물으마. 네가 이 동굴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자는 본래 아는 것이 없는 미련한 놈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궁이에 불이 없어서 늘 산 뒤로 나무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맛있는 복숭아나무가 가득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숭아를 일곱 번이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그 산의 이름은 난도산이다. 네가 일곱 번이나 먹었으니 아마 7년은 되었겠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나에게 어떤 도를 배우고 싶으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저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저 도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제자는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도(道)'라는 문 안에는 삼백예순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마다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느니라. 너는 어느 갈래를 배우고 싶으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술(術)'이라 불리는 문중의 도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술의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사가 설명했다. "술의 문중이란 신선을 청하거나, 부란(扶鸞)으로 신령을 불러 글로 점괘를 받거나, 점을 치고 시초(蓍草)를 헤아려 길흉 화복의 이치를 알아내는 법들을 말한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해서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답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릴 수는 없어."

손오공이 말했다. "배우지 않겠습니다, 배우지 않겠습니다."

조사가 다시 말했다. "너에게 '유(流)' 자 문중의 도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유 자 문중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이치입니까?"

조사가 대답했다. "유 자 문중이란 유가, 불교, 도교, 음양가, 묵가, 의가 등을 아우르는 것이니, 경전을 읽거나 불경을 외우고, 혹은 신성한 존재를 우러러보며 경배하는 부류를 말한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말했다. “장생을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벽 속에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어려운 말은 잘 모릅니다. ‘벽 속에 기둥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사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만들려고 벽 사이에 기둥을 하나 세워두기도 하지. 하지만 언젠가 큰 건물이 무너질 때가 오면, 그 기둥 또한 반드시 썩어 없어지기 마련이란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들으니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겠군요. 안 배우겠습니다, 안 배워요.”

조사가 말했다. "너에게 '정(靜)' 자 문중의 도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정 자 문중의 도를 배우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조사가 답했다. "그것은 음식을 절제하고 곡식을 갈무리하며,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여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선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앉으며, 말을 삼가고 재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지. 혹은 누워서 수련하는 법이나 서서 수련하는 법, 그리고 선정에 들거나 관상을 수행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런 걸 배운다고 정말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말했다. "그것은 마치 가마터의 흙덩이와 같단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정말 말씀이 알쏭달쏭하시군요. 아까 제가 줄곧 시정의 은어[市語]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마터의 흙덩이'라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조사가 설명했다. "가마터에서 벽돌이나 기와를 만들기 위해 빚어 놓은 흙덩이를 말한다. 모양은 이미 갖추었으나 아직 물과 불의 단련을 거치지 않았으니, 어느 날 갑자기 큰비라도 쏟아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지."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하겠군요. 안 배우겠습니까, 안 배워요!"

조사가 말했다. "너에게 '움직임(動)'의 문에 담긴 도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

손오공이 물었다. "움직임의 도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조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여 얻는 방법이다. 음기를 취해 양기를 보충하거나, 활과 노를 당기고, 배꼽을 문지르며 기운을 돌리거나, 약 처방에 따라 약물을 제조하고(用方炮製), 짚을 태워 술을 달구거나, 붉은 납(紅鉛)을 넣고 추석(秋石)을 정련하며, 여인의 젖을 복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손오공이 되물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정말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말했다. "장생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또 농담을 하시는군요. '물속에서 달을 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사가 설명했다. "달은 드넓은 하늘에 떠 있고, 물속에는 그 그림자가 있을 뿐이다.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날 뿐이라는 뜻이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배우지 않겠습니다. 안 배워요!"

조사가 그 말을 듣더니, 획 소리를 내며 높은 단 위에서 뛰어내려 왔다. 그리고는 계척(스승이 제자를 훈육할 때 쓰는 회초리)을 손에 쥐고 손오공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이 미련한 원숭이 녀석아! 이것도 배우기 싫다, 저것도 배우기 싫다니, 대체 어찌겠다는 게냐!"

조사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손오공의 머리를 세 대나 후려했다. 그러고는 뒷짐을 진 채 안으로 들어가 중문을 활 닫아버리고는, 모여 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홀로 떠나버렸다.

강론을 듣던 무리는 모두 겁에 질려 손오공을 원망했다.

"이 못된 원숭이 녀석, 정말 버릇이 없구나! 스승님께서 도법을 전해 주시는데 어찌 배우려 하지 않고 스승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이나? 저

렇게 스승님을 노엽게 해버렸으니, 대체 언제쯤 다시 나오실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손오공을 탓하며 천박하고 못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었다. 사실 미후왕은 이미 접시 위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 뜻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가 그를 세 대 때린 것은 삼경(밤 11시~새벽 1시)에 찾아오라는 뜻이었고, 뒷짐을 지고 들어가 중문을 닫아버린 것은 뒷문으로 들어오면 비밀스러운 곳에서 도를 전해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손오공은 원숭이 무리와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삼성전동 앞에 서 해가 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어둑어둑 황혼이 내려앉자 손오공은 원숭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나, 눈만 감았을 뿐 마음은 늘 깨어 있었고 숨을 고르며 정신을 집중했다. 산속이라 시간을 알려주는 북소리나 신호도 없었기에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었지만, 손오공은 오로지 자신의 코끝을 드나드는 숨결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렸다.

자시(子時, 밤 11시~새벽 1시) 무렵이 되었을 때, 손오공은 살며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러고는 남들 몰래 앞문을 살짝 열고 무리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마침 다음과 같았다.

달은 밝고 이슬은 차갑게 맺혔으며, 온 세상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구나. 깊은 나무 사이엔 이름 모를 새들이 잠들고,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네.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는 빛과 그림자를 흩뿌리고,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는 구름을 가르네. 한창 깊은 밤 삼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참된 도를 찾아 나설 때로다.

손오공이 원래 가던 길을 따라 후문 밖으로 나가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도를 전해주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두신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가까이 다가가 몸을 비스듬히 틀어 문 안으로 들어갔다. 손오공은 조사의 잠자리 아래까지 다다랐다. 조사는 몸을 웅크린 채 안쪽에서 잠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감히 깨우지 못하고 잠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조사가 두 다리를 쭉 뻗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렵구나, 어렵고 어려워! 도의 이치는 지극히 심오하니, 금단(불로장생의 약)을 얻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지극한 도를 깨우친 이를 만나 비결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헛된 말만 늘어놓다 혀가 말라버릴 뿐이로다!"

손오공이 대답하며 외쳤다. "스승님, 제자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사가 목소리를 듣고 손오공임을 알자, 곧 옷을 걸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꾸짖듯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앞쪽으로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어찌하여 내 뒤쪽까지 찾아와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어제 제단 앞에서 대중에게 약속하시기를,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 되면 뒷문으로 저에게 도리를 전해주

겠노라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스승님 침상 아래에 엎드려 절을 올렸나이다."

조사는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과연 천지 기운을 타고난 놈이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 마음속에 품은 수수께끼를 단번에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곳에는 다른 이는 없고 오직 제자뿐이니, 부디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제게 장생불사의 도를 전수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네게 인연이 있으니 나 또한 기쁘구나. 이미 내 마음속의 수수께끼를 알아챘으니, 가까이 오너라. 자세히 들어보렴. 네게 장생의 묘한 도를 전해주마."

손오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 귀를 씻어 마음을 가다듬은 뒤 침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사가 계송으로 이르되,

"드러남과 숨김이 원만히 통하는 참된 묘결은 성품과 생명을 정성껏 닦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도다. 모든 것은 정(精)·기(氣)·신(神)으로 이루어지니 삼가 굳게 갈무리하여 한 점의 누설도 없게 하라. 누설하지 말고 몸속에 잘 간직하면 내가 전하는 도를 받아 스스로 번창하리라. 이 비결을 잘 기억해두면 큰 도움이 되리니 사악한 욕심을 물리치면 몸과 마음이 청량해지리라. 청량해지면 빛이 밝고 깨끗해져서 마치 단전(丹臺) 위에서 밝은 달을 감상하는 듯하리라. 달은 옥토끼와 함께 숨고 해는 까마귀와 함께 숨으니 거북과 뱀이 서로 얹혀 도를 이루는 법이라. 서로 얹혀 도를 이루면 성품과 생명이 견고해져 불길 속에서도 황

금 연꽃을 피워낼 수 있으리라. 오행(五行)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려 쓰면 공덕을 다한 뒤에는 부처와 신선이 되리라."

근원을 깨닫게 되자 손오공의 마음에는 지혜가 번뜩였고, 비결을 가슴 깊이 새겼다. 손오공은 스승인 수보리조사에게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린 뒤, 뒷문으로 나가 밖을 살폈다. 동쪽 하늘에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서쪽 길에는 금빛 서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오공은 왔던 길을 되돌아 앞문으로 가서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원래 잠자던 자리에 앉아 침상을 흔들며 외쳤다.

"날이 밝았다, 날이 밝았어! 어서 일어나라!"

다른 제자들이 아직 깊이 잠든 사이라, 손오공이 이토록 큰 경사를 얻은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부터 손오공은 일어나서 다른 이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남모르게 스스로 기운을 다스리며 수련에 정진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틈이 호흡을 고르며 도를 닦았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사가 다시 보좌에 올라 제자들에게 법을 설파하고 있었다. 법을 설하는 내용은 세상의 이치를 비유로 든 공안(公案)이었고, 논하는 바는 겉모습에 가려진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다 조사가 문득 물었다.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제자 여기 있습니다."

조사가 물었다.

“너는 그동안 어떤 도를 닦아 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자, 근래 들어 법성을 꽤 깨우쳤으며 근원 또한 점차 견고해졌나이다.”

조사가 말했다.

“네가 법성을 깨우치고 근원을 터득하여 이미 신령한 기운을 몸에 채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삼재(三災, 세 가지 큰 재앙)의 해로움을 경계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틀렸나이다. 저는 도가 높고 덕이 높으면 하늘과 수명이 같아지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재의 해로움’이라는 것이 있단 말씀입니까?”

조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평범한 도와는 다른 비범한 도이기 때문이다. 천지의 조화를 빼앗고 해와 달의 신비로운 기운을 침범하니, 금단(金丹, 불로장생의 약)을 완성한 뒤에는 귀신조차 너를 용납하기 어렵다. 비록 얼굴이 젊게 유지되고 수명이 늘어난다 해도, 500년이 지나면 하늘에서 버락

재앙이 내려 너를 칠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본성을 살피고 마음을 밝혀 미리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있다면 하늘과 수명을 같이 하겠지만, 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다시 500년이 지나면 하늘에서 불 재앙이 내려 너를 태울 것이다. 이 불은 하늘의 불도 아니고 세상의 불도 아닌, ‘음화(陰火)’라 불리는 불이다. 몸 안의 용천혈(湧泉穴) 아래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여 뇌를 감싼 뼈 속까지 치고 올라가니, 오장육부는 재가 되고 사지는 썩어 문드러져 천 년 동안 쌓아온 고행이 모두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또 다시 500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바람 재앙이 내려 너를 휩쓸 것이다. 이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온화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 혹은 꽃과 나무를 흔드는 바람도 아닌 ‘비풍(鼃風)’이라 불리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머리 뒤쪽의 혈자리를 통해 육부로 붙어 들어와 단전을 지나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뚫고 지나가니, 뼈와 살이 흩어져 몸이 저절로 해체되고 만다. 그러니 반드시 이 재앙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를 조아리며 절했다. "스승님, 부디 저를 가엽게 여겨 삼재(三災, 인간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앙)를 피할 수 있는 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스승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너는 다른 이들과 달라 가르쳐 줄 수가 없구나." 손오공이 물었다. "저도 머리는 둥글어 하늘을 받들고 발은 네모나 땅을 딛고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아홉 구멍과 사지, 오장육부를 갖추었는데 어찌 사람과 다르다 하십니까?" 조사가 대답했다. "네가 비록 사람과 닮긴 했어도,

사람보다 턱살이 적지 않느냐." 알고 보니 그 원숭이는 얼굴이 훔쭉하고 턱이 뽀족한 형상이었다. 손오공이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져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계산이 틀리셨습니다. 제가 비록 턱살은 적어도 사람보다 이 주머니 같은 배는 더 넉넉하니, 이것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에이, 됐다. 너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냐? 하늘의 기운을 따르는 천강(天罡)의 수로는 서른여섯 가지 변화가 있고, 땅의 기운을 따르는 지살(地煞)의 수로는 일흔두 가지 변화가 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제자는 가능한 한 많이 배워보고 싶으니, 지살의 변화를 배우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앞으로 오너라. 비결을 전해주마." 조사는 손오공의 귀에 대고 무어라 묘한 법술을 나직이 속삭여 주었다. 이 원숭이 왕은 하나를 깨우치면 백 가지를 통달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비결을 배운 손오공은 스스로 수련에 정진하여, 마침내 일흔두 가지 변화를 모두 익히고야 말았다.

어느 날, 조사가 제자들과 함께 삼성선동 앞에서 저무는 노을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 조사가 물었다. "오공아, 공부는 다 되었느냐?" 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의 넓고 깊은 은혜 덕분에 제자의 공부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이제 하늘로 날아올라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그럼 네가 날아오르는 것을 한번 보여주어라." 오공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고자 몸을 번쩍 솟구치더니, 연달아 공중제비를 돌며 땅에서 5~6장(丈) 높이까지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구름 사이를 밟고 날아갔는데, 밥 한 끼 먹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채 3리(里)도 못 가서 다시 눈앞으로 내려앉았다. 오공은 두 손을 모아 쥐고 말했다. "스승님, 이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조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름 위를 기어가는 수준일

뿐이다. 예부터 ‘신선은 아침에는 북해에서 놀고 저녁에는 창오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더냐. 너처럼 반나절 동안 채 3리도 못 가는 것은 기어 가는 것조차 되지 못한다.” 오공이 물었다. “아침에는 북해에서 놀고 저녁에는 창오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사가 설명했다. “구름을 타는 자라면 아침 일찍 북해에서 출발하여 동해, 서해, 남해를 거쳐 다시 창오까지 가야 한다. 창오란 북해 영릉을 일컫는 말이다. 사해(四海) 밖을 단 하루 만에 다 돌아다녀야 비로소 구름을 탄다고 할 수 있지.” 오공이 말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조사가 말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다.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을 뿐이지.” 이 말을 들은 오공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간청했다. “스승님, 사람이 도를 닦으려면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차라리 큰 자비를 베푸셔서 이 구름 타는 법을 제게 전수해 주십시오.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보통 신선들이 구름을 탈 때는 발을 힘차게 구르며 날아오르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방금 보니 몸을 휘청이며 뛰어오르더구나. 좋다, 그럼 네가 방금 보여준 그 기세 그대로 근두운(筋斗雲)을 가르쳐 주마.” 오공이 다시 절하며 간절히 부탁하자, 조사는 비결을 일러주었다. “이 구름은 주문을 외우며 진언을 읊고, 주먹을 짝 쥐 채 몸을 한 번 크게 떨며 뛰어오르면 된다. 그러면 한 번의 근두운(筋斗)에 십만 팔천 리를 갈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도나도 히히덕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오공이 운이 좋구나! 만약 저 법술을 익히기만 하면, 어디든 가서 군사 노릇을 하거나 서류를 배달하고 소식을 전하며 먹고살 걱정은 없겠어!” 스승과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각자 자신의 동굴로 돌아갔다.

그날 밤, 손오공은 정신을 집중하여 법술을 연마한 끝에 근두운을 익혔다. 해가 뜨는 대로 구속 없이 마음껏 노니는 것은 참으로 자유롭고 유유자적한 일이었으니, 이 또한 장생불사의 참된 즐거움이라 할 만했다.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와, 원숭이 무리가 소나무 아래 모여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원숭이들이 말했다. “오공, 자네는 대체 전생에 어떤 복을 쌓았기에 그런 인연을 만났나? 요전번에 스승님께서 귓속말로 삼재를 피하고 변화를 부리는 법을 전해주셨는데, 다 익혔는가?”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들께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도 있지만, 저 또한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들였으니 그 기술들을 다 익혔지요.” 원숭이들이 말했다. “이 좋은 기회에 한번 실력을 보여주게. 우리도 구경 좀 하자고.”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기운을 북돋우며 숨씨를 뿜내기 시작했다. “자, 형님들! 문제를 하나 내 보십시오. 제가 무엇으로 변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숭이들이 말했다. “그럼 소나무로 한번 변해 보게나.” 손오공은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고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한 번 흔들어 훌쩍 소나무로 변했다. 참으로 대단한 모습이었다.

시로 이르되, 사시사철 푸른 안개를 머금고 솟아올라 구름을 뚫고 올라간 늠름하고 곧은 자태로다. 요술 부리는 원숭이의 모습은 티끌만 톨도 없고 서리와 눈을 견뎌내는 깨끗한 가지뿐이로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박수를 치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다들 “장하다, 장해! 정말 대단한 원숭이로구나!”라며 떠들썩하게 환호성

을 지르는 바람에, 그 소란이 조사에게까지 들리고 말았다. 조사가 급히 지팡이를 짚고 문밖으로 나와 물었다.

"누가 이토록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냐?"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가짐을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손오공도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무리 사이에 섞여서 말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도법을 논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조사가 호통을 쳤다.

"너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들썩하니, 도를 닦는 사람의 모습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구나! 수행하는 자는 입을 열면 신기(神氣)가 흩어지고, 혀를 놀리면 시비가 생기는 법인데, 어찌 여기서 이렇게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운단 말이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스승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오공이 변화술로 재주를 부렸습니다. 소나무로 변하라고 시켰더니 정말로 소나무로 변하길래, 저희가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다가 그만 스승님을 놀라게 해 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사가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물러가거라." 그러고는 손오공을 불러 꾸짖었다. "오공아, 이리 오너라! 대체 무슨 심보로 소나무로 변신

해서 재물을 피우는 것이냐? 이런 기술을 남들 앞에서 뽐내며 자랑하고 싶으냐? 만약 네가 남에게 재주가 있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면, 남이 네 재주를 보고 반드시 너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릴 것이다. 만약 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시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니 네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디 스승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사가 말했다.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떠나라는 말이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펄펄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조사가 대답했다.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 일이다."

손오공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대답했다. "저는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에서 왔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야 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

손오공은 잘못을 빌며 스승에게 간곡히 말했다. "제가 집을 떠나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동료와 자손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스승님의 깊은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으니 차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은혜라니 무슨 그런 소리냐. 그저 네가 화를 일으키지 않고, 나에게까지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손오공은 어쩔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그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일행과 헤어졌다.

조사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떠나면 필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사고를 치고 악행을 저지르든, 절대로 내 제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한 마디라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린다면, 내가 바로 알아채고는 이 원숭이 놈의 가족을 벗기고 뼈를 깎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네 혼백을 아홉 층의 깊은 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테니 그리 알아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에 대해서는 결코 한 마디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익힌 것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손오공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곧바로 몸을 돌렸다. 그는 주문을 외우며 손가락을 튕겨 기운을 쏘아 올리더니, 근두운을 타고 단숨에 동승 신주를 향해 날아갔다. 한 시진도 채 지나지 않아 화과산 수렴동이 눈앞에 나타났다. 미후왕은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며 나직이 읊조렸다.

"떠날 때는 범인과 다름없는 무거운 몸이었으나, 도를 얻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구나. 세상에 뜻을 세우려는 이 아무도 없으나, 뜻을 세워 도를 닦으면 신비로운 이치가 스스로 밝혀지리라. 그때는 바다를 건너는 일이 이토록 어려웠건만, 오늘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수월하구나. 스승님의 간곡한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이토록 순식간에 동쪽 바다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손오공은 근두운을 눌러 타고 화과산까지 날아가 길을 찾아 내려갔다. 그때 문득 학의 울음소리와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학의 울음은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원숭이의 울음은 슬프고 애처로워 보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손오공이 입을 열어 크게 외쳤다.

"애들아, 내가 왔다!"

그러자 절벽 아래 돌계단과 꽃풀 사이, 나무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원숭이 수천수만 마리가 튀어나와 미후왕을 에워싸고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대왕님, 참 마음도 편하십니다그려! 어찌 이리 오랫동안 안 오셨습니까? 저희를 이곳에 버려두셔서, 저희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대왕님을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요괴가 나타나 저희를 괴롭히고, 저희의 수렴동을 강제로 차지하려 합니다. 저희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놈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사이 그놈에게 집안 살림살이까지 빼앗기고 어린 원숭이들도 여럿 잡혀가서, 저희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집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왕님이 오셨지만, 만약 대왕님이 한 해만 더 늦게 오셨더라면 저희는 산과 동굴까지 통째로 남의 손에 넘겨줄 뻔했습니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무슨 요괴가 감히 그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그놈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 보아라. 내가 가서 반드시 복수해주마."

원숭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대왕님께 아뢰입니다. 그놈은 스스로 혼세마왕이라 칭하며, 여기서 곧장 북쪽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여기서 그놈이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원숭이들이 말했다.

"그놈은 올 때는 구름처럼 오고 갈 때는 안개처럼 가며, 때로는 바람과 비로, 때로는 번개와 천둥으로 나타나니 저희로서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놀고 있거라.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가겠다."

미후왕은 몸을 훌쩍 날려 높이 뛰어올랐다. 그는 구름을 타고 쉽 없이 달려 북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높은 산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산의 모습은 이러했다.

북끝처럼 솟은 봉우리는 구름 뚫고 하늘에 닿아 있고, 굽이치는 계곡은 깊고 깊어 땅속 문까지 이어진 듯했다. 양쪽 절벽에는 온갖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곳곳의 소나무와 대나무들은 푸른 빛을 겨루며 서 있었다. 왼쪽에는 용이 온순하게 누워 있고, 오른쪽에는 호랑이가 평온하게 엎드려 있었다. 철로 만든 소가 밭을 가는 듯한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며, 금전이 씨앗처럼 맺히는 듯한 환상마저

들었다. 그윽한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 붉은 봉황은 아침 해를 향해 서 있었다. 반짝이는 돌과 맑디맑은 물결이 어우러진 그 모습은 기묘하고도 으스스하여 참으로 범상치 않았다.

세상에 명산이 수없이 많고 꽃이 피고 지는 일이 끊임없었지만, 어찌 이 풍경처럼 영원히 변치 않으랴. 여덟 절기와 사계절이 흘러도 산은 그대로 멈춰 있는 듯했다. 참으로 삼계의 근원이 되는 산이며, 오행의 기운을 길러내는 수장동을 품은 산이라 할 만했다.

미후왕이 말없이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곧장 산을 내려가 그곳을 찾아 나섰다. 알고 보니 가파른 절벽 앞은 수장동이었다. 동굴 입구에서는 작은 요괴 몇 마리가 춤을 추고 있다가, 손오공을 보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외쳤다. "게 서라! 너희 입을 빌려 내 마음속 말을 전하게 하겠다. 나는 정남쪽 화과산 수렴동의 주인이다. 너희 동네의 혼세마왕인지 뭔지 하는 놈이 자꾸 우리 원숭이들을 괴롭히기에, 내가 직접 와서 놈과 끝장을 보려 한다!"

그 요괴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혼세마왕이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요괴가 대답했다. "동굴 밖에 화과산 수렴동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원숭이 머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왕님이 자꾸 자기 자식과 손주들을 괴롭힌다며, 직접 대면해서 따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혼세마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원숭이 놈들 사이에서 자기네 대왕이 출가하여 수행하러 떠났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 돌아온

모양이구나. 그놈 차림새는 어떠하더냐? 무기라도 들고 있던가?” 요괴가 말했다. “무기는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맨머리에 붉은 옷을 입고 노란 띠를 두르고 있으며, 발에는 검은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도사나 신선 같지도 않은데, 맨손으로 문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혼세마왕이 그 말을 듣고 명령했다. “내 갑옷과 병기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요괴는 즉시 병기를 챙겨 나왔다.

그 마왕은 갑옷을 입고 칼을 손에 쥔 채 요괴 무리를 이끌고 문밖으로 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수렴동의 주인인가?"

손오공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그 마왕의 모습은 이러했다.

머리에는 검은 금으로 만든 투구를 써서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고, 몸에는 검은 비단 도포를 걸쳐 바람에 휘날리는데, 아래로는 검은 철갑옷을 입고 가죽 끈을 단단히 조였으며, 발에는 무늬가 있는 장화를 신으니 그 기세가 장수와 같구나. 허리는 열 아름이나 될 만큼 굵고, 키는 삼 장(三丈)이나 되었으며, 손에 든 칼은 날이 서슬 퍼렇게 빛나니, 혼세마왕이라 불릴 만한 당당하고 흉악한 모습이라.

미후왕이 호통을 쳤다. "이 요망한 마왕 놈아, 눈이 그렇게 커서 이 손오공이 안 보이느냐!"

마왕은 그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네 키는 네 자도 안 되고 나는 서른도 안 된 것 같은데, 손에 무기 하나 없이 어찌 이리 겁도 없이 나를 찾아와 위아래를 따지려 드느냐?"

손오공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눈먼 마왕 놈아!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모양인데, 몸집을 키우는 건 어렵지도 않다. 무기가 없다고? 내 양손은 저 하늘의 달이라도 낚아챌 수 있다! 겁내지 마라,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니!"

손오공은 단숨에 경충 뛰어올라 마왕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마왕이 손을 뻗어 막으며 말했다. "너는 이렇게 단신인데 나는 이렇게 키가 크구나. 네가 주먹을 쓰겠다면 나는 칼을 써야겠다. 칼을 휘둘러 너를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테니, 잠시 칼을 내려놓고 네 주먹 실력을 한번 보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마왕이 방어 태세를 풀고 달려들자, 손오공도 파고들며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으며 거칠게 충돌했다. 마왕의 권법은 동작이 크고 화려했지만 빈틈이 많았고, 손오공의 권법은 동작이 짧고 촘촘하여 매우 견고했다. 결국 손오공이 마왕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급소를 들이받자, 마왕은 몇 차례 휘청거리더니 크게 타격을 입고 뒤로 밀려났다.

마왕은 몸을 피하더니 판자처럼 커다란 강철도를 집어 들고 손오공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손오공이 급히 몸을 뒤로 빼자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마왕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자, 손오공은 재빨리 신법을 펼치며 털 한 움큼을 뽑아 입에 넣고 씹어 뱉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손오공의 몸에서 수백 마리의 작은 원숭이들이 나타나 마왕의 주위를 에워싸며 물려들었다.

본래 신선의 몸을 얻으면 신통력이 뛰어나 변화무쌍해지는 법이다. 이 미후왕이 도를 깨우친 뒤로는 몸에 난 팔만 사천 개의 털 하나하나가 모두 변화할 수 있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흉내 낼 수 있었다. 그 작은 원숭이들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혔다. 칼이 날아와도 맞지 않고 창이 찢러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원숭이들이 앞뒤로 쫓고 쫓고 뛰어오르며 위로 파고들더니, 마왕의 주위를 에워싸고 껴안고 잡아당기고, 가랑이 사이를 파고들고 다리를 붙잡고, 발로 차고 털을 뽑고 눈을 핏대하고 코를 비틀며 정신없이 몰아붙여 마왕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그사이 손오공이 달려가 마왕의 칼을 빼앗더니, 작은 원숭이들을 헤치고 들어가 마왕의 정수리를 단번에 내리쳐 두 동강을 내버렸다. 그러고는 무리를 이끌고 동굴 안으로 쳐들어 가 크고 작은 요괴들을 모조리 소탕했다. 손오공이 털을 한 번 휘두르자 흩어졌던 털들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숭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마왕이 수렴동에서 잡아갔던 작은 원숭이들이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서른에서 쉰 명쯤 되는 원숭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대왕님께서 신선이 되기 위해 떠나신 뒤, 지난 2년 동안 저 요괴 놈들에게 시달리다 모두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저놈들이 가져간 것들은 다 우

리 동굴의 살림살이들입니다. 돌 동이와 돌 사발까지 저놈들이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 살림살이들이라면 모두 밖으로 내놓아라!"

손오공은 즉시 동굴에 불을 질러 수장동을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태워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고는 무리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나를 따라 돌아가자."

원숭이들이 말했다. "대왕님, 저희가 이곳에 올 때는 그저 귀 옆으로 바람 소리만 뽕뽕 들리더니 몸이 등실 떠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길을 전혀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이 부린 술법일 뿐인데 그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나도 이제 도를 깨우쳐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으니 그런 법쯤은 나도 할 줄 안다. 그러니 모두 눈을 감아라. 겁낼 것 없다."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자 거센 바람이 일더니 구름이 땅으로 내려앉았다. 손오공이 "얘들아, 눈을 떠라!" 하고 외치자, 원숭이들이 땅을 딛고 일어서서 고향임을 확인하고는 모두 기뻐하며 수렴동 입구로 달려갔다. 동굴에 있던 원숭이들이 일제히 몰려와 손오공을 에워싸고 들어갔으며, 차례를 지켜 손오공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원숭이들은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손오공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고, 요괴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해준 경위에 대해 물었다. 손오공이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자, 원숭이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으며 말했다. "대왕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뜻밖에 이런 놀라운 재주를 배우셨습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내가 너희와 헤어져 물결을 따라 동양의 큰 바다를 건너고, 서우하주를 지나 남섬부주까지 갔단다. 그곳에서 사람 처럼 생겼으되 사람 같지 않은 이들을 따라 사람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구름처럼 떠돌며 팔구 년 넘게 유람했지만 도는 얻지 못했지. 그러다 다시 서양의 큰 바다를 건너 서우하주에 이르러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다행히 한 조사님을 만나 하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공덕과 죽지 않고 장생하는 큰 법문을 전수받았단다."

원숭이들은 "정말 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운입니다!"라며 축하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 이제 성씨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숭이들이 물었다. "대왕님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이제 손 씨이며, 법명은 오공이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며 말했다. "대왕님이 손 씨라면, 우리도 모두 둘째 손, 셋째 손, 막내 손, 꼬마 손... 온 가족이 손 씨요, 온 나라가 손 씨요, 온 굴이 손 씨가 되었군요!" 원숭이들은 너도나도 손오공에게 아첨하며 떠들썩하게 굴었고, 커다란 대접과 작은 사발에 코코넛 술과 포도주, 신선한 꽃과 과일을 가득 차려내니 그야말로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잔치였다.

시로 이르되, 성씨 하나 통달하니 몸은 본래 자리로 돌아왔고, 신선의 명부로 옮겨가길 오직 기다릴 뿐이로다.

결국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 세계에서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회 — 사해의 천산이 모두 엎드려 복 종하고, 구유의 열 부류가 모두 이름에서 지워지다

四海千山皆拱伏 九幽十類盡除名

한편, 미후왕은 큰 칼 한 자루를 빼앗아 들고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며 어린 원숭이들에게 대나무를 베어 표적을 만들게 하고, 나무를 깎아 칼을 만들게 했다. 또한 깃발을 다루고 나팔을 부는 법을 가르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법, 진을 치고 야영하는 법 등을 익히며 한동안 즐겁게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긴 손오공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는 자칫 장난이 진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왕을 놀라게 하거나, 짐승이나 새들의 왕이 우리를 반역자로 몰아 군대를 일으켜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들고 있는 것은 고작 대나무 막대기와 나무 칼뿐이니, 어떻게 적을

상대하겠느냐? 반드시 날카로운 칼과 창이 있어야 한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대답했다. "대왕님의 안목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하지만 마땅히 구할 길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적기마후 두 마리와 통배원후 두 마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이 앞장서며 말했다. "대왕님, 날카로운 무기를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찌 쉬운 일이냐?"

네 마리의 늙은 원숭이가 대답했다. "이 산에서 동쪽으로 이백 리쯤 가면 물길이 나오는데, 그 너머가 바로 오래국의 경계입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다스리는 성이 있고, 성 안에는 군사와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으니 금, 은, 구리, 철을 다루는 장인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왕님께서 그곳에 가서서 무기를 사거나 만들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무예를 익히고 산을 지킬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태평성대를 오래도록 유지할 비결이 될 것입니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즐겁게 놀고 있거라. 내가 얼른 다녀오마!"

용맹한 미후왕은 근두운을 타고 순식간에 이백 리의 바다를 건너갔다. 저 멀리 성곽이 보이는데, 거리는 육대로 나뉘어 있고 시장은 삼로로 북적이며, 수만 가구의 대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에 분명 쓸 만한 병기가 있을 테니 가서 몇 점 사 오면 되겠지만, 차라리 신통력을 부려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훨씬 낫겠어.'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주문을 외우며 기운을 모으더니, 동남쪽 땅의 기운을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훅' 하고 내뿜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센 광풍이 몰아치며 모래와 돌덩이가 사방으로 휘날리니, 그 기세가 실로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포연 같은 구름이 일어나 하늘과 땅을 뒤흔드니, 검은 안개가 자욱하여 대지가 어둑해졌구나. 강과 바다에는 파도가 뒤집혀 물고기와 게들이 겁에 질리고, 산과 숲에는 나무가 꺾여 호랑이와 이리가 달아나네. 장사꾼도 나그네도 보이지 않아 온갖 거래가 끊기고,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도 자취를 감추었구나. 궁궐의 임금은 내전으로 물러나고, 문무백관은 관청을 돌며 허둥지둥하네. 천년의 보좌마저 뒤흔들고, 높은 누각의 봉황 기둥마저 흔들리는구나.

광풍이 몰아치자 오래국의 왕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세 곳의 시장과 여섯 거리의 백성들은 겁에 질려 문을 닫아걸고 집 안에 숨어버려 감히 밖으로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곧장 궁궐 안으로 난입하여 병기창과 무기고를 찾아 뒤졌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칼, 창, 검, 극, 도끼, 큰 도끼, 낫, 쇠갈퀴, 채찍, 삼지창, 곤봉, 활, 석궁, 갈퀴, 창 등 온갖 무기가 셀 수 없이 갖춰져 있었다.

손오공은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 많은 걸 나 혼자 다 가져갈 수 있을까? 분신술을 써서 옮겨야겠다."

그러고는 곧장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씹어 뺀 뒤, 주문을 외우며 크게 소리쳤다. "변해라!"

그러자 수천수백 마리의 작은 원숭이들이 나타나 정신없이 무기를 옮기고 약탈하기 시작했다. 힘이 센 원숭이는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들었고, 힘이 약한 원숭이는 두세 개씩 들며 무기고 안의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싹쓸이했다. 손오공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올라가 신통력을 부려 광풍을 일으킨 뒤, 작은 원숭이들을 거느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한편, 화과산의 크고 작은 원숭이들이 동굴 문밖에서 한창 장난을 치며 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허공에 형체도 없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수많은 원숭이 정령들이 나타났다. 그 기세에 놀린 원숭이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잠시 후, 미후왕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안개를 거두어들였다. 그는 몸을 한 번 크게 떨며 털을 거두고, 가져온 병기들을 산 앞에 무더기로 쌓아 놓은 뒤 외쳤다.

"얘들아, 모두 와서 병기를 받아 가져라!"

원숭이들이 살펴보니, 손오공이 평평한 땅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원숭이들은 모두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손오공은

앞서 광풍을 일으켜 병기들을 가져온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들려 주었다. 원숭이들은 고맙다며 인사를 올린 뒤, 너도나도 칼과 검을 차지하러 달려들고 도끼와 창을 차지하러 다투었으며, 활과 쇠뇌를 끌어 당기며 하루 종일 떠들썩하게 병기를 휘둘러댔다.

다음 날에도 진영을 갖추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손오공은 원숭이 무리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가 무려 사만 칠천여 마리에 달했다. 이 소식에 산 전체의 괴수들이 깜짝 놀라 몰려들었다. 늑대, 벌레, 호랑이, 표범, 곰, 사슴, 노루, 여우, 너구리, 오소리, 사자, 코끼리, 사자상, 유인원, 곰, 사슴, 멧돼지, 들소, 영양, 코뿔소, 개, 사나운 개 등 온갖 요괴 왕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이들은 모두 일흔두 개의 동굴을 차지하고 손오공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들며 경배했다.

요괴들은 매년 공물을 바치고 사계절마다 정해진 시간에 문안 인사를 올렸다. 어떤 이들은 손오공의 곁에서 군사 훈련을 도왔고, 어떤 이들은 절기마다 식량을 조달했다. 이들이 질서 정연하게 모여 드는 바람에 화과산은 마치 철통같은 금성(金城)처럼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각지의 요괴 왕들은 금복(징과 북)과 오색 깃발, 갑옷 등을 끊임없이 가져왔으며, 날마다 북적거리는 가운데 무예를 익히고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미후왕이 한창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활과 화살에 능숙하고 각종 병기에도 정통한데, 내가 가진 이 칼은 도무지 쓸모가 없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네 마리의 늙은 원숭이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신성한 존재이시니, 세상의 평범한 병기들은 대왕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물속에서도 다닐 수 있으십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도를 깨우친 뒤로 일흔두 가지의 지살변화(땅의 기운을 다스리는神通한 변화)를 부릴 수 있게 되었고, 근두운을 타고 날아다니는 커다란神通력도 갖추었다. 몸을 숨기는 일은 물론이고, 법술을 부려 다스리는 일에도 능하다. 하늘로 올라갈 길도 있고 땅으로 들어갈 문도 있으니, 해와 달 위를 걸어도 그림자가 남지 않고 금석을 뚫고 지나가도 막힘이 없다.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네 원숭이가 말했다. "대왕께서 그토록神通한 능력을 갖추셨다면, 이곳 철판교 아래로 물길이 동해 용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약 내려가신다면, 용왕을 찾아가 마음에 쏙 드는 병기를 달라고 청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곧 다녀오마."

좋은 원숭이 왕이 다리 끝으로 뛰어오르더니, 물을 가르며 주문을 외우며 파도 속으로 쏙 들어갔다. 물길이 좌우로 갈라지며 손오공은 곧장 동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한참 나아가던 중, 갑자기 바다를 순찰하던 야차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물을 밀어내며 오시는 분은 대체 어떤 신령님이십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가서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화과산의 천생성인 손오공이다. 네 용왕님의 이웃인데 어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야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수정궁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밖에서 화과산의 천생성인 손오공이라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대왕님의 이웃이라 칭하며 곧 궁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동해 용왕 오광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용의 자손들과 손자들, 그리고 새우 병사와 게 장수들을 거느리고 궁 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상선님,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궁 안에서 마주 앉아 차를 대접한 뒤, 용왕이 물었다.

"상선께서는 언제 도를 깨우치셨으며, 어떤 신선술을 전수받으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태어난 뒤로 출가하여 수행을 해왔기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불멸의 몸을 얻었소. 최근에는 자손들을 가르치고 산동을 지키고 있는데, 마땅히 쓸 병기가 하나 없구려. 현명한 이웃인 대왕께서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궁에서 즐기시다 보면 분명 남는 신기한 병기가 있을 터이니, 특별히 하나 얻고자 찾아왔소."

용왕은 그 말을 듣고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즉시 도사에게 명령하여 커다란 대도 한 자루를 꺼내 바치게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노손은 칼을 쓸 줄 모르니, 다른 것을 하나 더 주시오."

용왕은 다시 태위에게 명령하여 힘센 장사들을 데리고 오게 해 아홉 갈래로 갈라진 창을 들고 나오게 했다. 손오공은 펄쩍 뛰어내려 창을 받아 들고는 한참을 휘둘러 보더니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볍군, 너무 가벼워. 그리고 손에 맞지도 않아. 다시 하나 더 주시오."

용왕이 웃으며 말했다.

"상선님, 못 보셨습니까? 이 창은 무게가 삼천육백 근이나 됩니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손에 맞지 않는다니까, 손에 맞지 않아."

용왕은 속으로 겁이 나, 다시 제독과 총병을 시켜 화려한 창을 들고 나오게 했다. 그 창은 무게가 칠천이백 근에 달했다. 손오공은 그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손에 받아 들고는, 몇 번 동작을 취하며 솜씨를 부리더니 가운데에 꽂으며 말했다.

"이것도 여전히 가볍군, 가벼워, 너무 가벼워."

늙은 용왕은 겁이 나서 외쳤다.

"상선님, 우리 궁에는 이 창이 가장 무거운 물건입니다. 더 이상의 병기는 없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옛말에 '용왕에게 보물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소! 다시 한번 찾아보시오. 만약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대가를 치르리다."

용왕이 말했다.

"정말로 더는 없습니다."

한편, 곁에서 지켜보던 용파와 용녀가 말했다. "대왕님, 저 성스러운 분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바닷속 창고에 보관된, 은하수(하늘의 강) 바닥을 안정시키는 그 신령한 철(신진철)이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사이 그곳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상서로운 기운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니, 혹시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되어 저 성자를 만날 운명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 용왕이 말했다. "그것은 옛날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강과 바다의 깊이를 재어 정하던 측정 도구로, 신령한 철 한 덩어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쓴단 말이냐?"

용파가 대답했다. "그것을 쓰든 안 쓰든 상관 마시고, 일단 그분께 드려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개조하시든, 궁궐 문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늙은 용왕은 그 말에 따라 손오공에게 사정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용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옮길 수도 없소. 신선께서 직접 가서서 보셔야 할 것이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게 어디에 있소? 당신이 나를 안내하시오."

용왕이 해저 창고 안쪽으로 그를 안내하니, 갑자기 만 갈래의 금빛이 번쩍였다. 용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오공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 한 번 만져보니, 그것은 한 말 정도 굵기에 길이가 2장(약 6m)이 넘는 커다란 쇠기둥이었다. 손오공이 두 손으로 힘껏 훑어보며 말했다. "너무 굵고 길어서 쓸 수가 없겠구나. 좀 더 짧고 가늘어야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물은 몇 자가 줄어들고 둘레도 한 바퀴가량 가늘어졌다. 손오공이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여기서 좀 더 가늘면 더 좋겠는데." 그러자 보물이 정말로 몇 치나 더 가늘어졌다.

손오공은 매우 기뻐하며 보물을 꺼내 살펴보니, 양쪽 끝은 금빛 테가 둘러져 있고 가운데는 검은 쇠로 이루어져 있었다. 금빛 테 바로 옆에는 글자가 한 줄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의금고봉, 무게 일만 삼천오백 근.'

손오공은 속으로 '이 보물은 분명 내 마음에 꼭 들겠구나'라며 기뻐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보물을 만지작거리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더 짧고 가늘면 참 좋으련만." 다시 보물을 밖으로 꺼내 보니, 길이는 2장 정도에 굵기는 사발 하나 정도였다.

손오공이 신통력을 부려 이리저리 휘저으며 수정궁 안을 쭉대밭으로 만들자, 동해 용왕은 간담이 서늘해져 벌벌 떨고 어린 용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렸다. 거북과 자라, 악어들은 목을 움츠려 숨고 물고기와 새우, 자라와 게들은 머리를 움츠려 숨었다. 손오공은 보물을 손에 쥐고 수정궁 전각 위에 떡하니 앉아 용왕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두터운 호의에 감사하요."

용왕이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 쇠뿔치가 쓰기는 참 좋지만,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소."

용왕이 물었다. "상선께서는 또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애초에 이 쇠뿔치가 없었다면 차라리 그만이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손에는 이걸 들고 있으면서 몸에 걸칠 옷 한 벌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만약 이곳에 갑옷과 투구 같은 무구가 있다면, 차라리 한 벌 통째로 내게 주시오. 그러면 한꺼번에 보답하겠소."

용왕이 난처해하며 말했다. "그것까지는 도저히 없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한 손님이 두 주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법이요. 만약 없다면 나도 결코 이 문을 나서지 않을 것이요."

용왕이 달래며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바다로 한 번 더 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세 집을 돌아다니느니 한 집에 머무는 게 낫지 않겠소? 부디 꼭 한 벌을 구해주시요."

용왕이 말했다. "정말로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반드시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로 없단 말이요? 그렇다면 이 쇠뿔치로 그대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야겠군!"

용왕이 겁에 질려 외쳤다. "상선, 제발 손을 쓰지 마십시오!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 동생들에게 가서 있는지 얼른 확인해 보고 반드시 한 벌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대 동생들은 어디 있소?"

용왕이 대답했다. "제 동생들은 남해 용왕 오흠, 북해 용왕 오순, 서해 용왕 오윤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안 가겠소, 안 가. 속담에 '외상으로 받을 셋이 눈앞의 둘만 못하다(睚三不敵見二)'는 말도 있지 않소. 그저 그대가 형편에 맞춰 적당히 한 벌만 내어주면 될 것이요."

늙은 용왕이 말했다. "상선께서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철북 하나와 금종 하나가 있으니, 급한 일이 생기면 북을 치고 종을 울리십시오. 그러면 제 동생들이 순식간에 달려올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북을 치고 종을 울리시오!"

그러자 즉시 악어 장수가 종을 치러 달려가고, 자라 대장이 북을 두드리러 나섰다.

잠시 후, 종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과연 삼해 용왕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밖에서 모두 모였다. 오흠이 말했다. "형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겨서 종을 치고 북을 울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룡이 대답했다. "아우님, 말하자면 길다네. 화과산인가 하는 곳에 천생 성인이라는 놈이 나타나더니, 아침 일찍부터 나를 이웃사촌이라 부르며 찾아왔지 뭐가. 그러더니 병기를 하나 달라고 하는데, 강철 삼지창을 주니 작다고 하고, 그림 창을 주니 가볍다고 투덜대더군. 심지어 은하수 밑바닥에 있는 신령한 철덩어리를 직접 가져와서는, 몇 가지 재주를 부려 제멋대로 휘두르지 않겠나. 이제는 궁궐에 앉아서 또 무슨 갑옷과 무구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 내게는 가진 게 없어 종과 북을 울려 아우님들을 청한 것이라네. 자네들이 가진 무구라도 좀 내어주어 저놈을 얼른 돌려보내 버리세."

이 말을 들은 오흠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병사를 일으켜 저놈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노룡이 말했다. "잡기는커녕 꿈도 꾸지 말게. 그 철덩어리는 조금만 휘둘러도 죽고, 조금만 부딪혀도 목숨을 앗아간다네. 살짝만 스쳐도 살점이 터지고, 살짝

만 굵혀도 뼈가 드러날 정도란 말일세.” 서해 용왕 오운이 거들었다. “둘째 형님, 저놈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무구 한 세트만 챙겨주어 얼른 돌려보낸 뒤에, 상소를 올려 하늘에 보고하면 하늘에서 알아서 벌을 내릴 것입니다.” 북해 용왕 오순이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마침 제게 연꽃 줄기로 만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신발이 한 켤레 있습니다.” 서해 용왕 오운이 말했다. “저는 황금으로 만든 사슬 갑옷이 한 벌 있습니다.” 남해 용왕 오흠이 말했다. “제게는 봉황의 날개를 닮은 자금관이 하나 있습니다.”

노룡은 크게 기뻐하며 용왕들을 수정궁 안으로 안내하여 물건들을 받았다. 손오공은 금관과 금갑, 그리고 구름 신발까지 모두 갖추어 입고는 여의금고봉을 휘두르며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고는 용왕들을 향해 외쳤다. “시끄럽다, 시끄러워!” 사해 용왕들은 몹시 분통해하며, 어떻게 상소를 올려 보고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 원숭이 왕을 보라. 물길을 가르고 철판교 머리로 곧장 뛰어 올라 오는데, 네 마리의 노후가 원숭이 떼를 거느리고 다리 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손오공이 파도 밖으로 뛰어오르는데, 몸에는 물기 하나 없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다리 위로 걸어 올라왔다. 이를 본 원숭이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쳤다. "대왕님, 정말 찬란하고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손오공은 얼굴에 웃음꽃을 띤 채 보좌에 높이 올라앉아, 철봉을 가운데에 세워 두었다. 원숭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들 그 보물을 만져보려 달려들었으나, 마치 잠자리가 철나무를 흔드는 격이라 조금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원숭이들은 저마다 손가락을 깨물고 허

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고, 대왕님! 어쩔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져오셨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손을 펴서 한 번에 덩석 집어 들더니, 원숭이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물건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는 법이다. 이 보물은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올해 들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 용왕은 그저 검은 쇠덩어리인 줄로만 알고 '은하수 바닥을 누르는 신령한 보물(천하진저신진)'이라 불렀다더구나. 그놈들이 아무리 들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길래, 나더러 직접 가서 가져오라고 하기에 가져왔다. 가져올 때는 길이가 2장(약 6m)이 넘고 굵기는 한 말(약 18cm)이나 되었지. 내가 한 번 덩석 잡으니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자 곧 훨씬 작아지더구나. 그래서 좀 더 작게 하라고 했더니 또 줄어들고, 다시 더 작게 하라고 하니 또 줄어들더구나. 급히 햇빛에 비추어 보니 위쪽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여의금고봉, 무게 일만 삼천오백 근'이라고 되어 있었다. 다들 물려서 있거라, 내가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꿔 볼 테니."

손오공은 보물을 손안에서 휘두르며 외쳤다. "작아져라!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보물은 즉시 자수 바늘처럼 작아져서 귤속에 넣어 숨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대왕님,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손오공이 정말로 귀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외쳤다.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그러자 보물은 다시 한 말 굵기에 길이 2장에 달할 만큼 커졌다. 기분이 좋아진 손오공은 다리 위로 뛰어올라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보물을 손에 쥐고 법천상지(法天象地, 하늘과 땅만

큼 몸을 크게 키우는 신통력)를 부렸다. 허리를 굽히며 크게 외쳤다.
"길어져라!"

순식간에 손오공의 몸은 만 장 높이로 커졌는데, 머리는 태산 같고 허리는 험준한 산맥 같았으며, 눈은 번개처럼 빛나고 입은 커다란 핏대야 같았으며, 이는 마치 칼과 창처럼 날카로웠다. 손에 든 봉은 위로는 삼십삼천(천계의 가장 높은 곳)에 닿고, 아래로는 십팔층 지옥까지 이르렀다. 이 광경을 본 호랑이, 표범, 이리, 늑대와 산속의 온갖 괴물, 그리고 일흔두 동굴의 요괴 왕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고,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였다.

잠시 후 손오공이 신통력을 거두자 보물은 다시 자수 바늘처럼 작아져 귤속에 숨겨졌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갔다. 이에 놀란 각 동굴의 요괴 왕들이 모두 찾아와 축하를 올렸다.

이때 깃발과 북을 크게 울리고 징을 치며 잔치를 벌였다.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을 상 가득 차려내고, 코코넛 즙과 포도주를 잔에 가득 채워 원숭이 무리와 함께 오랫동안 흥겨운 연회를 즐긴 뒤, 다시 예전처럼 무예를 가르치고 익히게 했다. 미후왕은 네 마리의 노후를 건장한 장수로 임명하였고, 적기마후 두 마리는 '마류 이원수'로, 통배원후 두 마리는 '봉바 이장군'으로 불렸다. 진영을 치고 막사를 세우는 일부터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모든 일을 이 네 명의 장수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손오공은 마음을 놓은 뒤, 날마다 구름과 안개를 타고 다니며 사해를 유람하고 천하의 명산을 누비며 즐겼다. 무예를 닦으며 영웅들을 찾

아가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신통력을 부리며 현명한 벗들을 사귀기도 했다. 이때 우마왕, 교마왕, 봉마왕, 사타왕, 미후왕, 묘후왕까지, 손오공 자신을 포함하여 일곱 명의 의형제를 사귀게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무예를 논하고 문장을 나누며, 술잔을 주고받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아침에 떠나 저녁에 돌아오는 나날 속에서, 즐겁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만 리나 되는 먼 길도 마치 집 앞마당을 거니는 것처럼 가벼웠으니, 고개를 까닥하면 삼천 리를 지나고 허리를 한 번 비틀면 팔백 리를 훌쩍 넘나드는 형국이었다.

어느 날, 손오공은 수렴동의 네 장수에게 명령하여 잔치를 열게 했다. 여섯 명의 의형제를 초대하여 소를 잡고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으며, 온갖 요괴들에게 춤과 노래를 추게 하니 모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손오공은 의형제들을 배웅한 뒤, 부하인 대소두목들에게도 상을 내린 후 철판교 옆 소나무 그늘 아래에 기대 누워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네 장수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곁을 지켰으나,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창 잠이 든 미후왕의 꿈속에서, 두 사람이 '손오공'이라는 세 글자가 적힌 문서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손오공에게 밧줄을 씌우더니, 그의 혼을 낚아채 비틀거리며 어느 성 근처로 끌고 갔다.

손오공이 서서히 술이 깨며 고개를 들어 보니, 성 위에 '유명계'라고 적힌 커다란 철판이 걸려 있었다. 미후왕은 깜짝 놀라 깨달으며 말했다. "유명계는 염라대왕이 사는 곳인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러자 두 사람이 말했다. "너의 이승 수명(陽壽, 양수)이 다했기에, 우리가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외쳤다. "이놈들! 나는 이미 삼계의 경계를 넘어섰고 오행의 굴레에도 속하지 않아 더는 저승의 관할 아래 있지 않거늘, 어찌 감히 나를 홀려 데려가려 하느냐!"

하지만 죽은 자를 잡아가는 저승사자들은 손오공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억지로 그를 끌고 가려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손오공이 귀에서 보물을 꺼내 한 번 흔드니, 그 크기가 그릇만큼 굵어졌다. 손오공이 손을 가볍게 들어 휘두르자 저승사자 두 명은 순식간에 고기 반죽이 되어 버렸다. 손오공은 몸을 묶었던 밧줄을 풀어 던져버리고는,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성 안으로 돌진했다.

손오공의 기세에 놀려 우두귀는 이리저리 숨고 마면귀는 저리저리 도망치기에 바빴다. 겁에 질린 귀신 졸개들은 삼라전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밖에 털이 숭숭 난 뇌공 같은 놈이 쳐들어왔습니다!"

십대 명왕들이 당황하여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달려와 보니, 손오공의 모습이 워낙 흉악하여 겁을 먹고는 서둘러 줄을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상선이시여, 함자를 남겨 주십시오! 상선이시여, 함자를 남겨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어찌 사람을 보내 나를 잡아 가려 하느냐?"

열 명의 왕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람을 잘못 보낸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나는 본래 화과산 수렴동에서 태어난 성인, 손오공이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관직을 맡고 있느냐?”

열 명의 왕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저희는 저승의 천자이신 십대 명왕입니다.”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어서 이름을 대라, 매를 맞기 싫으면!”

열 명의 왕이 대답했다. “저희는 진광왕, 초강왕, 송제왕, 오관왕, 염라왕, 평등왕, 태산왕, 도시왕, 변성왕, 전륜왕입니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너희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영험한 기운을 받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 텐데, 어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나 손오공은 도를 닦아 수선을 하여 하늘과 수명이 같고, 삼계를 초월하여 오행의 굴레조차 벗어난 몸이다. 그런데 어찌 사람을 보내 나를 붙잡으려 한단 말이나?”

열 명의 왕이 달래며 말했다. “상선이시여, 노여움을 푸십시오. 천하에는 이름과 성이 같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 아마도 사람을 잘못 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오공이 외쳤다. “헛소리 마라! 헛소리! 예부터 ‘관리나 하인은 실수해도, 찾아온 사람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어서 생사부를 가져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라!”

그 말을 들은 명왕들은 즉시 생사부를 들고 전각 위로 올라가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삼라전으로 올라가, 정중앙 남쪽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열 명의 명왕은 즉시 서류를 관리하는 판관에게 명하여 장부를 꺼내 조사하게 했다. 판관은 감히 꾸물거리지 못하고,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서류 대여섯 권과 열 종류의 장부를 받들어 왔다.

판관이 하나하나 살펴보니, 나충(裸蟲, 털 없는 부류), 모충, 우충, 곤충, 그리고 비늘과 껍데기가 있는 부류(인개)에는 원숭이의 이름이 없었다. 또한 원숭이 부류를 살펴보니, 이 원숭이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으나 사람의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고, 나충 같으나 국경의 관리를 받지 않으며, 짐승 같으나 기린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날짐승 같으나 봉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다 손오공이 직접 검열해 보는 별도의 장부가 있었다. 손오공은 '혼(魂)' 자가 적힌 1,350번까지 훑어 내려간 끝에야 비로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천생석후(하늘이 만든 돌원숭이), 수명은 342세이며 천수를 누릴 운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 수명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겠으니, 그저 이름만 지워버리면 그만이다. 붓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판관이 황급히 붓을 받들어 먹물을 듬뿍 묻혀 왔다. 손오공은 장부를 가져와 원숭이 부류 중에서 이름이 적힌 것들을 모조리 줄을 그어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장부를 책 내던지며 외쳤다. "계산 끝났다, 계산 끝났어! 이제 다시는 네놈들 관할 아래 있지 않겠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휘두르며 단숨에 유명계를 쳐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열 명의 명왕은 감히 그를 가까이하지 못하고 모두 취운궁으로 가서 함께 지장왕보살에게 절하며, 상소를 올려 하늘에 보고할 방법을 상의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둔다.

이 원숭이 왕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갑자기 풀 더미에 발이 걸려 뒤로 나자빠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까지의 일은 모두 꿈이었다.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네 명의 장수와 원숭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왕님, 술을 얼마나 드셨기에 밤새 잠만 주무시다 이제야 깨어나십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잠만 잔 게 아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 나를 붙잡아 저승의 성문 밖까지 끌고 가기에, 내가 신통력을 부려 곧장 삼라전까지 쳐들어와 열 명의 명왕과 맞서 싸웠느니라. 그러고는 우리의 생사부를 낱낱이 살펴보고는, 우리 이름이 적힌 것들을 내가 전부 지워버렸지. 그놈들의 통제 따위는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말이다."

원숭이 무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 일 이후로 산속의 원숭이들 중에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저승의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후왕이 앞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 네 명의 장수가 각 동굴의 요왕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요왕들이 모두 물려와 축하를 건넸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여섯 명의 의형제도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다. 생사부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두가 기뻐하며 매일같이 모여 즐겁게 놀았다.

한편, 천상의 성스러운 분이자 자비롭고 어진 분이신 옥황상제께서 어느 날 금빛 궁궐인 영소보전에 앉아 문무 신선들을 모아 조례를 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구홍제가 진인(도사)이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통명전 밖에 동해 용왕 오광이 상소문을 올리며 천존의 조칙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옥황상제가 명을 내렸다.

“그를 불러라.”

오광은 영소보전 아래까지 내려와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고, 곁에 있던 신선 아이가 상소문을 받들어 올렸다. 옥황상제는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다. 상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물속 세상의 신하인 소룡(小龍) 오광이 대천성주 현궁고상제군께 아뢰입니다. 최근 화과산에서 태어나 수렴동에 살고 있는 요괴 손오공이 소룡을 괴롭히고, 강제로 용궁을 차지하며, 병기를 요구하고 신통력을 부리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흥포한 기세를 부리며 수중 생물들을 놀라게 하고 거북과 자라들을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용왕은 전전긍긍하고, 서해 용왕은 슬픔에 잠

졌으며, 북해 용왕은 고개를 숙인 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신 오광은 몸을 굽혀 절하며, 신비로운 철봉과 봉황 깃털로 만든 금관, 그리고 갑옷과 구름 위를 걷는 신발까지 예우를 갖추어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예를 뽐내고 신통력을 부리며 ‘시끄럽다, 시끄러워!’라고 외치고 있으니, 과연 대적할 자가 없어 제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신이 아뢰오니, 부디 성스러운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천병(하늘의 군대)을 보내 이 요물을 잡아 가두어 주셔야만 바다와 산이 평온해지고 세상이 안녕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삼가 아뢰니다.”

옥황상제가 그 내용을 다 읽고는 명을 내렸다. "용신은 바다로 돌아가라. 짐이 곧 장수를 보내 그놈을 붙잡게 하겠다." 동해 용왕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이때 갈선옹 천사가 옥황상제에게 아뢰었다. "만세, 저승의 진광대왕이 지장왕보살의 상소문을 받들어 올렸나이다." 곁에 있던 옥녀가 상소문을 건네자, 옥황상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상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저승의 경계는 땅의 음기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늘에는 신이 있고 땅에는 귀신이 있으며, 음양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새가 태어나면 짐승이 죽음이 있듯, 암수가 교차하며 생명이 태어나고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에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과산 수렴동에서 태어난 요괴 원숭이 손오공이 악행을 저지르며 하늘의 부름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부려 구천의 귀신들을 때려눕히고, 제 세력을 믿고 열 대에 걸친 자비로운 왕

들을 놀라게 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강제로 명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숭이 무리는 구속받지 않게 되었고, 원숭이 짐승들은 수명이 길어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삶과 죽음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승려가 상소를 올려 천계의 위엄을 범하는 결례를 범하나, 부디 신병을 파견하여 이 요괴를 잡아 항복시키고, 음양의 질서를 바로잡아 저승을 영원히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삼가 올립니다."

옥황상제가 이를 다 보고는 명을 내렸다. "명군(冥君)은 지부로 돌아가라. 짐이 곧 장수를 보내 그놈을 붙잡아 오겠다." 이에 진광왕도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물러갔다.

옥황상제가 문무 신선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저 요괴 원숭이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으며, 어느 계보에서 나왔기에 이토록 도력이 깊은 말이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선들 사이에서 천리안과 순풍이(順風耳)가 튀어나와 대답했다. "저 원숭이는 삼백 년 전 하늘이 낳은 석후입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동안 어디에서 수행을 했는지 신선이 되어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죽음의 명부까지 강제로 지워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신장들이 내려가 저놈을 잡아야 하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백금성이 신선들 사이에서 나타나 엎드려 아뢰었다. "상제시여, 삼계에서 아홉 구멍(九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원숭이는 천지가 키워내고 해와 달이 잉태한 몸이 아닙니까? 하늘을 이고 땅을 딛으며 이슬을 마시고 노을을 먹고 자란 존재가 이제 신선의 도를 닦아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갖추었으니, 일반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이 아뢰옵건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자비로운 은혜를 생각하시어 초안(招安, 달래어 항복을 받음)의 성지를 내려 저놈을 천계로 불러들이소서. 그리고 크든 작든 관직을 하나 내려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함으로써 이곳의 질서 속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천명을 받든다면 나중에 더 높은 직위를 내리고 상을 주면 될 것이요, 만약 천명을 거역한다면 그때 잡아들이면 됩니다. 그리하면 번거롭게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고, 신선을 거두는 데 있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옥황상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경의 건의대로 하겠다."

곧 문곡성 관리를 시켜 조서를 쓰게 하고, 태백금성에게 저놈을 달래어 불러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태백금성은 명을 받들고 남천문을 나서서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화과산 수렴동까지 내려갔다. 그는 원숭이들에게 외쳤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여기 성지가 있으니, 대왕께서는 어서 천계로 올라 오시게나. 어서 알려라!”

동굴 밖의 어린 원숭이들이 층층이 소식을 전하며 동굴 깊숙한 곳까지 외쳤다. “대왕님, 밖에 노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등에는 문서를 메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내온 천사라며 대왕님께 성지를 전하러 왔답니다!”

미후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마침 요 며칠 천계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천사가 찾아왔구나! 어서 모셔 오너라!” 미후왕은 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문밖까지 나가 마중했다.

태백금성이 안으로 들어와 남쪽을 향해 서서 말했다. “나는 서방의 태백금성이라 하오. 옥황상제의 초안(招安, 죄를 묻지 않고 달래어 불러들임) 성지를 받들어, 대왕께서 천계로 올라가 신선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모시러 왔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노신선께서 직접 내려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오공은 부하들에게 잔치를 차려 태백금성을 대접하게 했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성지를 받들고 있으니 오래 머물 수는 없소. 대왕께서도 어서 함께 가시지요. 나중에 천계에서 자리를 잡으신 뒤에 천천히 다시 대접받도록 하겠소.”

손오공이 말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서 가시지요, 어서요.” 손오공은 곧바로 네 명의 장수들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자식과 손자들에게 무예를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해라. 내가 천계에 가서

길을 좀 보고 올 테니, 나중에 너희도 데려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거라.”

네 장수는 명을 받들었다.

이 원숭이 왕과 금성은 구름을 타고 솟구쳐,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갔
네.

높은 신선의 자리에 올라, 구름 속 신선들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결국 손오공이 어떤 관직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음 회에서 이
어진다.

제4회 — 관직은 필마사로 봉해졌으나 마음이 어찌 족하랴, 이름은 제천대성이 라 적혔으나 뜻이 어찌 편안하랴

官封弼馬心何足 名注齊天意未寧

태백금성과 미후왕은 동굴 깊은 곳에서 함께 나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 원래 손오공의 근두운은 남다른 재주가 있어 무척 빨랐기에, 태백금성을 저만치 뒤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남천문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구름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증장천왕이 거느린 방(龐)·유(劉)·구(苟)·필(畢)·등(鄧)·신(辛)·장(張)·도(陶) 등 여덟 대력천정(大力天丁)을 비롯한 수많은 천병들이 창과 칼, 검과 극을 앞세워 천문을 가로막으며 도무지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이 태백금성 늙은이가 간사한 놈이로구나! 나를 모셔간다고 해놓고선, 어찌 저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여 앞길을 막게 한단 말이냐?"

한창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태백금성이 금세 따라왔다. 손오공은 태백금성을 마주 보자마자 매섭게 몰아세웠다. "이 늙은이, 나를 속인 것이냐? 옥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나를 모셔간다고 하더니, 어찌 저자들이 천문을 막아서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냐?"

태백금성이 웃으며 말했다. "대왕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대왕께서는 본래 이런 천계에 와보신 적도 없고 이름도 없으신데, 저 천병들이 대왕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함부로 들여보내겠습니까. 이제 천존을 뵈고 신선의 명부를 받으며 관직까지 얻고 나면, 나중에 대왕께서 출입하실 때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관두겠다. 안 들어가!"

그러자 태백금성이 손으로 손오공을 붙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남천문에 다다르자 태백금성이 크게 외쳤다. "남천문의 천장과 관리들은 길을 비켜라! 이분은 하계에서 온 신선이시니, 내가 옥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그분을 모셔 왔다!" 그러자 증장천왕과 천군 만마가 무기를 거두고 물러났다. 그제야 손오공은 태백금성의 말을 믿고 그와 함께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구경하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처음 천계에 올라 천당에 들어서니, 만 갈래 금빛은 붉은 노을처럼 굽이치고, 천 갈래 상서로운 기운은 자줏빛 안개처럼 뿔어져 나오네.

눈앞에 펼쳐진 남천문은 벽옥처럼 푸르스름한 유리를 쌓아 만들었고, 보옥으로 장식하여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양옆에는 수십 명의 진천원수들이 기둥을 받치고 선 채 무기를 들고 위엄 있게 서 있었으며, 사방에는 십여 명의 금갑신인들이 창과 채찍, 칼과 검을 들고 호위하고 있었다. 바깥쪽도 대단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광경은 더욱 놀라웠다. 안쪽 벽에는 커다란 기둥들이 서 있었는데, 그 기둥마다 금빛 비늘이 햇빛처럼 빛나는 붉은 수염의 용들이 휘감겨 있었다. 또한 길게 뻗은 다리 위에는 오색 깃털을 휘날리며 하늘을 나는 단정봉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찬란한 노을은 하늘빛을 비추고, 푸른 안개는 별들의 입구를 가릴 듯 자욱했다.

이 하늘 위에는 서른세 개의 천궁이 있었으니, 연운궁, 비사궁, 오명궁, 태양궁, 화락궁 등이 저마다 지붕 위에 금빛 신수를 올려놓은 모습이었다. 또한 일흔두 겹의 보전이 있었는데, 조회전, 능허전, 보광전, 천왕전, 영관전 등이 저마다 기둥마다 옥 기린을 세워두고 있었다. 수성대 위에는 천만 년 동안 시들지 않는 명화들이 피어 있고, 약을 달이는 화로 곁에는 만만년 동안 푸르른 신령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조성루 앞에 이르니, 붉은 비단옷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연꽃 모양의 관은 금과 옥처럼 눈부셨다. 옥비녀와 구슬 신발, 자줏빛 띠와 금빛 관장이 가득했다. 금종이 울리자 삼계의 신선들이 신표를 들고 붉은 뜰로 나아왔고, 천고가 울리자 수많은 성인이 왕을 알현하듯 옥황제를 향해 모여들었다.

영소보전에 이르니, 옥으로 만든 문에는 금못이 박혀 있고, 붉은 문에는 채색 봉황이 춤을 추고 있었다. 복도와 회랑은 곳곳이 영롱하고

투명했으며, 겹겹이 쌓인 처마마다 용과 봉황이 날아오르는 형상이었다. 그 위에는 자줏빛으로 빛나며 둥글고 환하게 빛나는 커다란 금호로 모양의 지붕이 솟아 있었다. 그 아래에는 천비가 부채를 들고 서 있고, 옥녀가 선녀의 수건을 받들고 있었으며, 위엄 넘치는 천장들이 조정을 호위하고 기세등등한 신선들이 행차를 지키고 있었다. 정중앙의 유리쟁반 위에는 겹겹이 쌓인 태을단이 놓여 있었고, 마노 병 속에는 구불 구불한 산호 나무가 꽃혀 있었다.

참으로 천궁의 신기한 물건들은 가히 끝이 없으나, 세상에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금빛 문과 은빛 수레가 자줏빛 궁궐과 나란히 있고, 신비로운 꽃과 영험한 풀들이 가득하다. 토끼가 사는 제단을 지나고, 황금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곳이다. 원숭이 왕이 천계의 경지에 들어왔으니, 인간 세상의 진흙탕에 떨어질 일은 없으리라.

태백금성이 미후왕을 데리고 영소전 밖에 이르더니, 부르는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옥좌 앞까지 나아가 위를 향해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몸을 꼳꼳이 세운 채 곁에 서서, 절은 하지 않고 그저 태백금성이 올리는 보고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태백금성이 아뢰었다. "신이 성지를 받들어 요괴 신선이 도착하였음을 알립니다."

옥황제가 휘장 뒤에서 물었다. "저 요괴 신선이 누구냐?"

그제야 손오공이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이 몸이 바로 그놈입니다."

신선들이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경악하여 소리쳤다. "저 야생 원숭이가 어찌 절을 올리며 참례하지 않고, 감히 '이 몸이 바로 그놈입니다'라고 대답한단 말인가! 죽어 마땅하다, 정말 죽어 마땅해!"

옥황제가 명을 내렸다. "저 손오공은 하계에서 온 요괴 신선이라, 이제 막 사람의 몸을 얻어 예법을 모르는 것이니 일단 죄를 묻지 않겠다."

신선들이 일제히 외쳤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원숭이 왕 손오공은 그저 옥좌를 향해 크게 소리 한 번 지르고 말았다.

옥황제는 문관과 무관의 신선들을 불러 모아 관직이 부족한 곳이 있는지 살핀 뒤, 손오공에게 그 자리를 맡기려 했다. 이때 곁에 있던 무곡성군이 아뢰었다. "천궁의 각 궁과 전, 그리고 모든 구역에 관직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마감에 정당 관리직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옥황제가 명을 내렸다. "그럼 저놈을 필마온으로 임명하라."

신하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렸으나, 손오공은 그저 옥좌를 향해 크게 소리 한 번 지를 뿐이었다. 옥황제는 다시 목덕성관을 보내 그를 어마감으로 임명하여 가게 했다.

당시 손오공은 기쁜 마음으로 목덕성관을 따라 임지로 향했다. 일이 끝난 뒤 목덕성관은 궁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어마감에 도착하니 감

승, 감부, 전부, 역사 등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이 어마감의 사무를 조사해 보니, 관리해야 할 천마가 천 마리나 되었다. 그 말들은 이러하였다.

"화류와 기기, 녹이와 섬리, 용매와 자연, 협익과 숙상, 결제와 은정, 요노와 비황, 도도와 번우, 적토와 초광, 유휘와 미경, 등무와 승황, 추풍과 절지, 비기하고 분소하며, 일표하고 적전하며, 동작과 부운, 총롱과 호격, 절진과 자린이라. 사극의 대완에서 온 여덟 마리 준마와 아홉 마리 명마들이 천 리를 달려도 무리 중의 으뜸이로다. 이 명마들은 하나같이 바람을 가르고 번개를 쫓듯 기세가 당당하며, 안개를 밟고 구름을 오르듯 기력이 넘쳐났다."

미후왕은 문서들을 살펴보고 말의 수를 확인했다. 어마감의 직제는 이러했다. 전부는 말에게 먹일 풀과 사료를 준비하고, 역사는 말의 몸을 닦고 빗질하며, 여물을 묶고, 물을 먹이고, 사료를 끓이는 일을 맡았다. 감승과 감부는 이 모든 일을 보좌하며 재촉하는 역할을 했다. 필마온인 손오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정성껏 말을 돌보았다. 낮에는 말들을 뛰놀게 해도 괜찮았지만, 밤에는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다. 잠든 말들은 깨워서 풀을 먹였고, 달리는 말들은 붙잡아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천계의 천마들은 손오공만 보면 귀를 늘여뜨리고 발굽을 모은 채 고분고분 순종했다. 덕분에 말들은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돌아 아주 튼튼해졌다. 어느덧 반달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한가한 날, 어마감의 관리들이 모두 술자리를 마련했다. 하나는 손오공을 환영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

함이었다. 한창 즐겁게 술을 마시던 중, 손오공이 갑자기 잔을 멈추고 물었다.

"이 필마온이라는 게 대체 무슨 직책인가?"

관리들이 대답했다.

"관직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 관직은 몇 품인가?"

그러자 관리들이 말했다.

"품계는 따로 없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품계가 없다니, 그럼 아주 높은 직급이란 말인가?"

관리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미입류'라고 부를 뿐이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어째서 '미입류'라고 부르는 건가?"

관리들이 설명했다.

"가장 낮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낮고 작은 관직은 없으며, 그저 말들을 돌보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인께서 부임하신 뒤에 이토록 정성을 다해 말들을 살찌워 놓으시면 그저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듣는 게 전부지요. 만약 말의 몸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꾸중을 들을 것이요, 만약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벌금을 내거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악물며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감히 이 몸을 이토록 무시하다니! 내가 화과산에서 왕 노릇을 하며 대접을 받았거늘, 어찌 나를 속여서 말이나 돌보게 한단 말이나? 말 돌보는 일이야 후배들이나 하는 천한 일인데, 어찌 나를 이런 취급을 한단 말이나! 안 하겠다, 안 해! 난 가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탁자를 쿵 하고 밀쳐버리고는, 귀에서 보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크기가 사발만큼 컸다가도 순식간에 굵어졌다가늘어졌다 하며 온갖 변화무쌍한 기술을 선보였다. 손오공은 그대로 어마함을 박차고 나가 남천문까지 거침없이 달려갔다. 남천문을 지키던 천병들은 손오공이 이미 천계의 관직을 받은 필마온이라는 것을 알고는,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그가 천문을 뚫고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내려와 화과산으로 돌아왔다. 보니 네 명의 장수와 여러 동굴의 요괴 왕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다. 원숭이 왕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이놈들아, 이 몸이 돌아왔다!”

원숭이 떼가 몰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영접하더니, 왕을 동굴 깊은 곳으로 모셔 귀한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벌여 환영했다. 원숭이들이 말했다.

“대왕님, 축하드립니다! 천계에 가 계신 지 십수 년은 되었을 테니, 분명 큰 영광을 안고 돌아오셨겠지요?”

원숭이 왕이 대답했다.

“내가 간 지 겨우 보름 남짓 되었는데, 십수 년이라니 무슨 소리냐?”

원숭이들이 말했다.

“대왕님, 하늘나라에 계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나 보군요. 하늘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는 1년이라니까요. 그런데 대왕님, 천계에서는 어떤 관직을 맡으셨습니까?”

원숭이 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말하기도 입 아프다, 정말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 옥황제가 사람을 쓸 줄 모르는구나. 내 생김새만 보고는 나를 무슨 ‘필마온’인지 뭔지로 봉하더니, 알고 보니 말이나 돌보는 아주 비천한 직급이 아니겠느냐

냐?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마감에서 신나게 놀기만 했지. 오늘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천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잔칫상을 밀쳐버리고 관직 따위는 안 받겠다고 선언한 뒤 그냥 내려온 것이다.”

원숭이들이 맞장구를 쳤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대왕님께서 이 복된 낙원에서 왕으로 계시는 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즐거우십니까? 어찌 그곳에 가서 말지기 노릇을 하려 하셨겠습니까?”

원숭이들은 어서 빨리 술을 준비하여 대왕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드리라고 재촉했다.

한창 술을 마시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문밖에 외뿔을 가진 귀왕 두 명이 대왕님을 뵙고자 합니다.” 미후왕이 말했다. “들어보내라.” 그러자 귀왕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와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미후왕이 물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나?” 귀왕이 대답했다. “대왕님께서 인재를 불러 모으신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그동안 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왕님께서 천계의 직책을 하사받아 영광스럽게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자줏빛 도포 한 벌을 바치러 왔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놈을 버리지 마시고 거두어 주신다면, 개나 말처럼 온 힘을 다해 대왕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미후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줏빛 도포를 몸에 걸쳤다. 구경하던 무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줄을 서서 절을 올렸고, 미후왕은 즉시 귀왕을 전부 총독 선봉으로

봉했다. 귀왕이 은혜에 감사 인사를 마친 뒤 다시 여쭙었다. “대왕님께서 천계에 계시는 동안 어떤 직책을 받으셨습니까?” 미후왕이 말했다. “옥황제가 나를 가볍게 여기더니, ‘필마온’이라는 직책을 주더구나.” 귀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뢰었다. “대왕님처럼 놀라운神通력을 가진 분이 어찌 남의 말이나 돌보시겠습니까? 차라리 ‘제천대성’이 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후왕은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좋다! 좋다! 좋다!”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네 명의 장수에게 명했다. “어서 가서 깃발을 하나 만들어라! 깃발에는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장대에 높이 걸어라. 이제부터는 나를 오직 제천대성이라 부르고, 다시는 대왕이라 부르지 마라. 또한 이 사실을 각 동굴의 요괴 왕들에게도 널리 알려 모두가 알게 하라.”

한편, 다음 날 옥황제가 조회를 열었다. 장천사가 어마감의 감승과 감부를 데리고 와 단치 아래에서 엎드려 보고했다.

“폐하, 새로 임명된 필마온 손오공이 관직이 너무 낮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어제 천계를 배반하고 도망쳤나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천문 밖에서 증장천왕이 천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함께 보고했다.

“폐하, 필마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천문을 빠져나가 버렸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옥황제가 즉시 어명을 내렸다.

“두 길의 신선들은 각자 본래의 직무로 돌아가라. 짐이 천병을 보내
저 요괴를 붙잡아 오겠다.”

그때 관리들 사이에서 탁답이천왕 이정과 나타 삼태자가 번쩍 나타
나며 앞장서서 말했다.

“폐하, 미천한 신들이 힘을 보태고자 하오니, 저 요괴를 잡을 수 있
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탁답이천왕 이정을 강마대원수로, 나
타 삼태자를 삼단해회대신으로 봉하고, 곧장 군사를 일으켜 하계로 내
려보냈다.

이정 장군과 나타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올린 뒤 곧장 본궁으로
돌아갔다. 이정은 삼군을 소집하고 수많은 장수들을 거느린 채, 거령
신을 선봉으로 삼고 어두장(魚肚將)에게 후방을 맡기고 약차장(藥叉
將)에게 군사를 독려하게 하여 진을 쳤다. 순식간에 남천문을 나선 군
대는 곧장 화과산에 이르렀다. 이정은 평탄한 곳을 골라 진영을 구축하
고, 거령신에게 도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거령신은 무장을 단정히 갖추고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
며 수렴동 밖으로 나아갔다. 수렴동 입구에는 늑대나 호랑이 같은 짐승
의 형상을 한 요괴들이 수없이 모여 창과 칼을 휘두르며 떠들썩하게 싸
우고 포효하고 있었다. 거령신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업보 쌓은 짐승들아! 어서 가서 필마온에게 알려라! 나는 하늘의 대장군으로서 옥황제의 명을 받들어 너희를 행복시키러 왔다. 어서 나와서 행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다치고 죽게 될 것이다!"

요괴들이 허둥지둥 동굴 안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미후왕이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요괴들이 대답했다.

"동굴 밖에 어떤 천계의 장수가 나타났는데, 스스로 대성이라 칭하며 옥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우리를 행복시키러 왔답니다. 어서 나가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후왕이 외쳤다.

"내 갑옷과 무장을 가져오너라!"

미후왕은 자금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은 뒤, 구름을 밟는 보운화를 신었다. 그리고 여의금고봉을 손에 쥐고 무리를 이끌어 문밖으로 나가 진을 쳤다. 거령신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과연 미후왕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금빛 갑옷 입으니 눈부시게 빛나고 머리에 쓴 금관은 번쩍번쩍 광채 나네. 손에는 금고봉을 높이 들고 발에는 구름 신을 신으니 참으로 잘 어울리구나. 별처럼 빛나는 괴상한 두 눈에 어깨 너머로 툭 튀어나온 단단한 두 귀. 당당한 체구로 변화무쌍한 술법을 부리니 목소리는 종과 경쇠 소리처럼 웅장하구나. 뽀족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필마온 이여, 마음만큼은 하늘과 나란한 제천대성이 되고자 하는구나.

거령신이 호통을 치며 크게 외쳤다. “이 발칙한 원숭이 놈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급히 물었다. “네놈은 어느 길목의 잡신이나? 나는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으니, 어서 이름을 대거라!”

거령신이 말했다. “이 망령된 원숭이 녀석! 감히 나를 몰라보다니. 나는 옥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너를 행복시키러 온, 탁탑이천왕 이정의 부하 선봉장 거령천장이다! 어서 네 차림새를 벗어 던지고 천계의 은혜에 순응하거라. 그래야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이 몰살당하는 화를 면할 것이다. 만약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순식간에 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이 잡신 놈아! 입만 살아서 떠들지 말고 그 잘난 혀 좀 놀리지 마라! 원래는 몽둥이로 한 방에 때려죽이려 했으나, 그러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 봐 목숨만 살려두는 것이다. 어서 하늘로 돌아가 옥황제에게 전해라. 그놈이 어지간히도 사람을 쓸 줄 모른다고 말이다! 나에게 이토록 무궁무진한 재주가 있는데, 어째서 고작 말이나 돌보게 시킨단 말이나? 내 깃발에 적

힌 글자를 보아라. 만약 이 글자대로 관직을 올려준다면 내가 칼을 들 일도 없을 것이고, 천지는 자연히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 영소전까지 쳐들어 가서 그놈이 용상에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들겠다!”

거령신은 이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뜬 채 바람을 타고 날아온 깃발을 살펴보았다. 과연 문밖에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거령신은 코웃음을 세 번 치며 말했다. “이 발칙한 원숭이 놈이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감히 무례하게 구는구나. 네놈이 제천대성이라도 되겠느냐? 내 도끼 맛이나 좀 봐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령신이 머리 위로 도끼를 내리찍었다. 손오공은 당황하지 않고 곧장 금고봉을 휘둘러 맞섰다. 두 사람의 싸움은 실로 치열했다.

시로 이르되,

몽둥이는 여의봉이요, 도끼는 선화도끼라. 두 사람이 처음 맞붙으니 실력을 알 길 없네. 도끼와 몽둥이가 좌우로 어지럽게 오가고, 한 명은 신묘한 술수를 숨기고, 한 명은 큰소리만 높이네. 법술을 부리니 구름과 안개가 피어오르고, 손을 휘두르니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네. 천장의 신통력은 참으로 대단하나, 원숭이 왕의 변화무쌍함은 끝이 없구나. 몽둥이가 치솟으니 용이 물놀이하는 듯하고, 도끼가 날아드니 봉황이 꽃 사이를 뚫는 듯하네. 거령신의 명성은 천하에 떨친다지만,

실제 실력은 그놈에게 미치지 못했구나. 대성께서 가볍게 철몽둥이를 휘두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온몸이 저릿하구나.

거령신이 맞서 싸워보려 했으나 도저히 버티지 못했다. 손오공이 머리 위로 금고봉을 크게 휘둘러 내리치자, 거령신은 황급히 도끼를 들어 막아섰다. 하지만 쟁강 하는 굉음과 함께 도끼 자루가 두 동강 나 버렸고, 거령신은 급히 몸을 돌려 패배를 인정하며 도망치듯 달아났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이 겁쟁이 녀석, 겁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이번엔 봐주었으니, 어서 가서 소식이나 전해라. 얼른 가서 보고해!"

거령신이 진영 문 앞에 도착하니 탁탑이천왕이 서 있었다. 거령신은 급히 무릎을 꿇고 웃으며 말했다.

“필마온의 신통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패하고 돌아왔으니, 부디 죄를 물어 주십시오.”

이천왕이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이놈이 내 기세를 꺾어 놓다니!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때 곁에서 나타 태자가 나타나 아뢰었다.

“아버님, 노여움을 거두시고 거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출전해 보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천왕은 그 말을 듣고 거령신을 진영으로 돌려보내 죄를 기다리게 했다.

한편, 나타는 갑옷과 투구를 단정히 갖춰 입고 진영에서 뛰어 나와 수렴동 밖까지 들이닥쳤다. 마침 손오공이 병사들을 거두어들여려던 참에, 나타가 용맹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용맹한 태자를 두고 시로 이르되,

총각머리는 이제 겨우 정수리를 덮었고 늘어뜨린 배넛머리는 아직 어깨에도 닿지 않았네. 신통한 재주와 영민한 깨달음이 가득하니 빼어난 골격은 더욱 맑고 아름답도다. 참으로 천상의 기린아요 안개와 노을 속의 채봉 선인이로다. 용의 자손이라 본래 범상치 않으니 그 모습은 속세의 사람과 전혀 다르구나. 몸에는 여섯 가지 신기한 무기를 지녔고 비상하며 변화하는 재주 또한 끝이 없도다. 이제 옥황제의 성스러운 명을 받들어 삼단해회대신으로 봉해졌으니.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너는 어느 집 아이냐? 감히 내 문 앞까지 쳐들어오다니, 무슨 일로 왔느냐?”

나타가 호통을 쳤다. “이 망할 원숭이 놈!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탁탑이천왕의 셋째 아들 나타다. 지금 옥황제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꼬마 태자야, 아직 젖니도 다 안 빠졌고 솜털도 채 마르지 않은 녀석이 어찌 그리 큰소리를 치느냐? 내 이번 한번은 네 목숨을 살려주마. 대신 내 깃발에 적힌 글자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옥황제께 올린 내 관직이 이러하니, 이대로 받아들이면 군

사를 부릴 필요도 없이 내가 스스로 귀순하겠다.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소보전까지 쳐들어갈 것이다!”

나타가 고개를 들어 보니, 거기에는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타가 말했다. “이 요괴 놈이 대체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감히 그런 이름을 자처한단 말이나? 겁먹지 마라, 내 칼을 받아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그저 여기 서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 네가 몇 번을 베든 마음대로 해보아라.”

나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크게 소리쳤다. “변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타는 머리 셋에 팔 여섯 개를 가진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살벌한 기세로 요괴를 베는 칼, 요괴를 치는 도, 요괴를 묶는 줄, 요괴를 굴복시키는 방망이, 수구(공 모양의 무기), 화륜(불타는 바퀴) 등 여섯 가지 병기를 양손에 쥐고 사방팔방에서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이 꼬마 녀석, 제법 수단을 부릴 줄 아는구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 신통력을 보여주마!’

대성 손오공도 크게 외쳤다. “변신!” 그 역시 머리 셋에 팔 여섯 개로 변신했다. 그리고 금고봉을 휘두르니, 순식간에 세 개의 봉으로 늘어났다. 여섯 개의 손은 세 개의 봉을 나누어 잡아 나타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싸움은 그야말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칠 만큼 치열하고도 살벌했다.

시로 이르되,

여섯 팔을 가진 나타 태자, 태어날 때부터 미후왕과 마주하니, 천생 연분 숙명의 라이벌이라, 한쪽은 명을 받들어 내려왔고, 한쪽은 제멋대로 날뛰는구나.

요괴를 베는 보검은 날카롭고, 요괴를 치는 도는 귀신도 슬퍼할 만큼 매섭다. 요괴를 묶는 줄은 날아다니는 구렁이 같고, 요괴를 굴복시키는 방망이는 늑대 머리처럼 묵직하네. 번개처럼 빛나는 화륜은 눈부시게 돌아가고, 수구는 사방으로 굴러다니는구나.

대성의 여의봉 세 개는, 앞뒤로 막아내며 기묘한 수를 부리네. 몇 합을 겨루어도 승부를 가리기 어려우니, 태자는 포기할 줄을 모르고 계속 몰아친다.

여섯 가지 병기를 수시로 바꾸어, 수만 가지로 변형해 머리 위로 던져대도, 원숭이 왕은 두려워 않고 허허 웃으며,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여유롭게 대처하네.

하나를 천 개로, 천 개를 만 개로 변화시켜,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뛰니 마치 날아다니는 용 같구나. 그 기세에 눌린 동굴의 요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산속의 귀신들은 머리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신령한 병기들의 분노는 구름처럼 어둡고, 금고봉이 울리는 소리는 웅웅거리는구나. 이쪽에서는 천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리고, 저쪽에서는 원숭이 무리가 깃발을 흔들며 근심하네. 두 세력이 한데 엉켜 용맹을 겨루니,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할지 알 길이 없구나.

나타와 손오공은 각자 신통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른 합을 넘게 싸웠다. 나타가 가진 여섯 가지 병기는 수만 가지로 변해 쏟아졌고, 손오공의 금고봉 또한 만만가지로 변화하며 맞섰다. 공중에서는 마치 빗줄기와 유성이 휘몰아치는 듯하여 도무지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손오공은 손놀림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는 자신의 털 한 올을 뽑아 들더니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털이 순식간에 손오공의 본모습으로 변하더니, 금고봉을 치켜들고 나타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사이 손오공의 진짜 몸은 찻싸게 움직여 나타의 뒤를 잡아, 왼쪽 팔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한창 법술을 부리던 나타는 몽둥이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고 급히 피하려 했으나,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한 대를 얻어맞고는 통증을 느끼며 패퇴했다. 나타는 사용하던 여섯 가지 병기를 다시 몸 안으로 거두어들이고는 패배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있던 이정은 이미 상황을 지켜보며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때 나타가 급히 달려와 벌벌 떨며 보고했다.

"아버지, 저 필마온이라는 놈이 정말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제 법력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어,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정이 깜짝 놀라 안색이 변하며 물었다.

"그놈의 신통력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느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나타가 대답했다.

"그놈이 동굴 앞에 깃발 하나를 세워 두었는데, 거기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옥황제께서 자신을 제천대성으로 봉해주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소보전까지 쳐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이정이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불리 맞서 싸우지 마라. 일단 천계로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천병을 더 많이 보내 저놈을 포위하여 잡는 것이 좋겠다."

나타는 통증을 참으며 더는 싸울 수 없었기에, 이정과 함께 천계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승전보를 울리며 산으로 돌아온 손오공을 맞이하기 위해, 일흔두 곳의 동굴을 다스리는 요괴 왕들과 여섯 형제가 모두 몰려와 축하를 건넸다. 그들은 복된 동굴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술과 음식을 나누었다. 그때 손오공이 여섯 형제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제천대성이라 칭하였으니, 형님들도 똑같이 대성이라 칭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우마왕이 갑자기 크게 외쳤다.

"네 말이 참으로 옳구나! 나는 이제 평천대성이라 하겠다!"

교마왕이 말했다.

"나는 복해대성이라 하겠다."

봉마왕이 말했다.

"나는 혼천대성이라 하겠다."

사노왕이 말했다.

"나는 이산대성이라 하겠다."

미후왕이 말했다.

"나는 통풍대성이라 하겠다."

우음왕이 말했다.

"나는 구신대성이라 하겠다."

이로써 일곱 대성은 각자 스스로를 높여 이름을 부르며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각자 흩어져 돌아갔다.

한편, 이정은 삼태자인 나타와 함께 장수들을 거느리고 영소전에 이르러 옥황제에게 보고했다.

"신들이 성지를 받들어 요괴 손오공을 잡으려 하계로 내려갔사오나, 뜻밖에도 그 신통력이 워낙 막강하여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군사를 더 늘려 저 요괴를 토벌해 주시옵소서."

옥황제가 말했다.

"고작 요괴 원숭이 한 마리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군사를 더 보태달라는 말이나?"

나타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신의 죽을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괴는 철봉을 휘둘러 거령신을 먼저 패퇴시키더니, 제 팔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게다가 동굴 문 앞에는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를 적은 깃발을 세워두고는, 만약 자신에게 그 직책을 내려준다면 즉시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직책을 주지 않는다면, 아예 이 영소전까지 쳐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옥황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외쳤다.

"저 요괴 원숭이가 어찌 이토록 오만방자하단 말이나! 즉시 장수들을 보내 저놈을 처단하라!"

한편, 관리들 사이에서 태백금성이 다시 나타나 이렇게 아뢰었다.

“저 요괴 원숭이는 입만 살아있을 뿐, 위아래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억지로 병사를 보내 싸우려 들었다가는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옥황제께서 넓은 자비심을 베푸시어, 다시 한번 회유하는 교지를 내려 그를 ‘제천대성’으로 봉해주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저 이름뿐인 명예직을 주는 것이니, 관직은 있어도 녹봉은 없는 자리로 말입니다.”

옥황제가 물었다.

“관직은 있으되 녹봉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태백금성이 대답했다.

“이름은 제천대성이지만, 실제 업무를 맡기지도 않고 녹봉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천계에 머물게 하여 그 사악한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더 이상 망령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온 세상이 평온해지고 하늘과 땅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옥황제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경의 건의대로 하겠노라.”

옥황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보내도록 명했고, 태백금성이 이를 받아 들고 나갔다.

태백금성은 다시 남천문을 나와 화과산 수렴동 밖까지 찾아갔다. 예전에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판이했다. 위풍당당하면서도 살벌한 기운이 가득했고, 온갖 요괴들이 없는 종류가 없었다. 요괴들은 저마다 칼과 창을 들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포효하고 날뛰고 있었다. 태백금성이 나타나자 요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우두머리들은 이리로 오너라! 가서 너희 대성에게 전하라. 나는 옥황제께서 보내신 천사이며, 여기 성지를 가지고 그를 청하러 왔다고 말이다."

요괴들은 즉시 동굴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밖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자신을 천계에서 온 천사라 하며 대성께 전할 지시가 있다고 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잘 왔다, 잘 왔어! 아마 지난번에 왔던 태백금성 일 게다. 지난번에는 나를 천계로 불러 가보니 관직이 형편없긴 했어도, 덕분에 하늘나라 구경도 하고 천문 안팎의 길도 익혔지. 이번에 또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 좋은 뜻이 있을 게야."

손오공은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하여 깃발을 높이 세우고 대열을 갖추어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이어 대성은 원숭이 무리를 이끌고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갑옷 위에는 황갈색 도포를 걸치고 구름을 밟는 신발을 신은 채 급히 동굴 밖으로 나갔다. 손오공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며 크게 외쳤다.

"어르신, 안으로 드시지요! 미처 마중 나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태백금성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 동굴 안으로 들어서더니, 남쪽을 향해 서서 말했다.

“대성께 아뢰니다. 지난번에 대성께서 관직이 낮다며 어마감을 버리고 떠나신 일로, 어마감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옥황제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옥황제께서 ‘모든 관직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법인데, 어찌하여 낮은 것을 싫어하느냐?’라며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곧 바로 이천왕이 나타를 데리고 하계로 내려가 대성을 잡으려 했으나, 대성의 신통력을 미처 몰라 패하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대성이 깃발을

세우고 스스로 제천대성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장들이 반대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이 늙은이가 힘을 다해 대성을 대신해 죄를 무릅쓰고 보고를 올리니, 부디 군사를 일으키지 마시고 대성께 직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옥황제께서 이를 허락하셨기에, 그 명을 받들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도 번거롭게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은혜를 입었구려. 정말 고맙소, 고맙소! 그런데 하늘에서 내게 정말로 ‘제천대성’이라는 관직을 내려준다는 말이오?”

태백금성이 대답했다.

“이 직함을 허락받았기에 감히 명을 받들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오롯이 이 늙은이가 받겠습니다.”

손오공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에 머물러 마시기를 간청했으나, 태백금성이 완곡히 거절하자 결국 함께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남천문 밖으로 향했다. 남천문에 이르자 천병과 천장들이 모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맞이했고, 손오공은 그대로 영소전 아래로 들어갔다.

태백금성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이 옥황제의 명을 받들어, 필마온 손오공을 모셔 왔나이다."

옥황제가 말했다. "손오공을 이리로 오게 하라. 오늘 네게 제천대성이라는 직함을 내리니 관직이 매우 높으나,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손오공은 조례를 올리며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외쳤다. 옥황제는 즉시 관리인 장 씨와 노 씨 두 반을 명하여, 반도원에서 오른쪽 옆에 제천대성부를 세우게 했다. 부 안에는 두 개의 관청을 두었는데, 하나는 안정사이고 다른 하나는 영신사였다. 각 관청에는 신선 관리들을 배치하여 좌우에서 보필하도록 했다. 또한 오두성군을 보내 손오공을 임지로 안내하게 하고, 황실의 술 두 병과 금꽃 열 송이를 하사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원숭이 왕은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여 실행에 옮겼다. 그는 그날 즉시 오두성군과 함께 관청으로 가서 술병을 열어놓고 여러 관리와 함께 마음껏 술을 마셨다. 성관을 본궁으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기쁨에 겨워 하늘을 날 듯 즐거워하며 천계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시로 이르되, 신선의 이름은 영원히 장생록에 기록되어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만고에 전해지리라.

결국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회 — 반도 잔치를 어지럽히고 대성은 단약을 흠치며, 천궁에 반기를 들자 여러 신이 괴물을 잡으러 나서다

亂蟠桃大聖偷丹 反天宮諸神捉怪

이야기는 이러하다. 제천대성은 본래 요괴 원숭이였기에 관직의 높낮이나 품계가 무엇인지, 녹봉이 얼마나 되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이름만 붙여두었을 뿐이다. 제천부 아래에서 아침저녁으로 그를 모시는 두 명의 신선 관리들은 그저 제때 세 끼 식사를 하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 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한가할 때면 궁궐 안에서 벗과 어울려 노닐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어 의형제를 맺기도 했다. 삼청(三清) 신선 앞에서도 '어르신'이라 부르며 격식을 차리지 않았고, 사제(四帝) 앞에서도 '폐하'라며 굽실거리지 않았다. 구요악성, 오방장, 이십팔수, 사대천왕, 십이원진, 오방오로, 보천성상, 그리고 은하수의 온갖 신들과도 그저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를 친근하게 대했다. 오늘은 동쪽으로 놀러 갔다가 내일은 서쪽

으로 떠나버리니,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의 행방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옥황제가 조회를 열었을 때, 신하들 사이에서 허정양진인이 나타나 정중히 고했다. “지금 제천대성이 하는 일 없이 한가롭게 놀아나며 천계의 여러 별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낮은 가리지 않고 모두 친구라 부르고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큰 사고를 칠까 두렵사웁니다. 차라리 그에게 관리할 일을 하나 맡겨 주시는 것이 다른 화를 막는 길일 듯하웁니다.” 옥황제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조서를 내렸다. 그러자 손오공이 기쁜 기색으로 달려와 말했다. “폐하, 이 몸을 부르시다니 무슨 상이라도 내리시려는 겁니까?” 옥황제가 말했다. “네가 하는 일 없이 한가해 보이니, 네게 맡길 직책이 하나 있다. 반도원을 관리하도록 하라.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살펴야 할 것이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는, 옥황제에게 예를 갖추어 물러갔다.

손오공은 지체할 겨를도 없이 곧장 반도원 안으로 들어가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 반도원을 지키는 토지신이 앞을 막아서며 물었다.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옥황제의 명을 받아 이곳 반도원을 대신 관리하게 되었다. 지금은 과원을 살피러 온 것이다.” 토지신은 서둘러 예를 갖추더니, 나무를 돌보는 힘사, 물을 나르는 힘사, 복숭아를 가꾸는 힘사, 청소를 담당하는 힘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손오공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하였다.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나무를 가득 채웠고, 열매는 알알이 맺혀 가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 꽃은 나무마다 만발하여 연지처럼 붉고, 열매는 가지마다 무겁게 매달려 비단 구슬처럼 늘어졌구나. 어느 것은 벌써 익어 취한 듯 붉은 빛을 띠고, 어느 것은 아직 자라나 푸른 껍질을 두르고 있네. 안개 같은 빛 속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햇살을 받으니 붉은 자태가 더욱 빛나는구나. 나무 아래에는 기이한 꽃과 진귀한 풀들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고 색을 뽐내고, 좌우로는 누각과 관사가 늘어서 있으며, 하늘에는 늘 오색구름이 가득하도다. 이곳은 속세의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요지의 서왕모께서 직접 가꾸어 키워낸 것이로다.

손오공은 한참 동안 구경을 하다가 토지신에게 물었다. "이 나무는 모두 몇 그루나 되느냐?"

토지신이 대답했다. "삼천육백 그루가 있습니다. 앞쪽의 천이백 그루는 꽃은 작고 열매도 작지만,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익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신선이 되어 도를 깨우칠 수 있고, 몸이 가벼워져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中间的 천이백 그루는 꽃이 겹겹이 피고 열매가 달콤하며, 육천 년마다 한 번씩 익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뒤쪽의 천이백 그루는 보랏빛 무늬가 있고 씨앗도 귀한데, 구천 년마다 한 번씩 익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천지와 수명이 같아져 해와 달처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날 나무가 몇 그루인지 낱알이 파악하고 정자와 누각들도 다 둘러본 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 후로 손오공은 사나흘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곳으로 놀러 다니지도 않았다.

어느 날, 손오공이 보니 오래된 나무 가지마다 복숭아가 절반 이상 익어 있었다. 그는 새 과일 맛을 좀 보고 싶었지만, 반도원을 지키는 토지신과 역사들, 그리고 제천부의 신선들이 곁에서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도무지 틈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껍을 낸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잠시 문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거라. 나는 이 정자에서 잠시 쉬고 싶으니 말이다."

그 말에 신선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러자 원숭이 왕은 관복을 벗어 던지고 커다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는 잘 익은 커다란 복숭아를 골라 한 움큼 따더니, 나무 위에서 마음껏 베어 물며 즐겼다. 배불리 먹고 나서야 나무 아래로 뛰어 내려온 손오공은 다시 관을 쓰고 옷을 갖춰 입은 뒤, 신선들을 불러 모아 함께 관부로 돌아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흐르는 동안, 손오공은 계속해서 껍을 내어 복숭아를 훔쳐 먹으며 실컷 즐겼다.

어느 날, 서왕모가 연회를 열기로 하고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요지에서 반도성회를 개최했다. 이에 붉은 옷을 입은 선녀, 푸른 옷을 입은 선녀, 흰 옷을 입은 선녀, 검은 옷을 입은 선녀, 자줏빛 옷을 입은 선녀, 노란 옷을 입은 선녀, 초록 옷을 입은 선녀 등 일곱 선녀에게 꽃바구니를 들려 보내 반도원에서 복숭아를 따오게 했다.

일곱 선녀가 반도원 입구에 도착하니, 반도원의 토지신과 힘센 장수들, 그리고 제천부에서 온 두 명의 관리들이 모두 그곳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다. 선녀들이 다가가 말했다. "저희는 서왕모님의 뜻을 받들어, 연회에 쓸 복숭아를 따러 왔습니다."

그러자 토지신이 말했다. "선녀님들,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올해는 예년과 다릅니다. 옥황제께서 제천대성에게 이곳을 관리하라고 명하셨으니, 반드시 대성께 알린 후에야 과원을 열 수 있습니다."

선녀들이 물었다. "대성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토지신이 대답했다. "대성께서는 과원 안에 계십니다. 다만 잠이 드시는 바람에 정자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선녀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성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연회 준비에 늦어서는 안 되니까요."

선녀들은 토지신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하지만 정자에 도착해 살펴보니 대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옷과 모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실 손오공은 한참을 놀다가 복숭아를 몇 개 따 먹은 뒤, 키가 겨우 두 치 정도 되는 작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커다란 나무 가지 위 무성한 잎사귀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다.

일곱 선녀가 걱정하며 말했다. "우리는 어명을 받들고 왔는데, 대성을 찾지 못하면 어찌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겉에 있던 선사 하나가 말했다. "선녀님들께서 어명을 받들고 오셨으니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대성께서는 노니는 것을 워낙 좋아하시니, 아마 과원 밖으로 벗을 만나러 나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니 일단 복숭아부터 따십시오. 저희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선녀들은 말한 대로 숲으로 들어가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먼저 앞쪽에 있는 나무에서 두 바구니를 채웠고, 중간에 있는 나무에서는 세 바구니를 더 채웠다. 이어 뒤쪽 나무로 가서 살펴보니, 그 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드문드문하고 껍질이 푸른 덜 익은 열매 몇 개만 달려 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잘 익은 복숭아는 모두 손오공이 다 먹어 치운 것이었다. 일곱 선녀가 동서남북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다가, 남쪽 가지에 반쯤 붉고 반쯤 하얀 복숭아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푸른 옷을 입은 선녀가 손으로 가지를 끌어내리자, 붉은 옷을 입은 선녀가 복숭아를 따고는 다시 가지를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알고 보니 손오공이 변신해 있던 모습에 놀란 일곱 선녀가 잠에서 깨고 만 것이었다. 손오공은 즉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귀에서 여의금고봉을 훑 꺼냈다. 금고봉은 휘두를 때마다 그 크기가 사발만 했다가 커다란 기둥만 하게 변하더니, '탁!' 소리를 내며 말했다.

"네놈은 어느 쪽 괴물이기에 감히 내 복숭아를 훔쳐 따려 하느냐!"

겉에 질린 일곱 선녀는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성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는 요괴가 아니라, 서왕모께서 복숭아를 따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신 일곱 선녀입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 반도성회를 열려던 참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먼저 이 과원의

토지신 등을 만났으나 대성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혹여 서왕모님의 명을 늦게 받들까 두려워, 대성님을 찾지 못한 채 먼저 복숭아를 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화를 거두며 기쁜 듯이 물었다.

"선녀님들은 어서 일어나시오. 그런데 서왕모께서 잔치를 여신다면, 누구를 초대하신단 말ियो?"

선녀가 대답했다.

"잔치에는 늘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서쪽의 부처님과 보살님, 성스러운 승려와 나한님, 남쪽의 관음보살님, 동쪽의 승은성제와 십주삼도의 신선님들, 북쪽의 북극현령님, 중앙의 황극황각대선님까지, 이분들이 바로 오방오로라 불리는 큰 어른들이십니다. 또한 오두성군과 상팔동의 삼청, 사제, 태을천선 등 여러 신선님과 중팔동의 옥황상제, 구를, 해악의 신선님들, 하팔동의 유명교주와 주세지선님, 그리고 각 궁전과 전각의 크고 작은 신령님들이 모두 한데 모여 반도성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나도 초대받았소?"

선녀가 말했다.

"그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제천대성이다! 이 손오공을 잔치의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게 무엇이 어렵겠느냐?"

선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칙이라, 이번 잔치에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대들이 어찌 알겠소. 일단 거기 가만히 서 계시오. 내가 먼저 가서 소식을 좀 알아보고, 나를 초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 말이오."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선녀들에게 외쳤다.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이것이 바로 몸을 굳게 만드는 정신법(定身法)이었다. 그러자 일곱 선녀는 모두 눈을 부릅뜬 채 멍하니 복숭아나무 아래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오공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과원 밖으로 훌쩍 뛰어 올라 요지로 향하는 길로 달려갔다. 한창 길을 가던 중,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러했다.

상서로운 안개가 빛을 내며 넘실거리고, 오색 구름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네. 흰 학은 울음소리로 온 들판을 진동시키고, 자줏빛 영지는 빛깔을 뿜내며 만방에 퍼지네. 그 한가운데 신선 한 분이 나타나니, 모습 이 천연덕스럽고 풍채가 남다르구나. 무지개처럼 춤추며 하늘을 휘젓

고, 허리에는 변치 않는 보물 도록을 차고 있네. 이름은 적각대라선이
라, 복숭아 잔치에 수명을 더하러 특별히 오셨도다.

한편, 적각대선이 길을 가다 손오공과 딱 마주쳤다. 손오공은 고개를 숙여 꼬를 내더니, 진짜 신선을 숙여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손오공은 몰래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기에 슬쩍 물었다. “도사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적각대선이 대답했다. “서왕모님의 초대를 받아 반도 성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라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잘 몰랐군요. 옥황제께서 제가 운무를 타고 달리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며, 저더러 다섯 갈래 길로 신선들을 모두 초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먼저 통명전에 들러 예를 갖추는 뒤에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적각대선은 워낙 정직하고 대쪽 같은 성품이라, 손오공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했다. “평소에는 늘 요지에서 예를 갖추고 은혜에 보답해 왔거늘, 어찌 통명전에 먼저 들러 예를 갖추는 뒤에야 요지로 잔치를 가려 간단 말인가?”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적각대선은 결국 상서로운 구름을 돌려 통명전을 향해 곧장 떠나버렸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날아가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흔들며 순식간에 맨발의 신선 모습으로 변신하여 요지를 향해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물 누각에 다다른 손오공은 구름을 멈춰 세우고, 발걸음을 살며시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했다.

향기로운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상서로운 안개가 화려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요지 위에는 오색찬란한 비단이 깔려 있었고, 보물 누각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봉황과 난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은 아스라이 보이고, 금빛 꽃과 옥빛 꽃반침의 그림자가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안쪽에는 아홉 마리 봉황이 그려진 붉은 비단 병풍이 세워져 있었고, 여덟 가지 보물로 장식된 자줏빛 방석과 금칠을 한 오색 탁자, 그리고 천 송이 꽃이 담긴 푸른 옥 대접이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용의 간과 봉황의 골수, 곰의 앞발과 원숭이의 입술 같은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다. 온갖 맛있는 요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형형색색의 신선한 과일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아직 찾아온 신선은 아무도 없었다.

손오공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문득 코끝을 찌르는 진한 술 향기를 맡았다. 고개를 돌려 보니, 오른쪽 회랑 아래에서 술을 빚는 선관들과 술찌꺼기를 정리하는 역사들, 그리고 물을 나르는 도사들과 불을 지피는 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향아리를 씻고 단지를 닦으며 옥액경장(玉液瓊漿, 신선들이 마시는 향기로운 술)과 향기로운 명주를 막 만들어내고 있었다.

손오공은 입안에 침이 고여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먹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곧장 신통력을 발휘했다. 털을 몇 가닥 뽑아 입에 넣고 씹어 으갠 뒤, 주문을 외치며 혹 내뿜었다.

"변해라!"

그러자 털들이 순식간에 줄음 벌레들로 변해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 광경을 보라. 일을 하던 사람들은 손에 힘이 풀리고 고개가 떨궈지더니, 눈을 감은 채 들고 있던 도구마저 내팽개치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 틈을 타 손오공은 갖가지 진귀한 음식과 산해진미를 챙겨 회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러고는 항아리와 단지를 앞에 두고 마음껏 술을 들이켜며 호쾌하게 마셔댔다. 한참 동안 먹고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기운이 확 올라와 취기가 돌았다.

손오공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아차,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있다가 손님들이 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차라리 얼른 내 처소로 돌아가 잠이나 자는 게 낫겠다."

손오공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제멋대로 날뛰었다. 그러다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도착한 곳은 제천부가 아니라 도술천궁이었다. 그곳을 본 손오공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다.

"도술천궁은 삼십삼천 위쪽에 있고, 이한천에 계신 태상노군께서 계시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잘못 들어왔지? 뭐, 상관없다. 전부터 이 어르신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으니, 이번 기회에 취한 김에 얼굴이나 한번 뵙자꾸나."

손오공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태상노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사방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알고 보니 태

상노군은 연등불과 함께 3층 높이의 높은 누각인 주릉단대에서 도를 설파하고 있었고, 수많은 선동과 선장, 선관과 선리들이 좌우에 모여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단방 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태상노군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단로 옆 화로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로 양옆에는 호리병 다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두 정성껏 구워낸 금단이 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신선들의 지고한 보물이로구나! 나도 도를 깨우친 뒤로 안과 밖이 하나라는 이치를 알게 되었으니, 금단을 좀 구워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기회가 없었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운 좋게 마주치다니! 마침 노군도 없으니, 이 기회에 몇 알 가져다 맛이나 좀 봐야겠다.”

손오공은 호리병에 든 것들을 모조리 쏟아부어, 마치 붉은 콩을 먹듯 꿀꺽꿀꺽 삼켜버렸다.

이윽고 단약 기운이 뱃속에 가득 차오르자 술이 깨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가늠해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런, 큰일 났다! 이번 사고는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일이야. 만약 옥황제가 알게 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어. 어서, 어서 도망가자. 차라리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왕 노릇이나 하는 게 낫겠어.” 그는 곧장 도술천궁을 뺏쳐나왔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대신 서천문을 통해 은신법을 써서 달아났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화과산으로 돌아왔다. 산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창과 칼이 번뜩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네 건장(健將)과 72동 요

왕들이 무예를 닦으며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얘들아, 내가 왔다!” 요괴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던지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대성님,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저희를 버려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시다니요.” 손오공이 말했다. “금방 다시 올 거야, 금방 말이야.”

한편, 이야기는 계속되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네 명의 장수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한 뒤,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물었다. “대성께서 천계에 계신 지 벌써 백 년이 넘었다는데, 실제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기역하기로는 겨우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찌 백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가?” 장수가 말했다. “천계에서의 하루가 아래 세상에서는 일 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옥황제가 나를 아껴서 정말로 제천대성이라는 봉호를 내리고 제천부를 세워 주었지. 또 안정사와 영신사라는 두 관청을 만들어 신선 관리와 호위병을 두게 하더군. 나중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반도원을 관리하라고 하기도 했네. 그런데 얼마 전 서왕모가 반도 대회를 열었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더군.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요지로 쳐들어가서 그 귀한 음식과 신선들의 술을 모조리 훔쳐 먹어 버렸지. 요지를 나와 비틀거리며 걷다가 실수로 태상노군의 궁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가진 다섯 개의 금단까지 몽땅 먹어 치웠다네. 옥황제가 죄를 물을까 두려워 서둘러 천계 문을 빠져나온 것이야.”

요괴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곧바로 술과 과일을 차려 환영 잔치를 준비하더니, 커다란 사발에 코코넛 술을 가득 채워 올렸다. 손오공이 한 모금 들이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맛이 없구나, 맛이 없어!"

그러자 붕과 바가 말했다.

"대성께서는 천계에서 신선들의 술과 과일을 드셔 보셨으니, 이 코코넛 술이 입에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흔히들 '맛이 좋은지 아닌지는 고향 물을 마셔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 말은 '친한지 아닌지는 고향 사람을 보면 안다'는 뜻이구나. 내가 오늘 아침 요지에서 음식을 먹을 때 보니, 긴 회랑 아래에 병과 향아리가 아주 많더구나. 그것들이 모두 신선들이 마시는 옥액경장(玉液瓊漿, 신비롭고 맛있는 술)이었단 말이다. 너희는 아직 맛도 못 보았으니, 내가 다시 가서 몇 병 훔쳐 오마. 그때 너희가 반 잔씩 나누어 마시면, 하나같이 모두 불로장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 무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손오공은 즉시 동굴 밖으로 나와 근두운을 한 번 휩 날리더니 은신법을 써서 곧장 반도원 잔치 현장으로 날아갔다. 요지 궁궐 안으로 들어서니, 술을 빙거나 음식을 나르고 물을 길거나 불을 때던 일꾼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손오공은 큰 술병 두

개를 양옆구리에 끼고, 다른 두 개는 양손에 들고는 곧장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수렴동에 있던 원숭이 무리는 손오공이 가져온 술로 곧장 신선들의 잔치를 벌였고, 다 함께 술을 몇 잔씩 들이켜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일곱 선녀는 손오공의 정수법(몸을 굳게 만드는 술법)에 걸린 뒤, 한 바퀴를 돌아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선녀들은 꽃바구니를 들고 서왕모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제천대성이 술법을 부려 저희를 꼼짝 못 하게 가두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서왕모가 물었다.

"복숭아는 얼마나 땀느냐?"

선녀들이 대답했다.

"작은 복숭아는 두 바구니, 중간 크기 복숭아는 세 바구니뿐입니다. 나중에는 큰 복숭아가 반 개도 남지 않은 것을 보니, 아무래도 대성이 몰래 다 먹어치운 모양입니다. 저희가 복숭아를 찾는 와중에 갑자기 대성이 나타나 험악하게 굴며 저희를 몰아세우더니,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저희가 잔치에 관한 일을 전부 말해주자마자 저희를 굳게 만들어 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서왕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옥황제를 찾아가 그간의 일을 상세히 고했다. 이야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술을 빚는 관리들이 여러 신선과 함께 달려와 아뢰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반도대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옥액경장(玉液瓊漿, 신선들이 마시는 맑고 향기로운 술)을 훔쳐 마셨습니다. 게다가 진귀한 온갖 음식들까지 죄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때 네 명의 대천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태상노군께서 오셨습니다.”

옥황제는 즉시 서왕모와 함께 마중을 나갔다. 태상노군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린 뒤 입을 열었다.

“도인이 궁에서 구전금단(九轉金丹, 아홉 번 정제한 불로장생의 단약)을 몇 개 달여 폐하를 위한 단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이에 폐하께 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옥황제는 이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잠시 후, 제천부에서 온 신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손오공이 맡은 직무를 돌보지 않고 어제부터 유람을 떠나더니,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행방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옥황제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때 적각대선이 다시 정중히 아뢰었다.

“신이 서왕모의 부름을 받고 어제 모임에 참석하려던 중, 우연히 제천대성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만세(옥황제)의 명이 있으니, 먼저 통명전으로 가서 예를 갖춘 뒤에 모임에 참석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통명전 밖으로 돌아갔으나, 만세의 수레가 보이지 않아 급히 이곳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황제는 더욱 크게 놀라며 외쳤다.

“이놈이 가짜 명을 내려 현신을 속였구나! 어서 조사령관을 보내 저놈의 흔적을 살살이 뒤져 찾아내라!”

영관이 명을 받들어 즉시 전각 밖으로 나가 살살이 조사한 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돌아와 보고했다.

"천계를 어지럽히는 자는 바로 제천대성입니다."

영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했다. 이 말을 들은 옥황제는 크게 노하여 즉시 사대천왕을 보냈다. 여기에 이천왕과 나타 태자까지 합세하고, 이십팔수, 구요악성, 십이원진, 오방계제, 사치공조, 동서의 성두, 남북의 두 신, 오악과 사도,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스리는 신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다.

그렇게 총 십만 명의 천병이 결성되어 하늘과 땅을 촌촌히 에워싸는 거대한 그물을 펼친 채, 저놈을 반드시 붙잡아 처단하기 위해 화과산으로 내려가 포위망을 구축했다.

신선들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천궁을 떠났다. 그 행렬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황풍이 세차게 몰아쳐 하늘을 어둡게 가리고, 자줏빛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땅을 혼미하게 덮었다. 요괴 원숭이가 옥황제를 속인 탓에, 수많은 성현이 속세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사대천왕과 오방계제(다섯 방향을 수호하는 신들)가 함께 나섰다. 사대천왕은 천하를 통제하며 권세를 떨치고, 오방계제는 군사를 조율하며 나아갔다. 이탁답천왕이 중군을 맡아 지휘하고, 나타가 전방에서 선봉으로 앞장섰다. 나후성이 대열의 선두에서 점검을 맡고, 계도성이 그 뒤를 든든히 따랐다. 태음성은 정신을 가다듬어 기운차게 움직였고, 태양성은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갔다. 오행성들은 호걸답게 기세를 올렸으며, 구요악성들은 싸움을 즐기며 앞장섰다. 원진성(元辰星) 자, 오, 묘, 유의 별들은 하나같이 힘센 천병들이 되었고, 오온과 오악의 신들은 동서로 배치되었으며, 육정과 육갑의 신들은 좌우로 행렬했다. 사도룡신은 상하로 나뉘어 배치되었고, 이십팔수 성신들은 겹겹이 밀집하여 따랐다. 각, 항, 저, 방성이 대열을 이끌고, 규, 루, 위, 묘성은 거침없이 움직였다.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심, 미, 기성은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정, 귀, 유, 성, 장, 익, 진성 또한 창과 검을 휘두르며 위엄을 떨쳤다. 구름과 안개를 몰고 내려온 신선들이 속세에 임하여, 화과산 앞에 진을 쳤다.

시로 이르되,

하늘이 낸 원숭이 왕, 변화무쌍한 재주로 금단과 술을 흠쳐 먹으며 산굴에서 즐기더니 반도회를 어지럽힌 죄로 인해 십만 천병이 그물을 치듯 몰려왔구나.

이때 이천왕이 명령을 내려 천병들이 진을 치게 하니, 화과산은 물 한 방울 빠져나갈 틈도 없이 겹겹이 포위되었다. 위아래로 촘촘하게 하늘과 땅의 그물을 드리운 듯 포위망을 구축한 뒤, 먼저 구요악성을 출전시켰다. 구요악성이 군사를 이끌고 동굴 밖으로 들이닥치자, 동굴 밖에는 크고 작은 원숭이들이 뛰놀며 장난치고 있었다. 별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이 요괴 놈들아! 너희 대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상계에서 파견된 천신이다! 반역을 꾀하는 대성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대성을 불러 항복하게 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거부한다면 너희 모두를 몰살할 것이다!"

그 소리에 놀란 작은 요괴가 황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가 소리쳤다.

"대성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밖에서 흉악한 신들 아홉 명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은 상계에서 파견된 천신이라며 대성님을 항복시키겠다고 합니다!"

손오공은 일흔두 동의 요왕들과 네 명의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신선들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소식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도리어 큰소리로 말했다.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는 법, 문앞에서 옹고 그림을 따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요괴 하나가 뛰어 들어와 외쳤다.

"대성님! 저 아홉 명의 흉악한 신들이 문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시와 술로 오늘의 즐거움을 누릴 뿐, 공명은 언제 이룰지 묻지 마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작은 요괴가 달려와 보고했다.

"대성님! 저 아홉 신이 이미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손오공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무례한 신들이 감히! 본래는 상대해주려 하지 않았거늘, 어찌 감히 내 문 앞까지 와서 나를 능멸하느냐!"

손오공은 즉시 독각귀왕에게 명령했다.

"너는 일흔두 동의 요왕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진을 쳐라. 이 몸은 네 명의 장수를 데리고 뒤를 따르겠다!"

독각귀왕이 급히 요괴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으나, 아홉 명의 신들이 일제히 몰려와 공격하는 바람에 철판교 근처에서 막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버티고 서 있게 되었다.

한창 소란스러운 가운데 손오공이 나타났다. 손오공은 “길을 비켜라!”라고 크게 외치더니, 여의봉을 뽑아 들고 한 번 휘둘렀다. 여의봉은 굽기가 사발만 하고 길이는 한 길 두 자(丈二)나 되게 늘어났다. 손오공은 거침없이 달려들어 공격을 퍼부었다. 구요악성의 신들 중 그 누구도 손오공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한꺼번에 패퇴하고 말았다.

구요악성의 신들이 진형을 갖추고 간신히 버티며 소리쳤다. “이 죽을 줄 모르는 필마온(말을 돌보는 하급 관리) 놈아! 너는 열 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 먼저 복숭아를 훔치고, 그다음에는 술을 훔쳐 반도 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태상노군의 금단까지 훔쳐 갔고, 이제는 옥황제의 술까지 훔쳐 와서 여기서 즐기고 있구나. 죄가 겹치고 또 겹쳤는데도 정녕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 일들은 사실이다,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네가 어쩔 셈이냐?”

구요악성의 신이 대답했다. “우리는 옥황제의 엄명을 받들어 너를 행복시키러 왔다. 어서 빨리 항복하여 이 많은 생령이 목숨을 잃는 일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산을 평지로 만들고 동굴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것이다!”

손오공이 크게 노하여 외쳤다. “너희 같은 잡신들이 무슨 법력이 있다고 감히 망언을 내뱉느냐! 어디 가지 말고 내 몽둥이나 받아라!”

구요악성의 신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나, 손오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이리저리 막아냈다. 결국 구요악성의 신들은 손오공의 기세에 눌려 기진맥진해졌고, 무기를 끌며 패배하여 도망치듯 중군 진영으로 물러갔다. 그들은 이탁탑천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저 원숭이 왕이 정말로 용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패해서 돌아왔습니다!”

이탁탑천왕은 사대천왕과 이십팔수(하늘의 별자리 신들)를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맞서 싸우러 나왔다. 손오공 역시 조금도 겁내지 않고 독각귀왕과 72동 요왕, 그리고 네 명의 용맹한 장수를 불러내어 동굴 입구에 진을 쳤다. 이 혼전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아라.

찬 바람은 뽕뽕 불고 괴상한 안개는 자욱하게 깔렸다. 이쪽 진영의 깃발은 채색 빛을 휘날리고, 저쪽 진영의 창과 칼은 서슬 퍼런 빛을 내뿜었다. 투구는 번쩍이며 층층이 쌓인 갑옷은 눈부시게 빛났다. 구르는 투구의 광채가 태양에 부딪히니 마치 하늘을 울리는 은종 소리 같았고, 겹겹이 빛나는 갑옷은 마치 땅을 누르는 거대한 빙산 같았다. 커다란 칼은 구름을 가르고 번개가 치듯 휘둘러졌으며, 하얀 창은 안개를 뚫고 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방천극과 호안편, 마림창이 줄지어 늘어섰고, 청동검과 사명찰이 뱅뱅하게 진을 켜다. 활과 강한 노에서 날아가는 깃털 달린 화살, 짧은 몽둥이와 사모가 혼비백산할 기세로 몰아쳤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이리저리 구르며 천계의 신선들과 맞서 싸웠다.

싸움이 격렬해지니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고, 산속의 호랑이와 이리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다. 모래와 돌이 휘날리며 천지가 캄캄해지고, 흙먼지가 뿌러지며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졌다. 병기들이 부딪치는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듯 요란했고, 그 기세는 귀신조차 벌벌 떨게 할 만큼 위엄이 넘쳤다.

전투는 진시(오전 7시~9시)부터 시작되어 해가 서산으로 저물 때까지 혼란스러운 살육전이 이어졌다. 결국 독각귀왕과 72동의 요괴들은 모두 천신들에게 붙잡혀 갔다. 오직 네 명의 장수와 원숭이 무리만이 수렴동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겨 겨우 살아남았다.

손오공은 여의봉 하나로 사대천왕과 이탁탐천왕, 그리고 나타를 막아내며 공중에서 한참 동안이나 격렬하게 싸웠다. 싸우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본 손오공은, 즉시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잘게 씹어 뱉으며 크게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손오공이 나타났다. 분신들은 모두 똑같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나타를 물리치고, 다섯 명의 천왕을 패퇴시켰다.

손오공은 승리를 거두고 털을 거두어들인 뒤, 급히 몸을 돌려 동굴로 돌아갔다. 동굴 입구 철판교 근처에 이르니, 네 명의 장수가 무리를 이끌고 나와 손오공을 맞이하고 있었다. 원숭이 무리는 울먹이며 세 번 크게 울더니, 이내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세 번 크게 웃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희가 나를 보자마자 울다가 웃다가, 대체 왜 그러느냐?"

네 장수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장수들을 이끌고 천왕들과 싸웠는데, 72동의 요왕들과 독각귀왕이 모두 신선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 왔으니 울어야 마땅하고, 이제 대성께서 승리하여 다친 곳 하나 없이 돌아오신 것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상사(兵家常事)라 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 명을 죽여도 스스로 삼천 명의 손해를 입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붙잡혀 간 우두머리들이라 해봐야 호랑이, 표범, 늑대, 벌레 같은 요괴들일 뿐이다. 우리 동족 중 다친 이는 하나도 없으니 무엇을 그리 걱정하느냐? 비록 내가 분신술을 써서 그들을 물리치긴 했으나, 적들은 여전히 우리 산기슭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 방비를 단단히 하고, 배불리 먹고 폭 자면서 기운을 차려두자꾸나. 날이 밝으면 내가 신통력을 발휘해 저 천계의 장수들을 잡아다가 모두 복수를 해줄 테니 말이다."

네 장수와 원숭이 무리는 코코넛 술을 몇 사발 들이켜고는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

사대천왕이 군사를 거두고 전투를 멈추자, 장수들이 저마다 공을 보고했다. 어떤 이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사자와 코끼리를 잡았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늑대와 이리, 여우와 족제비

를 잡았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원숭이 요괴 놈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때 사대천왕은 다시 군영을 세우고 큰 진영을 차린 뒤, 큰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내렸다. 그러고는 천라지망(하늘과 땅의 그물처럼 빠져나갈 곳 없는 포위망)을 펼친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저마다 방울을 흔들며 크게 소리치게 하고 화과산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다. 내일 아침에 있을 대전을 기다리며 말이다. 명을 받은 병사들은 곳곳에서 삼엄하게 경계를 섰다.

이 상황을 시로 이르되,

요괴 원숭이가 난을 일으켜 천지를 놀라게 하니, 그물을 촘촘히 쳐 놓고 밤낮으로 감시하도다.

결국 날이 밝은 뒤에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회 — 관음이 모임에 가서 원인을 묻고, 소성(小聖)이 위엄을 펼쳐 대성(大聖)을 굴복시키다

觀音赴會問原因 小聖施威降大聖

천계의 신선들이 대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나, 대성이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은 일단 제쳐두자.

한편, 남해 보타락가산의 대자대비하고 구고구난하며 영험한 관세음보살은 서왕모의 초대를 받아 반도대회에 참석했다가, 큰제자인 혜안행자와 함께 요지의 보각에 올랐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이 어찌나 황량하고 어지러운지, 잔칫상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몇몇 천선들이 남아 있긴 했으나 모두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분주하게 모여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보살이 여러 신선과 인사를 나누자, 신선들은 앞서 일어난 일을 일제히 아뢰었다. 보살이 말했다. 「성대한 잔치도 없고 술잔을 돌릴 일

도 없으니, 그대들은 나를 따라가 옥황제를 뵙도록 하자.」 신선들은 기쁘게 보살을 따랐다.

통명전 앞에 이르니, 이미 사대천사(四大天師)와 적각대선 등이 모여 보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옥황제가 번뇌에 빠져 천병을 동원해 요괴를 잡으려 보냈으나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아뢰었다. 보살이 말했다. 「내가 옥황제를 만나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전해 주시오.」

천사 구홍제가 즉시 영소보전으로 들어가 옥황제에게 보살이 오셨음을 알렸다. 마침 그곳에는 태상노군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서왕모가 그 뒤에 머물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이 여러 동료들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 옥황제에게 예를 올린 뒤, 태상노군과 서왕모를 만나 함께 자리에 앉았다. 보살이 「반도대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옥황제가 대답했다.

「매년 잔치를 열어 즐거움을 누리 왔으나, 올해는 요괴 원숭이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잔치를 연 보람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 요괴 원숭이는 어디서 온 놈입니까?」

옥황제가 설명했다. 「그놈은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의 돌알에서 태어난 놈입니다. 태어날 당시 눈에서 금빛을 내뿜어 북두칠성을 꿰뚫을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했으나 곧 정령이 되어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제 명부의 기록까지 지워버렸습니다. 용왕과 염라대왕이 보고를 올리기에 짐이 직접 잡으려 했으나, 장경성이 나타나

'삼계 사이에서 아홉 구멍(눈, 코, 입, 귀 등)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고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그를 가르쳐 하늘로 불러올린 뒤, 어마감의 필마온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관직이 작다며 불평을 하더니 천계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천왕과 나타 태자를 보내 항복을 권하고, 다시 조서를 내려 달래며 하늘로 불러올린 뒤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다만 직함만 있을 뿐 녹봉은 주지 않았지요. 그놈은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동쪽과 서쪽을 떠돌아다니며 빈둥거렸습니다. 짐은 또 다른 사고를 칠까 염려되어 그에게 반도원을 관리하게 했으나, 그놈이 법도를 무시하고 오래된 나무의 복숭아를 모조리 훔쳐 먹었습니다. 마침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그놈은 녹봉을 받는 관리도 아니니 초대할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꾀를 내어 적각대선을 속인 뒤, 스스로 모습을 변하게 하여 잔치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신선들의 음식과 술을 모조리 훔쳐 먹고, 태상노군의 금단과 임금의 어주(御酒)까지 얼마간 훔쳐 달아나 화과산의 원숭이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짐은 이 일로 매우 번뇌하여 십만 천병을 동원해 그물을 치듯 살살이 뒤져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으니 승패가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보살이 이 말을 듣고 혜안행자에게 명했다.

「너는 어서 천계에서 내려가 화과산의 군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만약 적을 만나게 되면 힘을 보태어 공을 세우고, 반드시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혜안행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철봉을 왼 채 구름을 타고 궁궐을 떠나 산 앞으로 향했다. 산 주변에는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듯한 촘촘한 그물망처럼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각 진영의 문지기들은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쳐대느라 물 한 방울 빠져나갈 틈조차 없어 보였다. 혜안행자는 그곳에 멈춰 서서 외쳤다.

"진영의 천정(天丁, 하늘의 병사)은 내 말을 전하라! 나는 이천왕의 둘째 아들 목타이자, 남해 관세음보살의 제자인 혜안행자다. 군의 형편을 살피러 왔으니 길을 열라!"

그러자 진영을 지키던 오악신병들이 즉시 보고를 올렸다. 허일서, 묘일계, 성일마, 방일토가 그 말을 듣고 중군 장막 안으로 달려가 전했다. 이천왕은 깃발을 휘둘러 천라지망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마침 동쪽 하늘이 밝아오던 때라, 혜안행자는 깃발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사대천왕과 이천왕이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절을 마친 후 이천왕이 물었다.

"아들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혜안행자가 대답했다.

"부족한 제자가 보살님을 따라 반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성대한 잔치 자리가 황폐해지고 요지가 적막해진 것을 보시고는, 여러 신선과 저를 데리고 옥황제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옥황제님께서 아버지님을 비롯한 신선들이 요괴 원숭이를 잡으러 아래 세상으로 내려갔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승패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이에 보살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천왕이 말했다.

"어제 이곳에 진을 치고 구요성을 보내 도전하게 했으나, 그놈이 신통력을 부리는 바람에 구요성들이 모두 패하여 도망쳐 돌아왔다. 그 후 우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놈 역시 진을 치고 맞서더군요. 우리 십만 천병이 밤늦도록 혼전(混戰)을 벌였으나, 그놈이 분신술을 써서 우리를 물리쳤다. 군사를 거두어 살피니 늑대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만 잡혔을 뿐, 그 요괴 원숭이는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오늘은 아직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진영 밖에서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그 제천대성이 원숭이 떼를 이끌고 밖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천왕과 이천왕, 그리고 나타가 출병을 논의하고 있을 때, 목타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보살님의 명을 받들어 소식을 살피러 내려왔습니다.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힘을 보태라고 하셨지요. 지금 제가 직접 가서 그 대성이라는 자가 어떤 놈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천왕이 말했다. "얘야, 네가 보살님을 따라 수행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으니 분명 신통력도 제법 갖추었을 터다. 하지만 반드시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타는 양손에 철봉을 휘두르고 수놓은 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수레 문 밖으로 뛰어 나오며 크게 외쳤다. 「저기 있는 자가 제천대성인가?」

손오공이 여의봉을 곳곳이 세우며 대답했다. 「이 몸이 바로 손오공이다. 네놈은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묻느냐?」

목차가 말했다. 「나는 이천왕의 둘째 아들인 목차다.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보좌 앞에서 스승님을 도와 교법을 수호하고 있으며, 범명은 해안이다.」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남해에서 수행이나 할 것이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목차가 대답했다.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군사 정보를 살피러 왔다가, 네놈이 이토록 날뛰는 것을 보고 너를 붙잡으러 왔다.」

손오공이 외쳤다. 「감히 그런 큰소리를 치다니, 어디 도망갈 생각마라. 이 손오공의 몽둥이 맛을 봐라!」

목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철봉을 휘둘러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산 중턱의 수레 문 밖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몽둥이와 몽둥이가 맞붙으나 쇠는 그 내력이 각기 다르고, 병장기가 부딪치나 싸우는 이는 서로 다르구나. 한 명은 태을산선이라 불리는 대성이고, 한 명은 관음보살의 제자인 정원룡이라.

천 번의 망치질과 육정육갑의 신통력으로 단단히 만든 철몽둥이와, 천하를 진정시키고 바다를 다스리는 법력이 깃든 여의봉이 만났다. 두 사람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라, 오가는 초식이 끝이 없구나.

한쪽의 은밀한 몽둥이질은 바람처럼 빠르고 흥맹하며, 허리를 휘감아 밧줄을 던지듯 매섭도다. 다른 쪽의 찌르기 섞인 몽둥이질은 빈틈이 없어, 좌우를 막아내니 어찌 맞설 수 있으랴.

진영에는 깃발이 번쩍이고, 북소리는 둥둥 울려 퍼지는데, 수만 명의 천장이 겹겹이 에워싸고, 수많은 요괴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드네. 괴이한 안개와 슬픈 구름은 땅을 뒤덮고, 살벌한 기운은 하늘 궁궐까지 뻗치도다.

어제의 혼전도 대단했으나, 오늘의 다툼은 더욱 흥포하구나. 원숭이 왕의 참된 재주가 부럽기만 하니, 목차는 또다시 패하여 달아나고 있다.

제천대성과 해안행자가 쉰 혹은 예순 합가량 격렬하게 맞붙으니, 해안행자는 팔이 저리고 마비되어 더는 적을 상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몸을 한 번 휘익 돌리더니 패배하여 물러나 버렸다. 그사이 제천대성도 원숭이 병사들을 거두어 수렴동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한편, 천왕의 군영 입구에서는 크고 작은 천계 병사들이 나타를 받아내며 길을 터주었다. 나타는 대로를 따라 곧장 막사 안으로 들어서며, 사천왕과 이천왕, 나타를 마주한 이들에게 숨을 헐떡이며 분통을 터뜨리듯 말했다. "그 제천대성이라는 놈, 정말 대단합니다! 신통력이

어찌나 광대하고 무시무시한지, 제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천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력귀왕과 혜안행자를 천계로 보내 옥황제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천라지망(하늘과 땅이 얹힌 듯한 촘촘한 결계)을 뚫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통명전에 다다라 사대천사를 만난 뒤, 영소보전으로 안내되어 상소문을 올렸다. 혜안행자가 관세음보살에게 예를 갖추자, 보살이 물었다.

「조사해 보니 상황이 어떠하냐?」

혜안행자가 대답했다.

「명을 받자마자 곧장 화과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라지망의 문을 열게 한 뒤 아버님을 뵙고 스승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그 원숭이 왕과 한바탕 싸웠는데, 호랑이나 표범, 사자, 코끼리 같은 짐승들만 잡았지, 그 원숭이 정령 하나는 잡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놈이 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철봉을 들고 그와 오륙십 합을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고 패하여 진영으로 물러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이 때문에 대력귀왕을 보내 저와 함께 천계로 올라와 도움을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 옥황제가 상소문을 펼쳐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옥황제는 웃으며 말했다. 「이 영악한 원숭이 녀석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수단을 가졌기에 감히 십만 천병에 맞서겠단 말인가? 이천왕이 또 도움을 청하다니, 그럼 어느 신병을 보내 도와주어야 한단 말인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세음보살이 합장하며 아뢰었다. 「폐하, 안심하십시오. 소승이 한 신선을 추천하니, 그가 저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옥황제가 물었다. 「어떤 신선을 말하는 것이냐?」

보살이 대답했다. 「바로 폐하의 조카이신 현성이랑진군입니다. 그는 관주(灌洲) 관강구(灌江口)에 거주하며 아래 세상의 향불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여섯 요괴를 힘으로 물리친 적이 있으며, 메산 형제들과 장막 앞의 초두신 천이백 명을 거느리고 있어 신통력이 매우 광대합니다. 다만 그는 동원령(調)에는 응하나 부름(宣)에는 응하지 않으니, 폐하께서 군사를 움직이라는 조서를 내리시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옥황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를 움직이라는 조서를 내리고, 대력귀왕을 보내 조서를 전하게 했다.

이 대력귀왕은 명을 받들자마자 곧장 구름을 타고 관강구로 향했다. 채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이랑진군의 사당에 도착했다. 사당을 지키던 귀판(鬼判)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밖에 천계의 천사가 조서를 받들고 왔습니다!」 이랑진군은 즉시 형제들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 조

서를 맞이하고, 향을 피운 뒤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화과산의 요괴 원숭이 제천대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궁궐에서 복숭아와 술, 그리고 단약을 훔쳐 먹어 반도대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십만 천병과 열여덟 겹의 천라지망을 동원해 산을 포위하고 제압하려 했으나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이에 특별히 현명한 조카와 의형제들을 불러 화과산으로 보내 요괴를 토벌하는 데 힘을 보태게 하노니, 성공한다면 지위를 높여주고 큰 상을 내리겠다.」

이랑진군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천사는 물러가시오. 내가 당장 가서 칼을 뽑아 뚫겠소!」 대력귀왕은 (천계로) 돌아가 보고를 올렸으니,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는다.

이랑진군은 메산육형제인 강, 장, 요, 이 사태위와 곽신, 직건 두 장군을 불러 전각 앞에 모이게 한 뒤 말했다. 「방금 옥황제께서 우리에게 화과산으로 가서 요괴 원숭이를 잡아 오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다 함께 가자.」 형제들은 모두 기뻐하며 가겠다고 응했다. 곧바로 부하 신병들을 점검하고, 매를 몰아 개를 이끌며, 활과 노를 챙겨 들고 광풍을 일으키며 날아갔다. 순식간에 동양의 넓은 바다를 건너 화과산에 당도했다.

그곳에는 천라지망(하늘과 땅을 덮는 촘촘한 그물)이 겹겹이 쳐져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에 이랑진군이 외쳤다. 「천라지망을 지키는 신장들은 들어라! 나는 옥황제의 명을 받아 요괴 원숭이를 잡으러 온 이랑진군이다. 어서 진영의 문을 열어 길을 비켜라!」 명령

은 순식간에 층층이 전달되었다. 사대천왕과 이천왕이 모두 진영 문밖으로 나와 맞이했다. 서로 대면한 후 승패에 대해 묻자, 천왕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랑진군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저놈과 변신술 대결을 펼치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천라지마의 윗부분은 덮지 말고 사방만 촘촘히 둘러서 내가 승부를 겨룰 수 있게 해다오. 만약 내가 저놈에게 진다면 여러분이 도와줄 필요 없다. 나를 도울 형제들이 따로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내가 이긴다면 여러분이 저놈을 묶을 필요도 없다. 내 형제들이 알아서 손을 쓸 것이다. 다만, 탁탐천왕께서는 나를 도와 요괴를 비추는 거울인 조요경을 들고 공중에 서 계셔 주시오. 저놈이 한 번 패한 뒤에 다른 곳으로 도망칠까 두려우니, 반드시 거울로 환히 비추어 저놈이 달아나지 못하게 해 주셔야 하오.」

천왕은 사방의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고, 신병들은 각자 줄을 맞춰 진을 쳤다.

이랑진군은 네 명의 태위와 두 장군, 그리고 형제 일곱 명을 거느리고 진영을 나서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장수들에게는 진영을 굳게 지키고 매와 사냥개를 빠짐없이 거두어 두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초두신이 명을 받들었다. 이랑진군이 수렴동 밖에 이르니, 원숭이 무리가 마치 하늘을 나는 용이 몸을 튼 것처럼 반룡진을 짜고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중군에는 깃대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제천대성'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랑진군이 보고 말했다. 「저 망나니 요괴가 어찌 감히 제천이라는 직함을 칭한단 말인가?」 그러자 메산의 여섯 형제가 말했다. 「칭찬은 나중에 하시고,

어서 싸우러 갑시다.」 진영 입구를 지키던 어린 원숭이가 이랑진군을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가 소식을 알렸다. 손오공은 즉시 금고봉을 움켜쥐고 황금 갑옷을 갖춰 입은 뒤, 구름을 밟는 신발을 신고 자금관을 고쳐 썼다. 그리고 진영 문을 박차고 나가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이랑진군의 용모는 과연 기품이 넘쳤고 차림새 또한 수려했다.

시로 이르되,

용모는 맑고 준수하며 위엄이 당당하고, 두 귀는 어깨에 닿을 듯하며 눈빛은 형형하구나. 머리에는 삼산비봉모를 쓰고, 몸에는 연한 거위 빛 황색 옷을 입었네. 금실로 수놓은 장화에 반룡문 양말을 신었고, 옥띠는 꽃무늬와 팔보로 장식하였구나. 허리에는 초승달 모양의 탄궁을 차고, 손에는 삼첨양인창을 들었네. 도끼로 도산(桃山)을 쪼개어 일찍이 어머니를 구하고, 탄궁으로 쏘아 쌍봉황을 떨어뜨린 용맹함이라. 여덟 괴물을 물리친 명성은 멀리 퍼졌고, 메산의 일곱 성인과 의리로 맺었도다. 높은 뜻은 천가의 권속임을 인정치 않으며, 오만한 성품으로 신이 되어 관강구에 머무네. 적성의 소혜로운 영험한 성자시니, 그 신통력이 끝이 없어 이랑진군이라 부르노라.

손오공은 그를 보자 싱글벙글 웃으며 금고봉을 획 뽑아 들고는 크게 외쳤다. “네놈은 어느 동네의 애송이 장수길래 감히 여기까지 와서 대들며 도전하느냐?”

이랑진군이 호통을 쳤다. “이놈이 눈이 멀었구나,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옥황제의 외조카이자 소혜영현왕으로 봉해진 이랑진군이다! 지

금 옥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궁에 반역을 꾀한 비마온 원숭이 놈을 잡으러 왔거늘, 네놈은 아직도 죽고 사는 법을 모르는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기억하기로 예전에 옥황제의 누이가 속세의 삶을 그리워해 아래로 내려와 양 장군과 함께 아들을 낳고, 도끼로 북숭아 산을 쪼개버렸던 게 바로 너였느냐? 너를 몇 마디 욕해주고 싶지만 딱히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한 대 때려주자니 네 목숨이 아깝구나. 이 애송아, 어서 돌아가서 네 사천왕을 불러오너라!”

그 말을 들은 이랑진군은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라 외쳤다. “이 망할 원숭이 놈!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 칼날 맛을 좀 봐라!”

손오공은 몸을 옆으로 비켜 공격을 피하더니, 재빨리 금고봉을 치켜들어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소혜영현왕 이랑진군과 제천대성 손오공이 만났으니, 한 명은 기세 등등해 적을 압도하는 미후왕이요, 다른 한 명은 낮선 기세로 기동처럼 버티는 진군이라. 처음 마주한 두 사람, 서로 승부를 겨루고 싶어 안달이니, 그동안 실력이 어땠는지 알 길 없다가 오늘에서야 무게를 가늠하네. 쇠몽둥이는 날아다니는 용처럼 휘둘러지고, 신령한 칼날은 춤추는 봉황 같구나. 왼쪽을 막고 오른쪽을 치며, 앞을 맞서고 뒤를 비추니, 한쪽에서는 메산육형제가 기운을 북돋우고, 다른 쪽에서는 마류사장이 군령을 전하네. 깃발 흔들고 북을 울리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성을 지르고 징과 팽과리를 치며 흥을 돋우네. 강철 같은 칼날이 기회를 엿보며 주고받는 공격에 빈틈이 없으니, 금고봉은 바다의 보물이

며 변화무쌍한 재주로 승부를 가르려 하네. 만약 몸놀림이 늦어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리라.

이랑진군과 손오공은 삼백 합이 넘도록 격렬하게 싸웠으나,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랑진군이 신통력을 떨치며 몸을 흔들며 변신하니, 그 키가 만 장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두 손에는 삼점양인신봉을 높이 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화산의 봉우리처럼 웅장했다. 그는 푸른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내고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험악한 기세로 손오공을 향해 내리쳤다.

손오공 역시 신통력을 부려 이랑진군과 똑같은 몸집과 얼굴로 변신했다. 그리고 여의금고봉을 치켜드니, 그것은 마치 곤륜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이랑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마원과 유원 장수는 겁에 질려 깃발조차 흔들지 못했고, 봉 장군과 파 장군은 다리가 풀려 칼과 창을 휘두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때 진영에서는 강, 장, 요, 이, 관신, 직건이 신호를 보내며 초두신들을 풀어놓고, 수렴동 밖으로 사냥개와 매를 날려 보냈으며, 활과 노를 쏘아 일제히 습격했다. 안타깝게도 요괴 손오공을 지키던 네 명의 장수는 흩어졌고, 영험한 요괴(원숭이) 이삼천 명은 붙잡히고 말았다. 원숭이들은 무기를 버리고 창과 칼을 내팽개친 채, 도망치는 놈은 도망치고 비명을 지르는 놈은 비명을 지르며 산으로 올라가거나 동굴로 숨기 바빴다. 그 모습이 마치 밤중에 잠든 새가 놀라 하늘 가득 별처럼 흩어지는 듯했다. (이랑의) 형제들은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이야기는 더하지 않는다.

한편, 이랑진군과 손오공이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는 법천상지(法天象地)의 술법을 쓰며 한창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다. 손오공은 문득 자신의 본거지에 있던 원숭이들이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거대한 몸집을 거두고는 여의봉을 휘두르며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랑진군은 손오공이 패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고 성큼성큼 뒤쫓으며 외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어서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손오공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도망칠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길을 막아선 강, 장, 요, 이 사태위와 괄신, 직건 두 장군을 마주치고 말았다. 그들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원숭이 놈! 어디를 가느냐!」

손오공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재빨리 여의봉을 자수바늘처럼 작게 만들어 귓속에 숨겼다. 그리고는 몸을 흔들여 참새 한 마리로 변신하더니 나뭇가지 끝에 내려앉아 가만히 멈춰 섰다. 메산육형제는 허둥지둥 앞뒤로 살살이 뒤졌으나 손오공을 찾지 못하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이 영악한 원숭이 놈이 도망갔구나! 아주 도망가 버렸어!」

한창 소란을 피우던 중에 이랑진군이 도착하여 물었다. "형제들이여, 저쪽으로 쫓아갔다더니 왜 보이지 않는가?" 신선들이 대답했다. "방금 여기서 포위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랑진군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손오공이 참새로 변해 나무 위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랑진군은 즉시 거대한 법상을 거두고, 신비로운 창을 내려놓은 뒤 새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몸을 흔들며 매로 변신하더니,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 덮치려 했다. 손오공이 이를 보고는 썩 하고 날아오르더니, 커다란 황새로 변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갔다. 이랑진군이 이를 보고 급히 깃털을 떨며 몸을 흔들며 커다란 바다 학으로 변신하여,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 부리로 쪼려 했다.

손오공은 다시 몸을 낮추어 계곡물로 뛰어들더니, 물고기로 변해 물속으로 쭉 들어가 버렸다. 이랑진군이 계곡가까지 쫓아갔으나 이미 흔적도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원숭이 녀석이 분명 물로 도망쳤구나. 틀림없이 물고기나 새우 같은 것으로 변했을 거야. 내가 다시 변신해서 잡아야겠다.'

그는 즉시 물수리(물고기를 잡는 매)로 변신하여 물결 위를 떠다니며 잠시 기다렸다. 손오공이 물고기로 변해 물살을 따라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보였다. 청매가(매) 같기도 하고, 깃털은 푸르지 않았으며, 백로 같기도 했으나 머리에 장식 깃털이 없었고, 황새 같기도 했으나 다리가 붉지 않았다. '분명 이랑진군이 나를 기다리려고 변신한 것이로구나!' 손오공은 급히 몸을 돌려 요리조리 헤엄쳐 달아났다.

이랑진군이 그 물고기를 보고 말했다. '요리조리 도망가는 저 물고기를 보니, 잉어 같으나 꼬리가 붉지 않고, 송어 같으나 비늘의 무늬가 없으며, 검은 물고기 같으나 머리에 별 모양이 없고, 잉어 같으나 아가미

에 가시가 없구나. 어찌하여 나를 보자마자 도망치는가? 필시 저 원숭이가 변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즉시 뒤쫓아가 부리로 덩석 쪼았다. 그러자 손오공은 물 밖으로 튀어 나가더니, 물뱀으로 변해 강가 풀숲 사이로 숨어버렸다. 이랑진군이 부리로 쪼려 했으나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물소리가 나며 뱀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오공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머리 윗부분이 붉은 회색 학으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긴 부리를 마치 뽕죽한 철제 집게처럼 만들어 그 물뱀을 잡아먹으려 했다.

물뱀은 폴짝 뛰더니 이번에는 꽃도요로 변해, 아주 멍청한 모습으로 물가 풀밭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랑진군은 손오공이 꽃도요처럼 천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는(꽃도요는 새들 중에서도 아주 천하고 음란한 새로 여겨져, 난새나 봉황, 매나 까마귀 같은 고귀한 새들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물러난 뒤, 새총을 가져와 시위를 팽팽히 당겨 돌을 쏘아 날렸으니, 그 돌에 맞은 손오공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렸다.

제천대성은 기회를 틈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더니, 그곳에 엎드려 다시 변신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은 사당으로 변했는데, 입을 크게 벌려 사당의 문으로 삼고, 이빨은 문짝으로, 혀는 보살로, 눈은 창살로 바꾸었다. 다만 꼬리를 처리하기가 마땅치 않아 뒤에 꽃꽂이 세워 깃대처럼 만들었다.

이랑진군이 절벽 아래로 달려 내려갔으나, 쓰러진 새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작은 사당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진군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뒤에 깃대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구나! 또 나를 속이려 드는군. 사당은 많이 보았어도 뒤에 깃대가 서 있는 사당은 본 적이 없다. 필시 이 짐승이 장난을 치는 것이로다. 만약 내가 속아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놈이 단번에 나를 물어뜯으려 들겠지. 내가 어찌 속아 들어가겠느냐? 우선 주먹으로 창살부터 치고, 그다음 문짝을 걷어차 주리라."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속으로 생각했다. '아차, 정말 지독하구나! 문짝은 내 이빨이고 창살은 내 눈인데, 만약 이빨을 맞거나 눈을 찔리기라도 하면 어찌란 말인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손오공은 호랑이처럼 꺾충 뛰어올라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랑진군이 앞뒤로 정신없이 뒤쫓았으나, 이미 사태위와 두 장군이 한꺼번에 달려와 물었다. "형님, 제천대성을 잡았습니까?" 이랑진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원숭이 놈이 방금 사당으로 변신해서 나를 속이려 들더구나. 내가 막 창살을 부수고 문짝을 걷어차려 하니, 썩새게 몸을 날려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참으로 괴이하고도 괴이한 일이로다!" 모두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랑진군이 다시 말했다. "형제들은 이곳을 지키며 순찰하라. 나는 다시 올라가서 그놈을 찾아보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이랑진군은 급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공중에 올라가 보니, 이천왕이 요괴를 비추는 거울인 조요경을 높이 치켜든 채 나타나 함께 구름 위에 서 있었다. 이랑진군이 물었다. "천왕님, 혹시 그 원숭이 왕을 보셨습니까?" 이천왕이 대답했다. "아직 올라오지 못했네. 나는 여기서 계속 비추고 있다네." 이랑진군은 원숭이가 온갖 변신

술과 신통력을 부리며 원숭이 떼를 데리고 난동을 피운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놈이 사당으로 변신하더니, 막 싸우려던 찰나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천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요경을 사방으로 비추어 보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다. "진군, 어서 가보게, 어서! 그 원숭이가 은신술을 써서 진영을 빠져나갔네. 자네가 있는 관강구 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양이야." 이랑진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신검을 챙겨 들고 관강구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다.

한편, 손오공은 이미 관강구에 이르자 몸을 흔들어 이랑진군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구름을 타고 내려가 사당 안으로 쑥 들어갔다. 사당을 지키던 귀관(저승의 판관)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했다. 손오공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 향불을 올린 이들의 명단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이호가 제사를 지내며 바친 삼생의 제물, 장룡이 복을 빌며 올린 서원, 조갑이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쓴 문서, 전병이 병이 낫기를 바라며 올린 간절한 기도문 등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또 다른 주인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귀관들이 급히 살펴보니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었다. 이랑진군이 다급히 물었다. "제천대성이라는 자가 방금 이곳에 왔느냐?" 귀관들이 대답했다. "대성이라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안에서 명부를 살피고 계신 주인님 한 분뿐입니다."

이랑진군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손오공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말했다. "이보게, 소란 피울 것 없네. 이제 이 사당은 손 씨 성을 쓰게 되었으니 말이야!" 이랑진군은 즉시 삼첨양인검을 들어 손오공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원숭이 왕 손오공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신검을 피하더니, 곧바로 여의봉을 뽑아 들었다. 여의봉은 휘둘러 때마다 그릇만큼 굽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며 손오공의 눈앞에서 번뜩였다. 두 사람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다가 사당 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안개와 구름 사이로 한참을 싸우며 나아가던 싸움은 결국 화과산까지 이어졌다.

이 소동에 놀란 사천왕과 신선들은 방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 강 태위와 장 태위 등은 이랑진군을 맞이하여 힘을 합쳐 미후왕을 겹겹이 에워싸고 몰아붙였다.

한편, 대력귀왕은 이랑진군과 메산 육형제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요괴를 잡으러 가라고 명한 뒤, 천계로 올라가 보고를 올렸다. 당시 옥황제는 관세음보살, 서왕모, 그리고 여러 신선과 함께 영소보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옥황제가 말했다. "이랑진군이 이미 싸우러 떠났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합장하며 말했다. "빈승이 청하옵건대, 폐하께서 도조(태상노군)와 함께 남천문 밖으로 나가셔서 직접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황제가 대답했다. "그 말이 옳다."

옥황제는 즉시 가마를 띄워 도조, 관세음보살, 서왕모, 그리고 여러 신선과 함께 남천문으로 향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천정(하늘의 병사)과 역사들이 마중 나와 문을 열고 멀리 상황을 살폈다.

보니, 수많은 천정은 사방을 에워싸며 그물을 펼쳐놓았고, 이천왕과 나타는 요괴를 비추는 거울인 조요경을 높이 든 채 공중에 서 있었다. 이랑진군은 제천대성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신선들이 한데 어우러져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이 태상노군에게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추천한 이랑진군은 어떻습니까? 과연 신통력이 대단하여 그 제천대성을 포위해 두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힘을 보태면 반드시 그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상노군이 물었다. “보살께서는 어떤 병기를 쓰시려고,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겁니까?”

관세음보살이 대답했다. “제가 이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저 아래로 던져서 그 원숭이 놈을 때리려 합니다. 설령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 크게 넘어뜨릴 수 있다면, 이랑진군이 그를 붙잡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보살의 그 병기는 자기로 만든 것이라, 부디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원숭이의 머리에 맞지 않고 그놈의 철봉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보살께서는 일단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 노군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병기가 있습니까?”

태상노군이 대답했다. “있고말고요, 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왼쪽 팔에서 고리 모양의 물건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

병기는 강철을 두드려 만든 것으로, 내가 환단(불로장생의 단약)을 떨어뜨려 영기(신령한 기운)를 가득 채워 길러낸 것입니다. 변화무쌍하여 물과 불에도 상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씹을 수 있지요. 이름은 ‘금강탁’이라 하고, ‘금강套(금강투)’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 함관을 지나며 불교를 전파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물건이지요. 밤낮으로 몸을 지키기에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내가 저 아래로 던져서 한 대 때려주리다.”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 문 위에서 무언가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려 오더니, 화과산의 진영 안으로 곧장 날아와 손오공의 머리 위를 정통으로 때렸다. 손오공은 일곱 신선과 고전하느라 정신이 팔려 하늘에서 무기가 떨어져 내려와 정수리를 강타한 줄도 몰랐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손오공은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이랑진군의 사나운 개가 뒤쫓아와 종아리를 짹 물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땅바닥에 엎어진 손오공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 망할 놈의 개새끼! 집안 어른들을 괴롭히지는 못할망정, 감히 이 몸을 물어?"

손오공이 몸을 뒤집어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일곱 신선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짓눌렀다. 신선들은 곧바로 밧줄로 손오공을 꼼꼼 묶더니, 갈고리 칼을 사용해 그의 비파골(어깨와 척추 사이의 뼈)을 꿰뚫어버렸다. 이로써 손오공은 더 이상 어떤 변신술도 쓸 수 없게 되었다.

태상노군이 금강탁을 거두고 옥황제와 관세음보살, 서왕모, 그리고 여러 신선을 모시고 모두 영소보전으로 돌아갔다. 그사이 사천왕과 이천왕을 비롯한 여러 신들은 군대를 거두고 진영을 정리한 뒤, 소성(小聖, 이랑진군)에게 다가가 축하를 건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소성, 그대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소성(이랑진군)이 대답했다. 「이것은 모두 천존의 크나큰 복덕과 여러 신의 위엄 덕분이지, 내게 무슨 공이 있겠소?」 그러자 강, 장, 요, 이 네 태위가 말했다. 「형님, 긴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우선 이놈을 압송하여 천계로 올라가 옥황제를 뵙고, 처분을 받도록 합시다.」 이랑진군이 말했다. 「아우들아, 너희는 아직 천록(天籙)을 받지 못했으니 옥황제를 직접 뵈 수는 없다. 천갑신병들을 시켜 이놈을 압송하게 하고, 나는 천왕 등과 함께 올라가 명을 받들어 오겠다. 너희는 이곳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살살이 수색한 뒤, 다 끝나면 관구로 돌아가 있거라. 내가 상을 받고 공을 인정받으면, 다시 돌아와 함께 즐기자꾸나.」 네 태위와 두 장군은 그 말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랑진군은 신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승전가를 부르며 천계를 향해 힘차게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명전 밖에 다다르자, 천사가 보고했다. 「사천왕 일행이 요괴 원숭이 제천대성을 붙잡아 왔으니, 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옥황제가 조서를 내려 대력귀왕과 천정 등에게 명하여, 손오공을 참요대에 압송하고 그 시신을 갈기갈기 다져버리게 했다.

아아, 시로 이르되, 속임수를 쓰다 이제 형벌의 고통을 겪으니, 영웅의 기개도 이 한때에 그치는구나.

결국 저 원숭이 왕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회 — 팔괘로에서 손오공이 빠져나오고, 오행산 아래 마음의 원숭이를 가두다

八卦爐中逃大聖 五行山下定心猿

부귀와 공명은 전생의 인연에 따라 정해진 것이니, 사람은 모름지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정대광명하게 살아야 충성스럽고 어질며 선한 과보도 깊어지는 법이다.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하늘이 반드시 꾸짖으리니, 지금 당장 재앙을 만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닥쳐올 것이다. 동쪽의 신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지금 이토록 화를 입어 재앙이 침범하는가? 그것은 오직 마음이 너무 높아 끝없는 욕심을 품고, 위아래의 질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도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제천대성 손오공은 천병들에게 붙잡혀 요괴를 처단하는 단 아래로 끌려갔다. 그들은 손오공을 향요주에 묶어 놓고 칼로 베고 도끼로 찍으며, 창으로 찌르고 칼로 도려내려 했으나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입힐 수 없었다. 남두성이 명령을 내려 화부의 신들에게 불을 놓아 구워보게 했으나 역시 태울 수 없었다. 또한 뇌부의 신들

에게 명하여 벼락을 내려 두들겨 보게 했으나, 손오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이에 힘센 귀왕이 여러 신과 함께 옥황제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저 대성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호신술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칼로 베고 도끼로 찍으며 불로 태우고 벼락으로 내리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옥황제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이놈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대체 어떻게 처치해야겠느냐?"

그러자 태상노군이 즉시 아뢰었다. "저 원숭이가 복숭아를 먹고 천계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제 선단까지 훔쳐 먹었습니다. 제 금단 다섯 병 중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모조리 배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삼매화로 녹여 한 덩어리로 단련해 버렸으니, 몸 전체가 금강처럼 단단해져서 쉽게 상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따라가게 하여 팔괘로 속에 넣고 문무화(약한 불과 센 불)로 단련하게 하소서. 제 단약을 다시 뽑아내고 나면, 저놈의 몸은 저절로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옥황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육정과 육갑에게 명하여 손오공을 묶은 줄을 풀게 한 뒤 태상노군에게 넘겨주었다. 태상노군은 명을 받들어 떠났다.

한편, 이랑진군에게는 금꽃 백 송이, 천계의 술 백 병, 환단 백 알, 신비한 보물인 명주와 비단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상으로 내리며 의형제

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이랑진군은 은혜에 감사하며 관강구로 돌아갔고,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상노군이 도솔천궁에 이르러 손오공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비파골(척추 마디를 꿰뚫는 도구)을 뽑아낸 뒤 그를 팔괘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화로를 지키는 도인과 불을 지피는 동자에게 명하여 불을 세게 지펴 단련하게 했다. 본래 이 화로는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의 여덟 가지 팔괘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오공은 그중 손(巽)의 자리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다. 손은 바람을 뜻하니, 바람이 불면 불길이 사그라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닥칠 때마다 연기가 휘몰아치며 손오공의 두 눈을 붉게 달구어 놓는 바람에, 마치 병든 눈처럼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화안금정(불꽃이 서린 금빛 눈)'이라 부르게 되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어느덧 마흔아홉 날이 지났고, 태상노군의 불길도 충분히 달아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단약을 꺼내기 위해 화로를 열었다. 손오공은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쥔 채 눈물을 닦으며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로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번쩍 뜨니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몸을 획 날려 단약 화로에서 튀어나오더니, 콧광 하는 소리와 함께 팔괘로를 걷어차 버리고는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당황한 불지기들과 화로를 살피던 관리들, 그리고 무기를 든 병사들이 달려들어 말리려 했으나, 손오공은 마치 미친 백호나 광풍을 몰고 오는 외뿔 용처럼 그들을 하나하나 다 쓰러뜨렸다. 태상노군이 급히 달려와 손오공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오공이 그를 획 낚아채 거꾸로 처박아 버리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귀에서 여의봉을 쑥 뽑아내어 바람을 타고 휘두르니, 그 크기가 그릇만 했다가 다시 손에 쥐니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손오공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다시 천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구요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에 급급했고 사천왕은 형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비백산했다. 이 영리한 원숭이의 기개를 시로 이르되,

혼원(混元)의 몸은 선천의 기운과 합하였으니, 수만 번의 겁난을 겪어도 자연스러운 이치로다. 아득히 무위(無爲)한 태을(太乙)의 상태로, 흔들림 없이 고요하니 이를 초현(初玄)이라 부르네. 화로 속에서 오래 단련한 것은 납이나 수은이 아니요, 물질 너머의 장생이야말로 본래 신선의 도리라. 변화가 끝없어 또다시 변화하니, 삼귀(三皈)와 오계(五戒)는 차마 말할 것도 없구나.

또 시로 이르되,

한 줄기 영롱한 빛이 태허(太虛)를 꿰뚫듯, 저 지팡이 또한 그러하다.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쓰는 사람 마음대로니, 가로 세로 눕히고 펴는 것이 모두 마음이로다.

또 시로 이르되,

원숭이의 몸은 사람의 마음과 같으니, 마음이 곧 원숭이임은 그 뜻이 심오하구나. 제천대성이라 일컫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요, 말을 부리는 관직을 받은 것이 어찌 그 진면목을 알겠는가. 말과 원숭이가 마음과 뜻을 합하였으니, 단단히 묶어 매어두고 밖에서 찾으려 마라. 만 가지 형상은 진리로 돌아가 한 가지 이치에 닿으니, 여래 또한 그 이치에 합하여 두 숲에 머무는구나.

이 싸움에서 손오공은 밀리지 않고 철봉을 휘두르며 사방을 몰아쳤다. 그 어떤 신선도 손오공을 막아낼 수 없었고, 싸움은 통명전을 지나 령소전 밖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우성진군의 보좌관인 왕령관이 전각을 지키고 있다가, 손오공이 거침없이 날뛰는 것을 보고 금빛 채찍을 뽑아 들며 앞을 가로막았다.

"이 고약한 원숭아, 어디를 가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감히 날뛰지 마라!"

하지만 손오공은 대꾸할 것도 없이 철봉을 휘둘러 공격했고, 왕령관 역시 채찍을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은 령소전 앞에서 한데 뒤엉켜 격렬하게 싸웠다.

시로 이르되,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는 명예가 높으나, 하늘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하니 명성이 더럽도다. 한쪽은 충직하고 한쪽은 거침없으니 겨우 맞서며, 호걸과 영웅이 한데 어우러져 승부를 겨루네. 철봉은 사납고 금빛 채찍은 매서우니, 정직하고 사사로움 없는 자가 어찌 참겠는가? 한쪽은 태울의 뇌성에서 응하여 나타난 신선이요, 다른 한쪽은 제천대성이라 불리는 원숭이 요괴라. 금빛 채찍과 철봉 두 무기가 막상막하이니, 둘 다 신공의 신령한 무기들이로다. 오늘 령소보전에서 위세를 떨치며, 각자의 능력을 펼치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한쪽은 제멋대로 굴며 하늘의 궁궐을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온 힘을 다해 천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네. 서로 양보 없이 신통력을 겨루니, 채찍과 철봉이 오가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도다.

두 사람이 한데 엉겨 붙어 싸우니 승패를 가릴 수 없었다. 이때 우성진군이 미리 장수와 부하들에게 명하여 뇌부로 문서를 보내, 서른여섯 명의 뇌장(번개를 다스리는 신장)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 뇌장들이 제 천대성을 포위하고 각자 흉악한 기세로 몰아붙이며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대성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여의봉을 휘둘러 왼쪽과 오른쪽을 막고, 앞과 뒤를 맞서며 거침없이 싸워 나갔다.

순간 수많은 뇌장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 검과 극, 채찍과 몽둥이, 도끼와 금구(쇠공), 낫과 달 모양의 삽 등이 쉴 새 없이 몰려오자, 대성이 몸을 한 번 흔들더니 머리가 셋이고 팔이 여섯인 삼두육비(三頭六臂)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여의봉을 휘둘러 세 개로 늘리더니, 여섯 개의 손으로 세 개의 봉을 펼쳐 들고 마치 물레가 돌아가듯 뽕뽕 소리를 내며 포위망 한가운데서 휘저어 댔다. 그 기세가 워낙 대단하여 뇌장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둥글고 매끄러우며 빛이 눈부시니, 예부터 변함없이 존재해 온 이를 어찌 배우겠는가?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네. 빛나는 마니주(여의주)처럼, 칼과 창도 상처를 입히지 못하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니, 눈앞의 선악은 모두 그에게 달렸구나. 선하면 부처나 신선이 되고, 악하면 털 달린 요괴가 되리니. 끝없는 변화로 천궁을 어지럽히니, 뇌장과 신병들도 도저히 잡을 수 없네.

당시 신선들이 제천대성을 한데 모아 몰아붙였으나, 도무지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고 그저 소란스럽게 소리치며 싸울 뿐이었다. 이 소동이 일찍이 옥황제에게까지 전해지자, 옥황제는 유역영관과 익성진군에게

명을 내려 서방으로 가서 부처님을 모셔와 손오공을 굴복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했다.

두 성인이 명을 받들고 곧장 령산승경의 뇌음보찰 앞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사금강과 팔보살에게 예를 갖춘 뒤 소식을 전했다. 신선들이 보련대 아래로 몰려와 이 사실을 알리자, 여래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두 성인은 여래에게 세 번 절을 올린 뒤 대 아래에 섰다.

여래가 물었다. "옥황제가 무슨 일로 두 성인을 이토록 번거롭게 하여 이곳까지 내려오게 했는가?"

두 성인이 대답했다. "얼마 전 화과산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신통력을 부리며 원숭이 무리를 모아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옥황제가 달래어 항복을 권하며 '필마온'이라는 관직을 내렸으나, 그놈은 관직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이천왕과 나타 태자를 보내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다시 달래어 '제천대성'이라는 칭호를 내렸는데, 처음엔 관직만 있고 녹봉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숭아 밭을 관리하게 했더니 복숭아를 훔쳐 먹었고, 요지로 달려가 안주와 술을 훔쳐 잔치를 망쳐놓았습니다. 게다가 술기운을 빌려 몰래 도술천궁에 들어가 태상노군의 금단까지 훔쳐 천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옥황제가 다시 십만 천병을 보냈으나 역시 그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이랑진군과 그 의형제를 천거하여 뒤쫓아 죽이게 했으나, 그놈의 변화무쌍한 술수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다행히 태상노군이 금강탁(고리 모양의 법보)을 던져 맞히는 바람에 이랑진군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옥황제 앞에 끌고 가 처형하려 했으나, 칼로 베고 도끼로 찍으며 불로 태우고 벼락을 내려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상노군이 허락을 받아 데려가 불로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흔아홉 날이 지나 술을 열었더니, 그놈이 오히려 팔괘로를 부수고 튀어나와 천병들을 물리치고 통명전과 령소전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우성진군의 좌사인 왕령관이 막아서며 격렬히 싸웠으나, 다시 서른여섯 명의 뇌장을 동원해 그를 포위했음에도 끝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옥황제가 특별히 여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래가 이 말을 듣고 보살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이곳 법당에 편안히 앉아 수행에 정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내가 저 마물을 다스려 위기를 구해오겠다."

석가모니는 아나와 가섭 두 존자를 불러 수행처인 뇌음보찰을 떠나 곧장 령소전 밖으로 향했다. 그때 귀를 찢는 듯한 함성이 들려와 보니, 서른여섯 명의 뇌장들이 손오공을 에워싸고 싸우고 있었다. 부처가 법도를 전하며 말했다. "뇌장들에게 무기를 거두고 진영을 열라고 하여, 저 대성을 나오게 하라. 내 직접 그에게 어떤 법력이 있는지 물어보겠다." 말이 끝나자 장수들이 물러났다. 손오공도 거대한 신의 형상을 거두고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기세등등하게 화를 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대체 어느 쪽 선사길래, 감히 칼을 멈추게 하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오?" 석가모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서방 극락세계의 석가모니 존자다. 나무아미타불! 네가 세상에서 날뛰며 천궁을 거뜰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는 어디서 태어나 언제 도를 깨우쳤기에 이토록 포악하게 구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본래, 천지 기운이 섞여 신선이 태어나니, 화과산의 늙은 원숭이라

네. 수렴동을 집으로 삼아 가업을 일구고, 벼를 찾아 스승을 모시며 깊은 도를 깨우쳤지. 불로장생하는 법을 수없이 익혔고, 끝을 알 수 없는 변화술을 배웠노라. 세상이 좁다 느껴 인간 세상이 싫증 나니, 뜻을 세워 저 높은 하늘에 머물고자 하네. 령소보전도 그분이 영원히 차지할 곳은 아니니, 대대로 인간 세상의 제왕들도 (천하를) 나누어 이어받아 왔도다. 강한 자가 존중받는 법이니 내게 양보해야 하고, 영웅이라면 마땅히 앞서 다투어야 하는 법이라네." 부처가 이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냉소했다. "너는 고작 원숭이가 변한 요괴 주제에, 어찌 감히 마음을 속여 옥황상제의 자리를 탐내느냐? 그분은 어려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일천칠백오십 번의 겁을 고통스럽게 견뎌내셨다. 한 번의 겁이 십이만 구천육백 년이니, 네가 계산해 보아라. 그분이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어야 이 무궁한 대도를 누릴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짐승 같은 놈이 어찌 이리 큰소리를 치느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니 네 수명만 깎일 뿐이다. 어서 귀의하고 허튼소리를 멈추어라. 자칫 독한 손길을 당해 목숨을 순식간에 잃게 되면, 네 본래 모습이 아까울 따름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분이 비록 수행을 오래 하셨다 해도, 이곳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황제 자리는 돌아가며 앉는 법이니, 내년에는 내 차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분이 나가서 천궁을 내게 양보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양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소란을 피워 영원히 평온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가 물었다. "너는 불로장생하고 변화하는 법 외에 또 무슨 능력이 있기에 감히 천궁의 자리를 넘보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수단은 아주 많습니다! 일흔두 가지 변화술을 부릴 수 있고, 만 번의 겁이 지나도 늙지 않는 장생을 누립니다. 또한 근두운을 몰 줄 아니, 한 번 뛰어오르면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갑니다. 이 정도면 천계의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무

엇입니까?"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나 하자. 네가 능력이 있다면, 근두운을 타고 한 번 뛰어올라 내 오른손바닥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긴 것으로 치겠다. 더는 칼을 휘두르며 힘들게 싸울 필요도 없으니, 옥제에게 서방으로 가서 살라고 권하고 천궁을 네게 넘겨주마. 만약 내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요괴로 살며 몇 번의 겁을 더 수행한 뒤에 다시 와서 다투도록 해라."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여래라는 자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근두운을 타고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가는데, 저 손바닥은 채 한 자도 안 될 텐데 어찌 빠져나가지 못하겠는가?' 손오공이 급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정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 그러마." 그러고는 오른손을 펼쳤는데, 그 크기가 마치 연잎 하나 정도였다.

제천대성은 여의봉을 거두어 들인 뒤, 신통력을 한껏 떨치며 몸을 휩 날려 부처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톡 던졌다.

"나 좀 다녀오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구름을 타고 형체도 그림자도 없이 멀리 사라졌다. 부처가 해안으로 살펴보니, 원숭이 왕은 마치 바람에 돌아가는 물레처럼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대성이 문득 푸른 기운이 감도는 다섯 개의 붉은 살기둥을 발견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여기가 끝인가 보군. 이대로 돌아가서 여래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령소공은 분명 내 차지가 될 거야."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돌아가서 여래에게 말하려면 흔적을 좀 남겨두는 게 좋겠어."

그는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 한 가닥이 진한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그 붓으로 가운데 기둥에 커다란 글자를 한 줄 적어 내려갔다. '제천대성, 여기 잠시 들렀다 감.'

글을 다 쓴 뒤 그는 털을 다시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예의를 차리기는커녕, 첫 번째 기둥 밑에 원숭이 오줌을 한 바가지 시원하게 갈겨 버렸다. 다시 근두운을 뒤집어 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손오공은 부처의 손바닥 위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갔다 왔소, 이제 왔소! 자, 이제 옥황제에게 말해서 천궁을 내게 넘기라고 하시오!"

석가모니가 꾸짖으며 말했다. "이 오줌 싸는 원숭이 녀석아, 너는 단 한 번도 내 손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구나!"

손오공이 대꾸했다. "그건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나는 하늘 끝까지 가서, 푸른 기운을 머금은 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다섯 개의 붉은 살기둥을 보았던 말이요. 거기다 내가 흔적을 남겨 두었는데, 당신이 감히 나와 함께 가서 확인해 보겠소?"

석가모니가 말했다. "갈 것 없다. 그저 고개를 숙여 네 자신을 보아라."

손오공이 눈을 부릅뜨고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으로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세상에나! 부처의 오른손 중지(중지)에 '제천대성, 여기 잠시 다녀가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엄지손가락 사이에는 아직 원숭이 오줌 냄새까지 약간 남아 있었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외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에 글을 남겼는데, 어째서 부처님의 손가락에 적혀 있단 말인가? 혹시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법술이라도 있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제천대성은 크게 소리치며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부처님이 손바닥을 뒤집어 내리치자, 원숭이 왕은 서천의 문 밖으로 튕겨 나가고 말았다. 부처님은 다섯 손가락을 금, 목, 수, 화, 토의 다섯 산으로 변하게 하여 '오행산'이라 이름 붙이고는, 그를 그 아래 가볍게 눌러 버렸다. 뇌신들과 아나, 가섭은 모두 합장하며 찬탄했다.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예전에 알에서 깨어나 사람의 형상을 얻었을 때, 진정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으려 뜻을 세웠건만. 영원히 승경에 머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한순간의 변심으로 정신을 흘뜨리고 말았구나. 하늘을 속이고 높은 자리를 탐하였으며, 성인을 능멸하고 금단을 흠쳐 세상의 질

서를 어지럽혔으니, 악행이 가득 차 이제 그 대가를 받는도다. 도대체 어느 날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석가모니는 요괴 원숭이를 제압한 뒤, 아나와 가섭을 불러 데리고 서방 극락세계로 돌아가려 했다. 이때 천봉과 천우가 급히 령소전 앞으로 달려 나와 외쳤다. “여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군께서 오고 계십니다.” 석가모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과연 여덟 경치의 아름다운 난여(신선이 타는 수레)와 아홉 빛깔의 보배로운 덮개가 나타났다. 신비로운 노래와 묘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끝없는 신령한 글귀가 읊어지며, 보배로운 꽃이 흩날리고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침내 옥황제 앞에 이르러 절하며 말했다. “대법을 펼쳐 요사스러운 것을 물리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래여, 부디 하루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신선들이 잔치를 베풀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합장하며 말했다. “노승은 대천존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을 뿐인데, 무슨 법력이 있겠습니까? 모두 천존과 여러 신선들의 큰 복 덕분입니다. 어찌 이리 번거롭게 인사를 하십니까?” 옥황제가 명을 내려 뇌부의 신선들에게 나누어 임무를 맡겼다. 삼청, 사어, 오로, 육사, 칠원, 팔극, 구요, 십도, 천진, 만성 등 수많은 신선에게 이 잔치에 참석하여 부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라고 일렀다. 또한 사대천사와 구천선녀에게 명하여 옥경금궐, 태현보궁, 동양옥관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석가모니를 칠보영대로 모시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선들의 좌석을 정하고 용간봉수(신선들이 먹는 귀한 음식)와 옥액, 반도(복숭아) 등을 정성껏 준비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청 원시천존, 상청 영보천존, 태청 도덕천존을 비롯하여 오기진군, 오두성군, 삼관사성, 구요진군, 좌보, 우필, 천왕, 나타 등 천계의 온갖 신선과 영통한 존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깃발과 장식들을 앞세우고 명주와 보물, 장수하는 과일과 기이한 꽃들을 받들어 들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말했다.

"요괴 원숭이를 굴복시켜 주신 여래의 무량한 법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천존께서 잔치를 베풀어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래께서 이 모임에 이름을 하나 붙여 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여래가 신선들의 청을 받고 대답했다.

"이 모임의 이름을 정하고자 한다면, '안천대회(하늘을 편안하게 하는 큰 모임)'라 부르는 것이 좋겠구나."

신선들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외쳤다.

"좋습니다, '안천대회'라니 정말 좋군요! '안천대회'라니 참으로 멋집니다!"

말을 마친 신선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고, 술잔이 돌며 잔치가 이어졌다. 꽃을 꽂고 거문고를 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지니 참으로 보기 좋은 잔치였다. 이를 시로 읊어 증명하노라.

시로 이르되,

복숭아 잔치 때 원숭이가 어지럽히더니 안천대회는 그보다 훨씬盛大하구나. 용의 깃발과 신령한 수레에 상서로운 빛 감돌고 보물 깃발과 번쩍이는 장식에 상서로운 기운 휘날리네. 신선들의 노래와 신비로운 가락은 아름답고 봉황의 피리와 옥으로 만든 관악기 소리는 드높구나. 향기로운 연기 자욱한 가운데 신선들이 모여드니 온 세상이 평온하여 성스러운 하늘을 축복하도다.

모두가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서왕모가 선녀와 미녀들을 이끌고 구름처럼 가볍게 춤을 추며 부처 앞으로 나아갔다. 서왕모는 예를 갖추어 말했다.

"지난번 요괴 원숭이가 반도 잔치를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신선과 부처님께서 모두 힘을 보태어 해결해 주셨지요. 이제 여래의 위대한 법력으로 그 고집불통 원숭이를 굴복시켰으니, 이를 축하하는 '안천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제가 직접 손을 씻고 정성껏 커다란 복숭아 몇 알을 따서 바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붉고 푸른 빛깔이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니, 아름다운 선근(仙根)의 기운이 만 년토록 길도다. 무릉원(武陵源)에 심긴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계의 복숭아보다 기이하고 강할 수 있으랴. 보랏빛 결이 곱고 연하여 세상에 드문 것이니, 그 달콤한 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수명을 늘리고 몸을 새롭게 바꾸어 주니, 인연이 닿아 먹는 자는 절로 비범해지리라."

석가모니가 합장하며 서왕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자 서왕모는 다시 선녀와 신선들에게 명령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했다. 모여든 신선들은 모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시로 이르되,

아득한 천상의 향기가 좌중에 가득하고 어지러이 흩날리는 신선 꽃잎과 꽃송이들. 옥경의 금빛 궁궐은 크게 번창하여 진귀한 보물들은 값을 매길 수 없구나.

하늘과 나란히 장수하고 짝을 지어 만 겹의 세월을 더해가니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법이 없도다.

서왕모와 선녀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술잔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잠시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시로 이르되, "기이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니, 온 전당의 별과 성좌들이 놀라 깨어나네. 천선과 부처님도 술잔을 멈추고, 저마다 고개를 들어 눈을 기다리니, 구름 사이로 노인이 나타나, 손에는 영지를 들고 자욱한 안개 속에 날아오네. 호로병에는 만년의 금단이 갈무리되어 있고, 보륵에는 천 년의 수명이 적혀 있구나. 동굴 속의 건곤은 자유로이 누비고, 호 속의 일월은 뜻대로 이루어지네. 사해를 유람하며 한가로움을 즐기고, 십주를 거닐며 여유를 누리니, 일찍이 반도회에 취했던 적이 몇 번이던가, 깨어나 보니 밝은 달은 여전하구나. 긴 머리에 큰 귀, 짧은 몸집을 가졌으니, 남극 땅에서 장수함을 이름하네."

수성진군이 도착했다. 그는 옥황제의 예법을 마치고 여래를 보자,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그 요괴 원숭이가 태상노군에 의해 도술천궁으로 끌려가 단련을 받게 되었을 때만 해도, 반드시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시 탈출하여 난동을 부렸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여래께서 그 괴물을 잘 굴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잔치에 달려왔습니다. 따로 드릴 것은 없고, 특별히 자지와 요초, 그리고 벽우와 금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로 이르되, "벽우와 금단을 석가모니께 바치니, 여래의 수명은 모래알처럼 끝이 없으소서. 청평하고 영락한 삼승의 비단처럼, 강녕하고 장생하는 구품의 꽃 같으소서. 무상문 안의 참된 법의 주인이며, 색과 공이 어우러진 천상의 신선이시여. 천지대지를 모두 조상이라 칭하니, 장육의 금신에 복과 수명이 넘쳐나도다."

여래는 기쁘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수성진군은 자리에 앉아 다시 술잔을 돌리며 잔치를 이어갔다. 그때 적각대선이 다시 도착하여 옥황제에게 예를 올린 뒤, 여래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요괴 원숭이를 굴복시킨 그 법력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 특별히 교리 두 알과 화조 몇 알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로 이르되, "적각대선이 대추와 배의 향기를 가져오니, 미타불의 수명이 길어지기를 공경히 비읍니다. 칠보 연화대처럼 산처럼 평온하고, 천금 꽃파리처럼 비단같이 화려하도다. 천지와 수명이 같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요, 복이 홍수와 같다는 말도 허황된 것이 아니로다. 복과 수명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야말로 한가롭고 즐거운 서방 극락세계로다."

여래는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나와 가섭에게 명하여 가져온 예물들을 하나씩 거두어들인 뒤 옥황제 앞에서 잔치를 이어가게 했다. 모두가 술에 취해 흥이 올랐을 때, 순시를 맡은 영관이 달려와 보고했다. "그 대성(손오공)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래가 말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거기에는 금색 글자로 '옴 마니 반메 흠'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여래는 이를 아나에게 건네며 저 산꼭대기에 붙이라고 일렀다. 아나는 즉시 종이를 받아 천문을 지나 오행산 꼭대기에 이르러, 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바위 위에 종이를 꼭 붙였다. 그러자 산이 마치 뿌리를 내린 듯 빈틈없이 맞물렸다. 이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기운을 이용해 손을 내밀어 조금씩 흔들 수는 있게 되었다.

아나가 돌아와 보고했다. "종이를 잘 붙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옥황제와 여러 신선을 뒤로하고 두 존자(아나와 가섭)와 함께 천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진언을 외우며 오행산을 불러들인 뒤, 그곳에 토지신과 오방계제(다섯 방향을 수호하는 신들)를 배치하여 이 산에 머물며 손오공을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손오공이 배가 고플 때는 철환을 먹게 하고, 목이 마를 때는 녹은 구리물을 마시게 하여,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때가 되면 자연히 그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괴 원숭이 간이 커서 천궁을 어지럽혔으나, 결국 부처의 손바닥 아래 굴복하고 말았네. 목마르면 구리물 마시며 세월을 버티고, 배고

프면 철환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늘의 재앙 속에 고초를 겪으며
겪여 가지만, 처량한 신세 속에서도 목숨은 길게 이어지리니, 훗날 영
웅을 만나 다시 기개를 펼치게 되면, 부처를 모시고 서방 정토로 향하
게 되리라.

시로 이르되,

기세등등한 호걸의 기운이 한때 드높더니,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
며 재주를 부렸구나. 복숭아 훔치고 술 마시며 천계의 궁궐을 휘저었
고, 천계의 법도를 받들며 은혜를 입기도 했었지. 그러나 악행이 가득
하여 몸이 갇히게 되었으나, 선근(착한 뿌리)이 끊이지 않아 기운은 여
전히 살아있네. 과연 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는지, 당나라에
서 성스러운 승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보세.

결국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
어진다.

제8회 — 부처가 경전을 지어 극락을 전 하고, 관음이 어명을 받들어 장안으로 올 라가다

我佛造經傳極樂 觀音奉旨上長安

선문(禪門)의 관문을 묻고 또 물으며 수없이 수행에 매달려 보아도, 대개는 결국 헛된 세월만 보내며 늙기 마련이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 애쓰고 쌓인 눈을 양식 삼아 버티며, 얼마나 많은 젊은 시절을 미혹 속에 허비했는가.

털로 바다를 삼키려 하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담으려 하니, 금빛 가사를 입은 수행자가 미소 지을 뿐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열 가지 땅과 세 가지 수행의 단계를 넘어선다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생육도(삼과 죽음, 여섯 세상의 윤회)에 갇혀 머물게 된다.

그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아득한 절벽 끝, 그늘 없는 나무 아래에서 빠꾸기가 울며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 소리를. 조계사의 길은 험하고 영산의 구름은 깊어, 이곳에서 옛 벗의 소식은 아득하기만 하다. 천

길 낭떠러지 빙벽 위로 다섯 잎 연꽃이 피어나고, 고찰의 휘장 너머로는 향기가 아롱거린다. 그때 비로소 근원을 꿰뚫어 본다면, 곧 용왕의 세 가지 보배를 보게 되리라.

이 대목은 ‘소무만(蘇武慢)’이라는 이름의 노래로 읊을 수 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부처인 여래가 옥황상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뇌음보찰(雷音寶刹)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삼천 제불과 오백 나한, 팔대 금강, 그리고 끝없이 많은 보살이 저마다 깃발과 보개, 신비로운 보물과 선화(仙花)를 들고 영산 선경의 사라쌍림 아래 늘어서서 여래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래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멈춰 서서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깊은 지혜로 삼계를 굽어살피니, 만물의 근본 성품은 본래 고요하여 결국에는 적멸의 상태에 이른다. 이는 허공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날뛰던 원숭이를 굴복시킨 일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생사가 시작되는 법의 모습은 이와 같다.”

말을 마친 여래가 사리를 내뿜으니, 마흔두 줄기의 흰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를 본 대중은 모두 몸을 굽혀 경배했다. 잠시 후, 경사스러운 구름과 안개가 모여 들더니 여래는 연꽃 대좌에 올라 단정히 앉았다. 삼천 제불과 오백 나한, 팔대 금강과 사방의 보살들이 합장하며 가까이 다가와 예를 올린 뒤 물었다.

“천계를 어지럽히고 반도(복숭아)를 엉망으로 만든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여래가 대답했다.

“그놈은 화과산에서 난 요괴 원숭이인데, 죄악이 하늘을 찢러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천계의 신장들도 모두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 비록 이랑신(二郎)이 그를 붙잡고 태상노군이 불로 달구어 보았으나, 그 몸에는 상처 하나 내지 못했다. 내가 갔을 때는 그놈이 뇌신들 사이에서 위세를 떨치며 기세를 부리고 있더구나. 내가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그 내력을 물으니, 스스로 신통력이 있어 변화무쌍하며 근두운을 타고 한 번에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간다고 자랑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와 내기를 하듯 싸워보았으나, 그놈은 내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그놈을 단번에 붙잡아 손가락으로 오행산을 만들어 그곳에 봉인해 버렸다. 옥황상제가 금빛 궁궐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상석에 모셨으며, 안천대회를 열어 감사를 표했기에 이제야 돌아온 것이다.”

대중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여래의 공덕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다.

인사를 나누고 각자 맡은 자리로 물러나 각자의 일을 수행하니, 모두가 천진한 즐거움 속에 머물렀다. 과연 이러하였다.

상서로운 안개가 인도 땅에 가득하니, 무지갯빛 광채가 세존을 감싸 안았도다. 서방 정토에서 으뜸이라 칭송받는 곳, 형상 없는 진리를 설하는 법왕의 문이로다. 검은 원숭이가 과일을 바치고 사슴이 꽃을 물어 오며, 푸른 난새는 춤을 추고 채색 봉황은 울어대네. 영험한 거북은 장수를 받들고 신선 학은 영지를 물고 오니, 정토의 낙원에서 안락을 누리고 용궁의 법계에서 법을 맛보도다. 날마다 꽃이 피고 때때로 열매가

익어가니, 고요함에 익숙해져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 선을 닦으면 깨달음이 바르도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니, 아스라한 안개와 노을만이 구름 따라 오가고, 추위와 더위도 침범치 못해 세월조차 잊었도다.

시로 이르되,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자유로이 노닐고 두려움도 근심도 전혀 없다. 극락세계는 온통 평온하고 너그러우니 끝없는 우주 속에 세월조차 잊히는구나.

부처는 영산 대뢰음보찰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가 제불보살과 아라한, 揭諦(게제), 보살, 금강, 비구와 비구니 등 모든 대중을 불러 모아 말했다.

"그 못된 원숭이를 제압하여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은 뒤로, 이곳에 서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길이 없구나. 짐작건대 속세에서는 벌써 오백 년은 지났을 것이다. 마침 초가을 보름을 맞아, 내게 보배로운 분(盆)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기이한 꽃과 천 가지 신비로운 과일들이 가득 들어 있다. 너희와 함께 이 우란분회(盂蘭盆會,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여 공덕을 쌓는 잔치)를 즐기고자 하는데, 어떠하냐?"

대중은 모두 합장하며 부처님께 세 번 절하고 그 뜻을 받들었다. 여래는 보배 분에 담긴 꽃과 과일들을 아나에게 받게 하여 들게 하고, 가섭에게는 그것들을 널리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에 대중은 깊이 감격하여 저마다 시를 지어 감사의 뜻을 올렸다.

복을 기리는 시로 이르되,

복의 별빛은 세존 앞에 눈부시게 빛나고 복은 깊고 멀리 이어져 끊
임이 없도다. 끝없는 복덕은 땅처럼 오래도록 머물고 복된 인연은 경사
스러워 하늘과 맞닿았네. 복된 밭을 넓게 일구니 해마다 풍성하고 복의
바다는 넓고 깊어 해마다 견고하도다. 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은덕이
넘치고 무량한 복이 더해져 영원히 온전하리라.

복록은 산처럼 무겁고 오색 봉황이 울어대니,

복은 때마다 태평하여 길성처럼 빛나리라.

만 곡의 곡식이 더해져 몸은 강건하고,

천 종의 술을 누리며 세상은 태평하리라.

하늘에 닿은 녹봉은 영원히 굳건하고,

바다처럼 넓은 이름은 더욱 맑게 빛나리라.

은혜는 멀리 이어져 모두가 우러러보고,

벼슬은 끝이 없어 만국이 영화롭도다.

장수를 축원하는 시로 이르되,

수성(壽星)이 채색을 바치며 여래를 맞이하니, 장수의 영역에 광채
가 이로부터 피어나네. 장수의 열매는 소반에 가득하여 상서로운 안개
가 피어오르고, 장수의 꽃은 새로이 꺾어 연화대에 꽂는구나. 장수를
노래하는 시는 맑고 우아하여 기묘함이 넘치고, 장수를 노래하는 곡조
는 아름다운 재주에 맞춰 울려 퍼지네. 장수의 수명은 해와 달처럼 길
게 이어지고, 장수의 깊이는 산과 바다보다 더욱 아득하도다.

여러 보살이 공양을 마친 뒤, 여래에게 근본을 밝혀주시고 그 근원과 흐름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여래께서 자비로운 입을 열어 대법을 펼치시고 정과를 선포하시니, 삼승(세 가지 차원의 가르침)의 오묘한 경전과 오온(다섯 가지 요소) 및楞嚴(능엄경)의 도리를 설하셨다. 이때 하늘의 용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꽃비가 어지러이 흠날리니, 바로 다음과 같았다.

시로 이르되, 선한 마음은 밝게 비추어 천 개의 강에 뜬 달을 보고, 참된 본성은 맑게 머물러 만 리 하늘을 품었구나.

여래가 말을 마친 뒤, 여러 보살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대부주(네 개의 큰 대륙)를 살펴보니, 중생들의 선과 악이 각기 다르구나. 동승신주는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예우하며 마음이 상쾌하고 기운이 평온하다. 북구루주는 비록 살생을 즐기나 단지 먹고살기 위함일 뿐, 성품이 미련하고 정이 무심하여 남을 해치는 일이 많지 않다. 내가 있는 서우하주는 탐욕스럽거나 살생을 즐기지 않고 기운을 기르며 정신을 수양하니, 비록 최고의 신선은 아닐지라도 사람마다 수명이 길구나. 하지만 저 남섬부주는 탐욕과 음란함에 빠져 재앙을 즐기고, 살생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입과 혀가 흉악한 전쟁터요, 시비가 들끓는 악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이제 삼장진경(세 가지 장부로 된 참된 경전)이 있으니,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 합장하며 귀의하더니, 부처님 앞에 여쭙었다.

"여래시여, 그 삼장진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래가 대답했다.

"나에게는 하늘의 이치를 담은 법(法)의 장부 하나, 땅의 이치를 담은 논(論)의 장부 하나, 그리고 귀신을 구제하는 경(經)의 장부 하나가 있다. 이 삼장은 모두 서른다섯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만 오천백사십사 권에 달한다. 이는 참된 도를 닦는 경전이자 선을 행하는 정직한 문이다. 나는 이것을 동토(대당)로 보내려 하나, 그곳의 중생들이 어리석어 참된 말씀을 휘방하고 나의 법문에 담긴 요지를 깨닫지 못하며, 유가(楡迦)의 정통 종지를 소홀히 할까 염려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법력이 있는 자를 하나 찾아 동토로 보내, 선한 믿음을 가진 이를 찾아내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수많은 산을 넘고 만 갈래 물길을 건너는 고난을 겪으며 나에게 와서 진경을 구해 가게 하여, 이를 동토에 영원히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산처럼 거대한 복이요 바다처럼 깊은 선업이 될 것이다. 누가 기꺼이 그 길을 나서겠느냐?"

이때 관음보살이 연화대 가까이 다가와 부처님께 세 번 절하며 말했다.

"재주 없는 제자가 원하옵건대, 동토로 올라가 경전을 가져올 사람을 찾아오겠나이다."

모든 보살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그 보살은 다음과 같았다.

이치는 둥글어 네 가지 덕을 갖추었으니, 지혜는 가득 차 금빛 몸을 이루었도다. 구슬 장식은 비취빛과 함께 드리워졌고, 향기로운 고리는

보석처럼 밝게 빛나네. 검은 구름 같은 머리채는 용의 꼬리처럼 정교하게 말아 올렸고, 수놓은 띠는 채색 봉황의 깃털처럼 가볍게 휘날리네. 벽옥 끈에 흰 비단 도포를 입으니 상서로운 빛이 온몸을 감싸고, 비단 치마에 금색 장식까지 더해지니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구나. 눈썹은 초승달 같고 눈은 쌍둥이 별처럼 빛나며, 옥 같은 얼굴에는 타고난 기쁨이 서려 있고 붉은 입술은 한 점 홍등처럼 아름답네. 정병에는 매년 감로수가 넘쳐나고, 버드나무 가지는 해마다 푸르게 드리워져 있구나.

여덟 가지 고난을 해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크나큰 자비로, 태산에 진을 치고 남해에 머물며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시니, 만인이 칭송하고 모든 성현이 영험함을 입는구나. 난심은 자죽을 반기고 혜성 같은 성품은 향기로운 덩굴을 사랑하니, 그는 낙가산의 자비로운 주인 이시요, 조음동의 활관음이시로다.

여래가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다른 이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반드시 관음보살처럼 신통력이 광대하고 능력이 뛰어나야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여쭙었다. “제자가 동토로 떠나게 된다면,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래가 대답했다. “이번 길은 반드시 땅 위를 걸으며 길을 살피야 한다. 하늘 위로 날아다니서는 안 된다. 구름과 안개가 적당히 낀 곳을 지나며 산과 강의 형세를 눈에 담고, 가는 길의 거리와 길이를 정확히 기억하여 취경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혹여 선량한 신도가 길을 가다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되니, 네게 다섯 가지 보물을 주겠다.” 말을 마친 여래는 즉시 아나와 가섭에게 명하여 비단 가사와 구환석장(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석장)을 꺼내오게 했다. 그리고 보살에게 말하며 덧붙였

다. “이 가사와 석장은 취경인이 직접 사용하게 하거라. 만약 그가 굳은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고자 한다면, 나의 가사를 입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의 석장을 짊어 독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보살은 이를 받들어 경건히 절했다. 여래는 이어 세 개의 고리를 꺼내 보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보물은 긴고아(緊箍兒, 머리를 조이는 테)라 부른다. 모양은 똑같이 세 개지만 쓰임새는 제각각이다. 나에게는 이 테들을 다스리는 금(金)·긴(緊)·금(禁) 세 가지 주문이 있다. 만약 길을 가다 신통력이 뛰어난 요괴를 만나거든, 그에게 착하게 살며 취경인의 제자가 되라고 권해 보아라. 만약 그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이 테를 그의 머리에 씌워라. 그러면 테가 살 속으로 파고들며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다음 각 테에 맞는 주문을 외우면, 눈이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결국 내 문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관음보살은 기쁜 마음으로 예법을 갖추어 인사를 올린 뒤 물러났다. 이어 혜안행자를 불러 길을 나서게 했다. 혜안행자는 무게가 천 근이나 나가는 무거운 혼철봉을 휘두르며, 보살의 곁에서 마귀를 굴복시키는 힘센 호법신 역할을 수행했다. 보살은 비단 가사를 가져와 물건을 챙길 보따리를 만든 뒤 혜안행자에게 등에 메게 했다. 그러고는 금고(金箍, 금테)를 품속에 잘 갈무리하고 석장을 짊은 채 곧장 영산을 내려갔다. 이번 여정은 다음과 같은 시로 그 의미를 전한다.

시로 이르되, 부처의 제자 다시 돌아와 본래의 서원을 이루니, 금선노사가 향나무를 싸듯 정성스레 길을 떠나네.

관음보살이 산기슭에 이르니, 옥진관의 금정대선이 관문 앞에서 보살을 맞이하며 차를 대접하려 했다. 관음보살은 오래 머물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여래의 법지를 받들어, 동토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취경인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금정대선이 물었다.

"그 취경인은 언제쯤 이곳에 도착하겠습니까?"

관음보살이 대답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관음보살은 대선을 작별하고, 구름과 안개가 반쯤 낀 길을 따라 여정을 이어갔다. 이 상황을 시로 이르되,

만 리 길을 찾아 해매도 말 한마디 없으니 누가 뜻을 이루고 온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찾는 일이 이토록 막막하니 내 평생의 업보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도를 전하는 법이 어긋나면 망령된 설이 되고 밝게 설명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전언이 되리니 간과 쓸개를 다 쏟는 심정으로 인연을 찾으려 하니 앞길에 분명 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 문득 물살이 거센 삼천 개의 물줄기가 펼쳐진 유사하에 다다랐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제자야, 이곳은 지나가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이는 평범한 육

신을 가진 범인인데, 어떻게 이 물을 건널 수 있겠느냐?” 목차가 대답했다. “스승님, 저 강이 얼마나 멀어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관음보살이 구름 위를 걷는 보법으로 멈춰 서서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동쪽으로는 모래사막에 닿고, 서쪽으로는 여러 이민족의 땅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오고국에 다다르고, 북쪽으로는 달달과 통한다. 길을 지나가려면 팔백 리를 달려야 하고, 위아래로는 천만 리나 멀리 뻗어 있다. 물줄기는 마치 땅이 뒤집히는 듯 요동치고, 몰아치는 파도는 산 등성이처럼 높게 솟구친다. 끝없이 넓고 아득하여, 십 리 밖에서도 만 길이나 되는 거대한 홍수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신선이 타고 다니는 뗏목조차 이곳에는 닿기 어렵고, 연잎조차 떠 있을 수 없다. 시든 풀 위로 석양이 비치고 굽이치는 물가에는 노란 구름이 해를 가려 긴 독이 어둑해진다. 이곳에 어찌 오가는 상인이 있겠으며, 어부들이 머물다 간 흔적이 어디 있겠는가? 평평한 모래사장에는 내려앉는 기러기 한 마리 없고, 먼 기슭에서는 원숭이 울음소리만 들려온다. 그저 붉은 마디풀 꽃이 피어 경치를 이루고, 흰 수선화 향기만이 은은하게 감돌 뿐이다.

보살이 가만히 살펴보니, 강물 속에서 갑자기 '콰광!'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물결을 헤치고 요괴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모습이 실로 추악하기 그지없었는데, 생김새는 이러하였다.

푸르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어스름한 빛깔의 얼굴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맨발의 구부정한 몸뚱이. 번뜩이는 눈빛은 마치 아궁이 밑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등불 같고, 찢어진 입가와 험상궂은 모습은 마치 백정의 핏빛 대야 같구나. 송곳니는 칼날처럼 솟아 있고 붉은 머리카락은

형클어져 어지러운데, 한 번 호통치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두 발로 달릴 때면 휘몰아치는 회오리바람 같도다.

그 괴물은 보배 지팡이를 손에 움켜쥐고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곧장 보살을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목차혜안행자가 혼철봉을 휘둘러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어디를 도망가려느냐!"

괴물은 보배 지팡이를 치켜들고 맞서 싸웠다. 유사하 강가에서 벌어진 두 존재의 격렬한 싸움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이었다.

목차는 혼철봉을 휘두르며 신통력을 발휘해 호법신으로서 위엄을 떨치고, 괴물을 잡는 지팡이로 영웅다운 면모를 뽐낸다. 은빛 구렁이 두 마리가 강가에서 춤을 추듯, 한 쌍의 신령한 승려가 강독을 향해 달려 나간다.

한 명은 유사하를 진압하며 본래의 재주를 펼치고, 한 명은 관음보살을 보필하며 큰 공을 세운다. 한 명은 파도를 가르며 물결을 뛰어넘고, 한 명은 안개를 내뿜고 바람을 일으킨다. 파도를 가르며 물결을 뛰어넘으니 천지가 어두워지고, 안개를 내뿜고 바람을 일으키니 해와 달이 흐릿해진다.

요괴를 잡는 지팡이는 마치 산에서 내려온 백호 같고, 혼철봉은 마치 도를 닦다 나온 황룡 같다. 한 명은 풀숲을 헤치며 뱀을 쫓듯 움직이고, 한 명은 매를 낚아채듯 소나무를 가르며 돌진한다. 요괴를 베어 넘

기는 기세에 눈앞은 아득하고 별빛만 찬란하게 빛나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천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흐릿하다.

한 명은 약수(弱水)에 오래 머물며 악명을 떨치던 자요, 한 명은 영산에서 막 나와 첫 공을 세우는 자로다.

두 사람이 이리저리 오가며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자 괴물이 철봉을 막아서며 말했다. "너는 어디서 온 스님이기에 감히 나를 상대하려 드느냐?" 목차가 대답했다. "나는 토탑천왕의 둘째 아들인 목차혜안행자다. 지금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동토로 가서 경전을 구할 취경인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너는 대체 어떤 괴물이기에 감히 앞길을 가로막느냐?" 그제야 괴물이 정신을 차린 듯 말했다. "네가 남해 관음보살과 함께 자죽림에서 수행하던 자라는 것이 기억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목차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 언덕에 계신 분이 우리 스승님이 아니란 말이나?"

요괴는 그 말을 듣고 연신 대답하며 보물 지팡이를 거두었다. 그리고 목차에게 자신을 관음보살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뒤,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말했다.

"보살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요괴나 사악한 괴물이 아닙니다. 본래 영소전에서 임금님의 수레를 모시던 권령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회에서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리는 바람에, 옥황제님께 매를 팔백 대나 맞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칠 일에 한 번씩 날아오는 비검에 가슴 옆구리를 백 번 넘게 꿰뚫려야 하는 벌까지 받고 있으니, 이 얼마

나 괴로운 일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이틀에 한 번꼴로 파도를 헤치며 먹잇감이 될 행인을 찾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을 실례하고 말았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내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이곳으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죄 위에 죄를 더한 격이구나. 나는 이제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동토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취경인을 찾아야 한다. 네가 차라리 내 문하로 들어와 선한 업을 쌓고, 그 취경인의 제자가 되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비검이 너를 꿰뚫지 못하게 하겠다. 나중에 공덕을 쌓으면 죄를 면해주고 네 원래 직책도 되찾아 줄 터인데, 마음이 어떠하냐?"

요괴가 대답했다.

"기꺼이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살님, 제가 이곳에서 사람을 수없이 잡아먹었습니다. 예전에도 경전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제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잡아먹은 사람의 머리는 모두 유사하의 물속으로 던져버렸는데, 이 물은 거위 털 하나조차 뜨지 못할 만큼 깊습니다. 다만 아홉 명의 취경인이 남긴 해골만은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더군요. 저는

그것이 신기하여 아이처럼 꿰어놓고 심심풀이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취경인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제 앞길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 해골들을 목 뒤에 걸어두고 취경인을 기다
리거라. 그러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요괴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보살은 곧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계율을 전하며 수계(受戒)를 해
주었다. 성은 모래 사(沙) 자를 쓰게 하여 사 씨가 되게 하고, 법명은
사오정이라 지어주었다. 그제야 사문(스님)의 길에 들어선 그는 보살
을 강 건너로 배웅해 드린 뒤,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고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오로지 취경인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관음보살은 그와 작별하고 목차와 함께 동토를 향해 서둘러 길을 떠
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높은 산 하나가 나타났는데, 산 위로 사악한 기
운이 자욱하게 깔려 있어 도저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막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요괴 하나가 번
쩍하고 나타났다. 그 모습은 실로 흉측하고 위협적이었으니, 그 생김
새를 묘사하자면 이러하다.

연꽃 봉오리를 입에 물고 늘어진 채, 귀는 부채처럼 넓고 눈은 금빛으로 빛난다. 강철을 깎을 듯 날카로운 엄니를 가졌고, 입을 크게 벌리니 마치 화로를 닮았다. 금빛 투구는 턱끈으로 단단히 조여 매었고, 갑옷의 끈은 비늘 돋은 구렁이 모양이다. 손에는 용이 발톱을 뺀 듯한 쇠스랑(釘鉈)을 들고, 허리에는 반달 모양의 활을 차고 있다. 위풍당당한 기세는 신령조차 겁내게 하고, 드높은 기개는 천신들마저 압도한다.

그 괴물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며 보살을 향해 쇠갈퀴를 휘둘렀다. 그러자 목차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무례한 괴물 놈아, 함부로 날뛰지 마라! 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가 맞받아치며 외쳤다.

"이 스님이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갈퀴를 받아라!"

두 존재는 산 아래에서 서로 격렬하게 부딪치며 승부를 겨루었으니, 그 싸움이 실로 살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요괴는 흥포하고, 목차의 위력은 대단하구나. 철봉을 휘둘러 마음 가는 대로 내리치고, 삼지창을 뺀어 얼굴을 향해 들이민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휘저으니 천지가 어두워지고,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니 귀신들도 깜짝 놀라 자빠지네. 구치극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두 개의 고리 소리가 쟁쟁한데, 검은 철봉은 묵직하게 움직이며 양손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는구나. 한 명은 보타락가산에서 법을 수호하는 천왕 태자요,

다른 한 명은 산동네에서 날뛰는 원수 요괴로다. 이들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니, 과연 누가 지고 누가 이길 것인가.

두 괴물이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그때, 관음보살이 공중에서 연꽃을 던져 갈퀴와 지팡이를 갈라놓았다. 괴물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스님이기에 감히 눈앞에 꽃을 던져 나를 속이려 드는가?” 그러자 목차가 말했다. “이 미련한 놈아! 나는 남해 관음보살의 제자다. 이젠 내 스승님이 던져주신 연꽃인데, 너는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괴물이 다시 물었다. “남해 관음보살이라니, 혹시 세 가지 재앙을 쓸어버리고 여덟 가지 어려움을 구제해 주시는 관음보살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목차가 대답했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괴물은 즉시 갈퀴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형씨, 보살님은 어디 계십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목차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계시지 않느냐?” 괴물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땅에 짚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보살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물었다. “너는 어디서 도망쳐 나온 들돼지냐, 아니면 어디서 나타난 늙은 돼지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앞을 가로막느냐?”

그러자 괴물이 대답했다. “저는 들돼지도 아니고 늙은 돼지도 아닙니다. 본래 천계의 천봉원수였습니다. 단지 술을 마시고 항아를 희롱했다는 이유로 옥황상제에게 망치로 이천 대나 맞고 속세로 쫓겨났을 뿐입니다. 타고난 영험한 성품을 따라 다시 태어나려 했으나, 뜻하지 않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암돼지의 몸을 빌려 태어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암돼지를 물어 죽이고 돼지 떼를 때려죽인 뒤, 이곳을 차지하고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보살님을 뵙게 되었으니,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시옵소서."

관음보살이 물었다.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

괴물이 말했다. "복릉산이라 합니다. 산 안에는 운잔동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원래 '란이저'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무예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저를 집안의 가장으로 모셨으니, 곤테릴사위(倒躑門)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여자가 죽는 바람에 동굴의 모든 재산을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먹고살 방도가 마땅치 않아, 본래 성질대로 사람을 잡아먹으며 지내왔습니다. 보살님,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이 꾸짖었다. "옛말에 '앞날을 도모하려면 지금부터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너는 본래 천계에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도 흉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생명을 해하며 죄를 짓고 있으니,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괴물이 투덜거렸다. "앞날이라니요, 앞날이라니! 보살님 말씀대로라면 저더러 바람이나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흔히들 '관청 법대로 하면 매 맞아 죽고, 부처님 법대로 하면 굶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 관두십시오! 차라리 지나가는 나그네나 붙잡아 기름진 살을 뜯어먹고 말지, 죄가 두 개든 세 개든, 수만 가지 죄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관음보살이 다시 말했다. "사람이 선한 원력을 가지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는 법이다. 네가 만약 바른 도를 따라 귀의하고자 한다면 먹고살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세상에는 오곡이 있어 굶주림을 달래기에 충분하거늘, 어찌하여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느냐?"

괴물은 그 말을 듣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하여, 보살에게 말했다. "저도 바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만,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어찌 빌 곳이 있겠습니까."

보살이 말했다. "나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동토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네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서천으로 함께 길을 떠난다면, 공을 세워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괴물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제야 보살은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계를 내려주었다. 몸을 가리켜 성을 삼게 하니 돼지 저(豬) 성을 따르게 되었고, 법명을 지어주니 저오능(豬悟能)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로써 저오능은 명을 받들어 본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 재계하며 오신채와 삼염(三厭)의 고기를 끊고 오로지 경전을 구하러 올 사람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다.

관음보살은 목차와 함께 저팔계를 제자로 거두어 보낸 뒤, 흥겨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공중에 옥룡 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관음보살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너는 어떤 용인데 이곳에서 벌을 받고 있느냐?"

그러자 용이 대답했다.

"저는 서해 용왕 오윤의 아들입니다. 전각에 있는 명주를 태워버린 죄로 아버지께서 천계에 보고하셨고,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옥황제가 저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벌써 삼백 대를 때렸으니,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처지입니다. 보살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관음보살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목차와 함께 남천문에 이르렀다. 마침 그곳을 지키던 구 천사와 장 천사가 다가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보살이 말했다. "빈승은 옥황제를 뵈고자 합니다." 두 천사가 즉시 이를 보고했다. 옥황제는 곧 전각에서 내려와 보살을 맞이했다. 보살은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어 말했다. "빈승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동토로 경전을 가져올 이를 찾으러 가던 중, 죄를 지어 매달려 있는 용을 만났습니다. 이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러 왔으니, 그 용을 사해주시고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경전을 구하러 올 이의 발이 되어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황제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면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천병들을 보내 용을 풀어준 뒤 보살에게 넘겨주었다. 보살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났다. 이 어린 용은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올리고, 보살의 부림을 따르기로 했다. 보살은 그를 깊은 계곡에 머물게 하며, 훗날 경전을 구하러 올 이가 오면 백마로 변하여 서방정토에서 공을 세우게 하라고 일렀다. 어린 용은 명을 받들고 조용히 몸을 숨겼다.

관음보살은 목차를 데리고 이 산을 지나 다시 동토를 향해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수만 갈래의 금빛 광채와 수천 줄기의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목차가 말했다. "스승님, 저 빛이 나는 곳이 바로 오행산입니다. 저기에 여래께서 붙여 놓으신 압패(봉인용 명패)가 보입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저것은 바로 반도회(복숭아 잔치)를 어지럽히고 천계를 크게 소란하게 했던 제천대성이란다. 지금은 저곳에 눌러 있는 것이지."

목차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산 위로 올라가 압패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옴 마니 반메 흠'이라는 육자진언이 적혀 있었다. 관음보살은 그것을 다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시를 한 수 읊었다.

시로 이르되,

가련하다, 요괴 원승이여, 공도를 받들지 않더니 그 옛날 오만방자하게 영웅 행세를 했구나. 욕심에 눈이 멀어 반도회를 어지럽히고 대담하게 도술궁까지 몰래 침범했네. 십만 대군 속에서도 적수가 없었고 아홉 하늘 위에서도 위풍당당했건만 이제 부처님 여래의 손에 갇혔으니 언제쯤 다시 자유로워져 공을 떨칠 수 있으랴?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이미 대성(손오공)이 그 소리를 듣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대성이 산기슭에서 크게 외쳤다. “어떤 놈이 산 위에서 시를 읊조리며 내 치부를 들추는 것이냐!”

관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곧장 산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았다. 바위 절벽 아래에는 토지신과 산신, 그리고 대성을 감시하던 천장(하늘의 장수)들이 모두 나와 관음보살을 맞이하며 대성 앞으로 인도했다. 살펴보니 그는 커다란 돌 상자 속에 눌러 있어, 입은 움직여 말을 할 수 있었으나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관음보살이 물었다. “성씨가 손씨인 자여, 나를 알아보겠느냐?”

대성이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을 번쩍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외쳤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바로 남해 보타락가산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십니까! 아이고, 보살님, 저 좀 돌봐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루가 일 년 같으니, 아는 이 하나 찾아와 나를 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보살님께서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관음보살이 말했다. “나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동토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취경인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지나가던 차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너를 살펴보려 왔다.”

대성이 말했다. “여래께서 저를 속여 이 산에 눌러놓으신 지 벌써 오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군요. 부디 보살님께서 방편을 써서 이 늙은 손오공을 한 번만 구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이 말했다. “너는 죄업이 매우 깊구나. 너를 구해준들 또다시 화를 일으켜 도리어 일을 그르칠까 두렵다.”

대성이 말했다. “이제는 정말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보살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기꺼이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시로 이르되,

사람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안다.
선과 악에 응보가 없다면,
천지는 반드시 사사로움을 품은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관음보살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손오공에게 말했다.

"성스러운 경전에 이르기를, '말이 선하면 천 리 밖에서도 응답하고, 말이 악하면 천 리 밖에서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동토의 대당국으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사람을 찾아 그대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며, 우리 불문에 들어와 다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오공이 연신 대답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이미 선한 인연을 맺었으니, 내가 그대에게 법명을 하나 내려주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는 이미 이름이 있습니다.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다시 기뻐하며 말했다.

"내 앞에 귀의한 두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들의 이름에 '오(悟)' 자가 들어갑니다. 그대 또한 '오' 자를 쓰니 그들과도 잘 어울리는군요. 참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오공은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마음을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관음보살은 그를 가엽게 여겨 신성한 승려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관음보살은 목차와 함께 그곳을 떠나 계속 동쪽으로 향했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당국의 장안에 도착했다. 안개를 거두고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모습을 감춘 뒤, 두 사람은 초라하고 병든 떠돌이 승려로 변신하여 장안성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덧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변화한 시장 거리 근처를 지나가던 중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이 보이기에 두 사람은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토지신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비백산하고 귀신 병사들도 겁에 질렸으나, 곧 보살임을 알아차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히 모셨다. 토

지신은 서둘러 성황신과 사령, 그리고 장안성 곳곳의 사당에 있는 모든 신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신령들은 모두 모여 보살을 뵈고는 이렇게 말했다.

“보살님, 저희가 미처 빨리 마중 나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관음보살이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이 일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불경을 가져갈 취경인을 찾으러 왔다. 너희 사당을 빌려 며칠 머물 테니, 참된 스님을 찾으면 즉시 떠나겠다.”

신령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토지신은 성황사 안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사이 관음보살과 목차는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은신했다.

결국 그 취경인을 찾을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회 — 진광예가 부임길에 재앙을 만나고, 강류승이 다시 원수를 갚아 근본을 갚다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讎報本

이야기는 섬서성의 대국인 장안성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역대 황제들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땅은 세 곳의 주가 비단처럼 아름답고 여덟 갈래의 물줄기가 성을 휘감아 흐르니, 참으로 명승지로 이름난 곳이다. 당시 대당의 태종 황제가 즉위하여 정관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지 13년째 되는 기사년이었다. 천하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팔방에서 조공이 끊이지 않았으며, 온 세상이 황제의 덕에 복종하고 있었다.

어느 날, 태종이 즉위하여 문무 백관을 불러 모았다. 조례를 마친 뒤 승상 위징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지금 천하가 태평하고 사방이 평온하니, 마땅히 옛 법도를 따라 과거 시험을 열어야 합니다.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데 보탬이 되게

하소서." 태종이 말했다. "경의 말이 옳소." 태종은 즉시 인재를 모집한다는 방을 붙여 천하에 널리 알렸다. 각 부와 주, 현의 군인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글을 읽는 유생 중에서 문장이 명쾌하고 세 번의 시험 과정을 능통하게 통과할 실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장안으로 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방이 해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성은 진이고 이름은 악이며 자는 광예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방을 보고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장씨에게 말했다.

"조정에서 황금빛 방을 붙여 남성 지역에 과거 시험을 열어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시험을 치러보고 싶습니다. 만약 작은 관직이라도 얻게 된다면,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름을 떨치며, 아내와 자식에게도 덕을 입혀 가문을 빛내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에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씨가 말했다.

"내 아들이, 글 읽는 선비란 모름지기 '어릴 때 배우고 장성하여 뜻을 펼치는 법'이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 다만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부디 조심하거라. 관직을 얻거든 어서 빨리 돌아오너라."

진악은 곧장 하인을 시켜 짐을 챙기게 하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서둘러 길을 떠났다. 장안에 도착하니 마침 과거 시험이 열리고 있었고, 진악도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을 마친 그는 당당히 합격했다. 이어지는 궁궐 시험에서도 세 가지 방책을 완벽히 제시하자, 태

종이 직접 붓을 들어 장원 급제를 하사하였다. 진악은 말에 올라 사흘 동안 거리를 행진하며 장원의 영예를 만끽했다.

한편, 우연히 승상 은개산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온교라는 딸이 있었다. 온교는 만당교라고도 불렸는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처녀였다. 마침 온교는 화려하게 장식한 누각을 세우고 수놓은 공을 던져 신랑감을 찾는 혼례 놀이를 하고 있었다.

마침 진악이 누각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다. 온교는 진악을 보자마자 그가 뛰어난 인재임을 알아보고, 새로 장원 급제한 장원 급제자라는 사실도 눈치챘다.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진 온교는 수놓은 공을 아래로 던졌는데, 그것이 마침 진악의 관모에 딱 맞게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열댓 명의 시녀들이 누각 아래로 내려와 진악의 말머리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장원 급제자를 승상 댁으로 모셔가 혼례를 치르려 했다. 승상과 부인이 즉시 마당으로 나와 손님들을 불러 예식을 올리게 했고, 딸을 진악과 짝지어 주었다. 두 사람은 천지에 절을 올리고 부부로서 서로 맞절을 한 뒤, 장인과 장모에게도 절을 올렸다. 승상은 곧바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여 밤새도록 즐겁게 술을 마셨다. 예식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신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태종이 금란보전의 보좌에 앉으니 문무백관이 줄을 지어 조례를 올렸다. 태종이 물었다. "이번에 장원 급제한 진악은 어떤 관직을 맡기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위징 승상이 아뢰었다. "소신이 각 주와 군의 상황을 살펴보니, 강주에 관직이 비어 있습

니다. 주상께서 그를 그 자리에 임명해 주시옵소서." 태종은 즉시 그를 강주 주주로 임명하며, 지체하지 말고 곧장 채비를 갖추어 임기를 놓치지 않도록 명했다. 진악은 은혜에 감사하며 조례를 마치고 나와 승상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향후 계획을 상의한 뒤, 장인과 장모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아내와 함께 강주로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리하여 그들은 장안을 떠나 먼 길을 나아갔다.

때마침 봄날의 저물녘이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니 버드나무는 푸르게 빛나고 가랑비는 붉은 꽃잎 위로 점점이 내려앉았다. 진악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어머니 장씨에게 절을 올렸다. 장씨가 말했다. "축하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왔구나." 진악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과분하게도 장원에 급제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행차를 허락하셔서 마을을 돌던 중, 승상의 저택 앞을 지나다가 수놓은 공놀이용 공을 던져 맞히는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승상께서 따님을 저의 아내로 맞아달라고 권하셨습니다. 조정에서 저를 강주 주주로 임명하였으니,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부임지를 향하고자 합니다." 장씨는 크게 기뻐하며 여행 채비를 서둘렀다.

길을 가던 중, 우선 만화점 유소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진악의 어머니 장씨가 갑자기 병이 나자, 진악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몸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이틀만 더 요양하며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장씨도 그 말에 따랐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가게 문 앞에 한 사람이 금빛이 나는 잉어를 들고 팔러 나온 것이 보였다. 진악은 즉시 돈 한 꾸러미를 주고 그 잉어를

쌌다. 어머니께 요리해 드리고자 살펴보니, 잉어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진악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듣기로 물고기나 뱀의 눈이 번쩍이는 것은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는 곧 어부에게 물었다. "이 물고기는 어디서 잡은 것이요?" 어부가 대답했다. "여기서 십오 리 떨어진 홍강에서 잡은 것이요."

진악은 그 잉어를 다시 홍강에 풀어 주며 방생을 하고, 가게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장씨가 말했다. "방생이라니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 진악이 다시 말했다. "이곳에 머문 지도 벌써 사흘째입니다. 관직 임명이 급한 일이라 저는 내일 떠나려 하는데, 어머니의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요?"

장씨가 말했다. "몸이 영 개운치 않은데 길 위까지 더위가 심하니 병이 더 깊어질까 걱정되는구나. 그러니 여기서 방을 하나 빌려 나를 잠시 머물게 하고, 여비도 좀 남겨 두거라. 너희 부부 먼저 부임지로 떠나고,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면 그때 나를 데리러 오너라."

진악이 아내 온교와 상의한 끝에 방을 빌리고 어머니께 여비를 챙겨드린 뒤, 아내와 함께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다.

길이 험하고 고되어 새벽부터 길을 나서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홍강 나루터에 다다랐다. 마침 뱃사공 유홍과 이표 두 사람이 배를 저어 나루터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는 진악의 전생에 이러한 재난을 당할 운명이 있었기에, 하필 이런 악당들을 만난 것이었다.

진악이 하인에게 짐을 배로 옮기라고 시키고, 부부가 나란히 배에 오르려는데, 유홍이 눈을 들어 온교를 살펴보았다. 온교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눈매는 가을 물결처럼 아름다웠으며, 앵두 같은 입술과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허리는 그야말로 물고기도 가라앉고 기러기도 떨어뜨릴 만큼, 달을 가리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큼 빼어난 미모였다. 그 모습을 본 유홍은 순식간에 흥악한 마음이 일었다.

그는 즉시 이표와 함께 계락을 꾸며, 배를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곳으로 저어 갔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삼경이 되자, 그들은 먼저 하인을 죽이고 이어 진악까지 때려죽인 뒤, 시신을 모두 강물에 던져 버렸다. 온교는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자 유홍이 그녀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면 모든 일을 좋게 해결해 주겠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온교는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일단 살아남기 위해 유홍의 요구를 들어주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도적놈 유홍은 배를 남쪽 기슭으로 가져가 배 관리는 이표에게 맡긴 뒤, 진악의 관복과 관직 증서를 훔쳐 입고는 온교를 데리고 강주로 향하며 마치 진악인 양 부임길에 올랐다.

한편, 유홍이 살해한 하인의 시신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갔으나, 진악의 시신만은 물밑에 가라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 홍강 입구에서 바다를 순찰하던 야차(바다를 지키는 귀신)가 이를 발견하고는 급히 용궁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마침 용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야차가 보고했다.

"홍강 입구에서 어떤 자가 선비 한 명을 때려죽이고 시신을 물밑에 버려두었습니다."

용왕이 시신을 떼어다가 눈앞에 가져오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은 바로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어찌하여 이런 모함을 받아 죽었던 말인가? 흔히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늘 반드시 그의 목숨을 구해 예전에 입은 은혜를 갚아야겠다."

용왕은 즉시 공문 한 통을 써서 야차에게 홍주 성황신과 토지신에게 전하라고 명했다. 진악의 혼백을 가져와 그의 목숨을 구하라는 내용이 었다. 이에 성황신과 토지신은 소귀(작은 귀신)들을 불러 진악의 혼백 을 야차에게 넘겨주었다. 야차는 혼백을 받아 수정궁으로 가서 용왕에게 보고했다.

용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수재인가? 성명과 고향은 어디이며, 어찌하여 이곳까지 와서 사람에게 맞아 죽었는가?"

진악이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소생은 이름이 진악이고 자는 광예라고 하며, 해주 홍농현 사람입니다. 과분하게도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여 강주 주주로 임명되었고, 아내와 함께 부임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배를 탔는데, 뜻밖에도 뱃사공 유흥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때려죽이고 시신을 물에 버렸습니다. 대왕님,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용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선생, 그대가 전에 방생해 준 그 금잉어가 바로 나였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니, 그대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어찌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소?"

용왕은 진악의 시신을 한쪽에 잘 모셔두고, 시신의 얼굴이 변하지 않도록 입안에 정안주(얼굴 모양을 고정하는 구슬)를 넣어 두었다. 나중에 혼이 돌아와 복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용왕이 다시 말했다. "그대의 참된 정신은 우선 내 수중 궁궐에서 도령으로 지내도록 하시오."

진악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자, 용왕은 연회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한편, 온교는 유홍이라는 도적놈이 사무치게 미워 살점을 씹고 피를 마시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몸에 아이를 잉태한 터라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 없이 억지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강주에 도착했다. 관리들이 문 앞에 서서 마중을 나왔고, 관할 관리들은 공당에 연회를 베풀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유홍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모두 여러 공의 큰 도움 덕분ियो." 그러자 부하 관리가 대답했다. "나 으리께서는 위낙 재능이 뛰어나시고 덕망이 높으시니, 당연히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시고 송사를 간결하게 처리하며 형벌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 나으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어찌 그리 겸손해하십니까?" 공적인 연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 날, 유홍이 공무로 멀리 나갔다. 관아에 남아 있던 온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리워 꽃 정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배가 뒤틀리듯 아파오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낳고 말았다. 그때 귓가에 누군가 당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당교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남극성군인데, 관음보살님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이 아이를 네게 보낸 것이다. 이 아이는 훗날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명성이 대단해질 것이니,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란다. 만약 유홍이라는 도적이 돌아오면 반드시 이 아이를 해치려 들 것이니, 네가 마음을 다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네 남편은 이미 용왕의 도움을 받았으니, 훗날 부부가 다시 만나 모자가 함께 단란하게 모이고, 원한을 씻고 복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 말을 꼭 명심하거라. 어서 깨어나거라, 어서 깨어나!"

말을 마친 목소리는 그대로 사라졌다.

온교는 정신이 들자마자 모든 상황을 기억해 냈으나,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막막할 뿐이었다. 그때 마침 유홍이 돌아오더니 아이를 보자마자 당장 물에 빠뜨려 죽이려 들었다. 온교가 급히 말했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강물에 던져버립시다.” 다행히 바로 다음 날, 유홍에게 급한 공무가 생겨 멀리 떠나게 되었다. 온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도둑놈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는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강물에 던져버리고 아이의 생사를 하늘에 맡기는 편이 낫겠다. 혹시라도 하늘이 불쌍히 여겨 누군가 아이를 구해 거두어준다면,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온교는 즉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한 장 썼다. 그곳에는 부모의 이름과 아이가 태어난 사연을 상세히 적어 넣었다. 또한 아이의 왼쪽 발가락 하나를 입으로 깨물어 떼어낸 뒤, 나중에 아이를 알아볼 증표로 삼았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속적삼으로 아이를 정성껏 감싼 뒤, 몰래 품에 안고 관아 밖으로 빠져나왔다. 다행히 관아는 강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강가에 도착한 온교는 한바탕 크게 통곡했다. 막 아이를 던지려던 찰나, 강가 쪽으로 나무판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온교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나서, 아이를 나무판자 위에 눕힌 뒤 띠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혈서를 아이의 가슴에 매달아 강물로 밀어 보낸 뒤, 아이가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았다. 온교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아로 돌아갔다.

한편, 이 아이는 나무판자에 실려 물결을 따라 흘러가다가 금산사 발치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 금산사의 장로는 법명이라 불리는 화상인데, 참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어 무생묘결(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오묘한 도리)을 터득한 이였다. 마침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에 정진하던 중, 문득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법명은 마음이 움직여 급히 강가로 달려가 살펴보니, 강둑 근처 나무판자 위에서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법명이 황급히 아이를 구해 올리다가 품속에 있는 혈서를 발견하고서야 아이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이에게 강류라는 아명을 지어주고 사람을 시켜 정성껏 키우게 하였다. 그리고 혈서는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고 해와 달은 벼들의 복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강류도 열여덟 살이 되었다. 스승은 그에게 머리를 깎고 수행에 정진하라 일렀다. 그는 현장이라는 법명을 받고 머리를 만져 계를 받았으며(마정수계), 굳은 마음으로 도를 닦았다.

어느 봄날, 사람들이 모두 소나무 그늘 아래 모여 경전을 읽고 선(禪)을 수행하며 심오한 도리를 논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술과 고기를 즐기는 파계승 하나가 마침 현장과의 논쟁에서 밀려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 중은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이 업보만 쌓는 짐승 같은 놈아!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감히 이 난리법석이야?"

현장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곧장 절로 들어가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음양의 기운을 받고 오행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세상에 어찌 부모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장은 부모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몇 번이고 애원하며 울먹였다. 그러자 스승님이 말했다.

"정말로 부모를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 방장실로 오너라."

현장은 스승님을 따라 방장실로 들어갔다. 스승님은 선반 위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혈서 한 장과 속적삼(汗衫) 한 벌

을 꺼내 현장에게 건네주었다. 현장이 혈서를 펼쳐 읽어 내려가자, 그 제야 부모님의 성함과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현장이 글을 다 읽고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져 울며 말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년 동안 친부모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다가, 오늘에서야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승님께서 저를 건져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오늘날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제자가 어머니를 찾아뵙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향로를 머리에 이고 전각을 다시 세워, 스승님의 깊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스승님이 말했다. "어머니를 찾아가려거든 이 혈서와 땀에 젖은 셔츠를 가지고 가거라. 그저 보시를 구하는 수행자로 위장하여 강주의 관아로 곧장 가야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시를 구하는 스님이 되어 곧장 강주로 향했다. 마침 유홍이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데, 이는 하늘이 모자를 만나게 하려는 뜻이었다. 현장은 사가(私衙) 입구에서 불공을 드리며 보시를 청했다.

한편, 은씨 부인은 밤새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본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소식조차 알 길이 없고, 남편은 저 도적놈에게 살해당했으며, 내 아들은 강물에 버려졌으니, 만약 누군가 거두어 키웠다면 이제 열여덟 살쯤 되었겠구나. 혹시 오늘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부인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사가 앞에서 누군가 경을 읽으며 보시를 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곧장 밖으로 나와 물었다. "어디서 오신 스님입니까?"

현장이 대답했다. "빈 승은 금산사 법명 스님의 제자입니다."

부인이 말했다. "금산사 스님의 제자라니……."

부인은 현장을 관아 안으로 들어 정성껏 공양을 대접했다. 그리고 현장의 몸가짐과 말씨를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죽은 남편과 꼭 닮아 있었다.

아가씨는 시녀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물었다.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년이 되어 출가하신 건가요? 성함은 무엇이며, 혹시 부모님은 계신가요?"

현장이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출가한 것도 아니고, 중년이 되어 출가한 것도 아닙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하늘이 내린 원한은 끝이 없고 원수의 원한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음모로 목숨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도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스승님인 법명 장로께서 강주 관아에서 어머니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다시 물었다. "어머니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말했다. "어머니의 성은 은씨이고 이름은 온교입니다. 아버지의 성은 진씨이고 이름은 광예입니다. 저의 어릴 적 이름은 강류이며, 법명은 현장입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다. "내가 바로 온교라네. 하지만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현장은 눈앞의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두 무릎을 꿇고 슬프게 통곡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기 혈서와 땀에 젖은 속옷이 증거로 있습니다."

온교가 그것을 가져와 살펴보니 과연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온교가 급히 말했다. "내 아들아, 어서 가거라."

현장이 말했다. "열여덟 해 동안 친부모를 모르고 살다가 오늘에야 어머니를 뵈었으니, 이 자식을 어찌 두고 떠나란 말씀입니까?"

아가씨가 말했다. "아들아,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유흥 그 도적이 돌아오면 반드시 네 목숨을 해칠 게야. 내가 내일은 병든 척을 하마. 그러고는 예전에 승려들의 신발 백 켤레를 시주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네 절로 가서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겠다. 그때가 되면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현장은 그 말에 따라 절을 올리고 작별을 고했다.

한편, 온교는 아들을 만난 뒤로 마음속에 근심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난 듯 앓아눕더니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만 누워 있었다. 관아에서 돌아온 유홍이 그 이유를 묻자 온교가 말했다.

"제가 어릴 적에 스님들이 신는 신발 백 켤레를 시주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닷새 전 꿈에 어떤 스님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타나 그 신발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니, 그 뒤로 몸이 좋지 않네요."

유홍이 말했다.

"그런 사소한 일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유홍은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가 왕 좌아와 이 우아에게 명령했다.

"강주 성안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스님 신발 한 켤레씩을 준비하여, 닷새 안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시오."

백성들은 모두 그 명령에 따라 신발을 준비해 바쳤다. 신발이 다 준비되자 온교가 유홍에게 물었다.

"신발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곳에 서원을 갚기에 좋은 절이 어디 있나요?"

유홍이 대답했다.

"이 강주에 금산사와 초산사가 있으니, 그중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서 서원을 갚으시오."

온교가 말했다.

"금산사가 훌륭한 절이라고 익히 들었으니, 저는 금산사로 가겠어요."

유홍이 즉시 왕 좌아와 이 우아를 불러 배를 준비하게 했다. 온교는 심복들을 데리고 배에 올랐고, 사공이 노를 저어 배를 띄우니 곧장 금산사를 향해 나아갔다.

한편, 현장이 절로 돌아와 범명 장로를 만나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장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다. 다음 날, 한 몸종이 먼저 찾아와 부인께서 절에 서원을 갚으러 오셨다고 전했다. 스님들이 모두 절 밖으로 나가 마중을 나갔다. 아가씨는 곧장 절 문으로 들어와 보살님께 절을 올리고 성대한 재를 올렸다. 아가씨는 몸종에게 스님들이 신을 신발과 버선을 쟁반에 담아 오게 한 뒤 법당으로 들어왔다. 아가씨는 다시 향을 피워 올리며 절을 올렸고, 범명 장로에게 그것을 스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일렀다. 현장이 보니 스님들이 모두 흠어지고 법당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때 현장이 가까이 다가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가 그에게 신발과 버선을 벗어 보라고 하여 살펴보니, 왼쪽 발의 새끼발가락이 과연 하나 없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며, 장로에게 키워준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범명이 말했다. "이제 모자가 만났으니 간악한 도적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렵구나. 어서 이곳을 떠나 돌아가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가씨가 말했다.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향환 하나를 줄 테니, 홍주 서북쪽으로 천오백 리쯤 가면 만화점이 나올 것이다. 그곳에 장씨

할머니가 계시는데, 바로 네 아버지의 친어머니란다. 내가 편지를 한 통 더 써줄 테니, 그것을 들고 당나라 황성이 있는 경성으로 가거라. 금전 왼쪽에는 은개산 승상의 집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네 외조부모님이 계신 곳이다. 그 편지를 외할아버지께 전해 드려라.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황제께 상소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 도적을 잡아 죽여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야만, 이 어미의 몸도 겨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오래 머물 수가 없구나. 도적이 내가 늦게 돌아온 것을 의심할까 두렵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곧 절을 나와 배를 타고 떠나갔다.

현장은 눈물을 흘리며 절로 돌아가 스승님께 모든 일을 고한 뒤, 곧장 작별 인사를 드리고 홍주로 향했다. 홍주에 도착해 만화점에 들른 현장이 주인 유소이에게 물었다.

"예전에 강주에서 온 진객관이라는 분의 어머니께서 이곳 주인집에 머무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유소이가 대답했다.

"그분은 원래 저희 가게에 계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침침해지시더니, 벌써 삼사 년째 방세도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남문 쪽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에서 매일 거리로 나가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세요. 그 객관이라는 분은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남문 쪽 기와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아냈다. 할머니는 현장을 보자마자 말했다.

"목소리가 꼭 내 아들 진광예 같구나."

현장이 말했다.

"저는 진광예가 아니라 그의 아들입니다. 온교 낭자가 저의 어머니 이십니다."

할머니가 물었다.

"네 부모님은 어찌하여 오지 않으시느냐?"

현장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강도를 만나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강도에게 빼앗겨 그의 아내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네가 어찌 알고 나를 찾아왔느냐?"

현장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와 향환(香環, 향을 피우는 고리 모양의 장신구)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와 향환을 건네받더니 목놓아 통곡하며 말했다.

"내 아들이 출세를 하러 이곳에 왔는데, 나는 그저 아들이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은 줄로만 알았더니, 이토록 남에게 살해당했을 줄이야! 그래도 하늘이 보살피 아들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구나. 오늘 이렇게 손자까지 나를 찾아오다니!"

현장이 여쭙었다.

"할머니, 눈은 어찌 그리 침침해지셨습니까?"

할머니가 슬프게 말했다.

"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온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매일같이 울기만 하다가 눈이 다 멀어버렸단다."

현장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이제 현장은 열여덟 살이 되었으나, 부모님의 원수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할머니를 찾아왔으니, 하늘께서 제 정성을 가엽게 여기신다면 할머니의 두 눈을 다시 밝게 해주소서." 기도를 마친 현장은 허끝으로 할머니의 눈을 정성껏 훑었다. 잠시 뒤, 할머니의 두 눈이 번쩍 뜨이더니 예전처럼 다시 밝아졌다. 할머니는 어린 스님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정말 내 손자가 맞구나. 내 아들 광예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밀려왔다. 현장은 할머니를 모시고 움막의 문을 나와 유소의 의 가게로 향했다. 그는 방값을 내고 방을 하나 빌려 할머니가 머물 수

있게 한 뒤, 여비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떠나더라도 한 달 정도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은 곧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곧장 경성으로 향했다. 황성 동쪽 거리에 있는 은 승상의 저택을 찾아간 현장은 문지기에게 "저는 친척인데, 승상 어른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지기가 승상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승상이 말했다. "나는 저 스님과 아무런 친척 관계가 없네." 그러자 부인이 거들었다. "어젯밤 꿈에 우리 딸 만당교가 집에 오는 꿈을 꾸었는데, 혹시 사위가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승상은 어린 스님을 대청으로 불러들였다. 현장은 승상과 부인을 뵈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리고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승상에게 건넸다. 승상이 편지를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더니, 이내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부인이 놀라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인가요?" 승상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 스님이 바로 우리 외손자라오. 사위 진광예는 도적에게 살해당했고, 딸 만당교는 도적에게 빼앗겨 아내가 되었다는구려." 부인 역시 그 말을 듣고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승상이 부인을 달래며 말했다. "부인,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내 당장 조정에 가서 황제 폐하께 아뢰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반드시 사위의 원수를 갚겠소."

다음 날, 승상이 조정에 나아가 태종에게 아뢰었다. "지금 제 사위인 장원 급제자 진악이 가족을 데리고 강주로 부임하던 중, 뱃사공 유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유흥은 진악의 신분을 가로채 아내를 빼앗고 수년 동안 관리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참혹한

변괴이오니, 부디 폐하께서 군사를 일으켜 저 도적놈들을 소탕해 주시옵소서."

태종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어림군 6만 명을 출동시키고 은 승상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처리하라 명했다. 은 승상은 명을 받들어 조정에서 물러나자마자 곧장 교장으로 가서 군사를 점검한 뒤, 곧장 강주를 향해 출발했다.

낮에는 길을 걷고 밤에는 숙소를 잡으며 나아가니, 어느덧 별이 지고 새가 날아오를 무렵 자신도 모르게 강주에 도착했다. 은 승상의 군사들은 모두 강 북쪽 기슭에 진영을 쳤다. 은 승상은 밤을 도와 금패를 내려보내 강주의 동지와 주판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며 군사를 이끌고 와 힘을 보태어 함께 강을 건너가자고 말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유홍의 관아를 포위했다. 유홍은 한창 꿈속에 있다가 갑자기 울려 퍼지는 포성과 금고 소리에 깜짝 놀랐다. 군사들이 사적인 관아로 들이닥치자, 유홍은 손쓸 틈도 없이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다. 은 승상은 군령을 내려 유홍과 그 일당을 모두 포박하여 처형장으로 압송하게 했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성 밖에 진영을 치고 머물게 했다.

승상은 곧장 관아의 정청으로 들어가 아가씨를 나와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아가씨는 나가려다가도 아버지를 뵈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차라리 목을 매 자결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장은 급히 어머니를 구해낸 뒤 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제가 외조부님을 모시고 군사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도적놈들을 모두 잡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어찌하여 죽으려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이 자식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승상 또한 관아로 들어와 아가씨를 달랬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다.

"저는 '여인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남편이 도적놈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어찌 뻔뻔하게 도적놈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뱃속에 남은 아이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고 겨우 목숨만 이어왔을 뿐입니다. 이제 다행히 아이도 장성하였고, 늙은 아버지께서도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갚으러 오셨으니, 딸 된 자로서 제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님을 뵈겠습니까? 오직 죽음으로써 남편에게 보답할 뿐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내 딸아, 네가 형편에 따라 절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으니 어찌 부끄러워하느냐?"

부녀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으며, 현장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승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희 둘은 이제 그만 괴로워하거라. 내가 이미 원수를 잡았으니, 이제 가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승상은 곧 몸을 일으켜 처형장으로 향했다. 마침 강주 동지도 초병을 보내 수적 이표를 잡아 오게 했다. 승상은 크게 기뻐하며 군졸들에게 유홍과 이표를 압송하게 하고, 각자 곤장 백 대씩을 때려 자백을 받아내게 했다. 이들은 몇 년 전 진악과 공모하여 살해했던 경위를 모두 실토했다. 먼저 이표를 나무 당나귀에 못 박아 저잣거리로 끌고 가 천 갈래로 베어버린 뒤 머리를 베어 대중 앞에 전시했다. 이어 유홍을 몇 년 전 진악이 살해당했던 홍강 나루터로 끌고 갔다. 승상은 아가씨와 현장, 세 사람이 함께 강가로 나가 허공을 향해 제를 올렸다. 그리고 유홍의 심장과 간을 꺼내어 진악의 넋을 기리는 제물로 바치고, 제문을 태우며 그 원한을 풀었다.

세 사람이 강가를 바라보며 통곡하니, 그 소리가 이미 수중 궁궐에 까지 닿았다. 순해야차(바다를 순찰하는 귀신)가 제사 글을 받들어 용왕에게 올렸다. 용왕이 글을 다 읽고는 바로 별 원수(자라 장군)를 보내 광예를 모셔 오게 하며 말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선생님의 부인과 아드님,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강가에서 선생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선생님의 혼백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의주 하나와 주반주 두 알, 비단 열 필, 그리고 명주로 장식한 옥띠 하나를 선물로 드릴 테니, 오늘 바로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십시오."

광예가 거듭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용왕은 즉시 야차에게 명하여 광예의 시신을 강 어귀로 보내 혼백이 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야차는 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한편, 온교는 남편을 위해 통곡하며 울다 못해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으나, 현장이 필사적으로 붙잡아 만류했다. 한창 당황하던 그때, 갑자기 물 위로 시체 하나가 떠올라 강가로 다가왔다. 온교가 급히 다가가 살펴보니 남편의 시신이 맞았다. 그녀는 다시금 목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살펴보니, 죽었던 진악이 팔다리를 쭉 펴고 몸을 서서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진악이 눈을 뜨니, 온교와 장인 은 승상이 어린 스님인 현장과 함께 곁에서 울고 있었다. 진악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요?"

온교가 대답했다. "당신이 도둑놈들에게 맞아 죽은 뒤, 제가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금산사 큰스님께서 아이를 거두어 키워주셨고, 아이가 저를 찾아왔기에 외조부님을 찾아가 보라고 일렀지요.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조정에 보고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도둑놈들을 잡아다가 방금 막 심장과 간을 꺼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당신을 기렸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다시 혼을 되찾아 돌아오신 것이옵니까?"

진악이 말했다. "모두 예전에 우리가 만화점에 있을 때, 그 금빛 잉어를 사서 놓아주었기 때문이라오. 그 잉어가 바로 이곳의 용왕이었던 게지. 나중에 도둑놈들이 나를 물에 밀어 넣었을 때, 다행히 그분이 나를 구해주셨다오. 방금 전에는 나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보물까지 내려주셨는데, 그 보물들이 모두 몸에 있소. 게다가 당신이

아들을 낳고, 장인어른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고생 끝에 낙이 왔구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소."

모든 관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몰려왔다. 승상은 즉시 술 자리를 마련하여 소속 관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게 했다. 그날 바로 군마를 몰아 돌아가는 길에 만화점에 이르자, 승상은 그곳에 진영을 치라고 명령했다. 진악은 현장과 함께 유가점(劉家店)으로 가서 노파를 찾아갔다.

그날 밤 노파는 꿈을 하나 꾸었는데,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고 집 뒤편에서는 까치들이 연신 시끄럽게 지저귀는 꿈이었다. 노파는 생각했다. '혹시 내 손주가 오는 것인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문밖에서 진악 부자가 나란히 나타났다. 어린 스님이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이 우리 할머니 아니세요?" 진악은 노모를 보자마자 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바탕 통곡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일을 마친 뒤 가게 주인에게 숙박비를 계산해 주고, 곧장 경성으로 향했다.

경성의 승상 저택에 도착하자 진악은 아가씨와 노모, 그리고 현장과 함께 부인을 알현했다. 부인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어 축하하게 했다. 승상이 말했다. "오늘 이 잔치는 '단원회(團圓會, 가족이 다시 모인 잔치)'라 이름 붙여도 좋겠구나."

그야말로 온 가족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당나라 황제가 대전에 올랐다. 은개산 승상이 조정에 나아가 그간의 사건들을 상세히 보고하며, 진악이 재주가 뛰어나니 크게 등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즉시 진악을 학사 직책으로 승진시키고 조정의 정사를 함께 돌보게 했다. 한편, 현장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에 들기로 결심하여 홍복사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은개산의 딸 온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장은 금산사로 돌아가 자신을 키워준 범명 화상에게 은혜를 갚았다.

결국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회 — 늙은 용왕이 어리석은 계책으로 천조를 범하고, 위 승상이 유서를 남겨 명리에게 부탁하다

老龍王拙計犯天條 魏丞相遺書託冥吏

한편, 진광예(陳光蕊)가 직무를 다하고 현장이 수행하는 일은 잠시 접어두자. 한편 장안성 밖 경하 강가에 두 현인이 살고 있었다. 한 명은 어부 장초였고, 다른 한 명은 나무꾼 이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으나 글을 아는 선비 출신들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장안성 안에서 어깨에 진 땔감과 바구니에 담긴 잉어를 팔아 돈을 벌고, 함께 주막에 들어가 술을 한껏 마신 뒤, 각자 술병을 하나씩 챙겨 경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서 돌아가고 있었다.

장초가 말했다. “이 형, 내가 보기에 명예를 다투는 자들은 이름 때문에 체면을 잃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이익 때문에 몸을 망치네. 벼슬을 얻은 자는 호랑이를 품고 자는 듯 불안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소매 속에 뱀을 넣고 다니는 격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처럼 물 맑고 산

푸른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담백하게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네.”

이정이 대답했다. “장 형의 말이 옳네. 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그 맑은 물보다는 내 산의 푸름이 더 낫다네.”

장초가 맞받아쳤다. “자네 산의 푸름이 내 물의 맑음만 못하네. 여기 <접련화>라는 노래가 그 증거라네.” 시로 이르되, “만 리 물결 위 작은 배 한 척, 외로운 돛에 조용히 기대어 서니, 서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네. 명리 따위 씻어내니 근심이 없고, 한가로이 갈대밭 사이를 거니네. 갈매기 몇 마리 노니는 모습 즐거운데, 버드나무 언덕과 갈대 늪에서, 아내와 함께 웃음꽃 피우네. 한숨 자고 나면 풍랑도 사라지니, 영광도 치욕도, 번뇌도 없으리로다.”

이정이 말했다. “자네의 맑은 물도 내 푸른 산만 못하네. 여기에도 <접련화>가 한 수 있네.” 시로 이르되, “솔향 가득한 숲속, 찢꼬리 울음 소리 약기 소리 같구나. 봄별 따스하니 꽃은 피고 잎은 무성한데, 어느덧 하지에 이르러 세월이 흐르네. 가을이 오면 황금빛 꽃 향기 맡으며, 쉽게 바뀌는 계절을 즐기노라. 매서운 겨울이 손끝에 닿은 듯해도, 사계절 내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유유자적하네.”

어부가 말했다. “자네 산의 푸름이 내 물의 맑음만 못하니, 참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는구먼. 여기 <자고천>이라는 노래가 있네.” 시로 이르되, “신선의 고향 같은 구름과 물 사이에서, 노를 저어 배를 띄우니 그곳이 바로 집이라. 싱싱한 비늘을 발라 자라를 삶고, 자줏빛 게와 붉은 새우를 찌서 즐기네. 푸른 갈대순과 마름순, 마름과 가시연밥까지

으뜸이라네. 연한 연근과 묵은 연밥, 부드러운 미나리 잎, 자고와 줄
풀, 마름꽃이 가득하네.”

나무꾼이 말했다. “자네 맑은 물도 내 푸른 산만 못하니, 좋은 것들
을 참 많이도 누리네. 여기에도 <자고천>이 있네.” 시로 이르되, “하
늘에 닿을 듯 높은 산맥 아래, 초가집 한 채가 바로 나의 집이라네. 절
인 닭과 거위는 계와 자라보다 낮고, 노루와 토끼와 사슴 고기가 물고
기와 새우보다 낮구나. 향춘나물과 황련 싹, 죽순과 산차나무까지 자
랑할 만하네. 자두와 복숭아, 매화와 살구도 익어가고, 달콤한 배와 신
대추, 목서꽃 향기도 가득하네.”

어부가 다시 말했다. “자네 산의 푸름이 정말 내 물의 맑음만 못하
네. 여기 <천선자> 한 수가 더 있네.” 시로 이르되, “작은 배 한 척 머
무는 대로 떠다녀도, 겹겹이 쌓인 물결이 두렵지 않네. 낚시바늘 던지
고 그물 쳐 싱싱한 고기 낚고, 장(醬)도 기름기도 없이 담백하나 오히
려 맛이 있네. 노처와 어린 자식 도란도란 모여 즐겁구나. 고기가 많으
면 장안 시장에 내다 팔아, 향기로운 술과 바꾸어 한껏 취해 보네. 도롱
이를 이불 삼아 가을 강에 누워, 코 골며 자는 동안 근심 걱정 없으니,
세상의 영광과 귀함 따위는 그리워하지 않네.”

나무꾼이 말했다. “자네 맑은 물은 여전히 내 푸른 산만 못하네. 여
기 <천선자>가 있네.” 시로 이르되, “산 아래 지은 몇 칸 초가집, 소나
무와 대나무, 매화와 난초가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숲을 지나 산을 넘
어 마른 땀감을 구해도, 누구 하나 나무라지 않네. 내 뜻대로 팔되, 적
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세상에 맡기네. 돈이 생기면 술을 사
마음껏 즐기고, 질그릇 사발과 자기 잔이 유난히 자유롭네. 곤드레만

드레 취하면 소나무 그늘에 누우니, 거리낄 것도, 이해득실도 없이, 세상의 흥망에 상관치 않으리.”

어부가 말했다. “이 형, 자네 산속 생활도 내 물 위에서의 삶만큼 즐겁지는 못할 걸세. 여기 <서강월>이 있네.” 시로 이르되, “붉은 여뀌꽃은 달빛에 비치고, 노란 갈대 잎은 바람에 어지러이 흔들리네. 푸른 하늘은 멀고 초강은 빈 듯한데, 온 못의 별빛을 끌어 일렁이게 하네. 그물에는 큰 물고기들이 떼 지어 들고, 미끼를 무는 작은 쏘가리들도 떼를 이루네. 잡아다 삶으니 맛이 유난히 깊고, 강호를 누비며 웃고 떠드니 즐겁구나.”

나무꾼이 말했다. “장 형, 자네 물 위에서의 삶도 내 산속에서의 삶만큼 즐겁지는 못할 걸세. 여기에도 <서강월>이 있네.” 시로 이르되, “마른 잎과 시든 덩굴이 길에 가득하고, 부러진 가지와 늙은 대나무가 산에 넘치네. 새삼과 마른 칙덩굴이 어지러이 엉켜 있으니, 꺾어 새끼로 묶어 짐을 단단히 매네. 벌레 먹어 속 빈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바람에 끝이 꺾인 소나무와 녹나무. 캐어다 쌓아 겨울 추위를 대비하고, 술로도 돈으로도 나에게서 바꾸어 가네.”

어부가 말했다. “자네 산속이 아무리 견줄 만하다 해도, 내 물가의 그윽함만은 못할 걸세. 여기 <임강선>이 있네.” 시로 이르되, “떨물이 지면 외론 배를 옮겨 떠나가고, 밤 깊으면 노 젓기를 멈추고 뱃노래 부르며 돌아오네. 도롱이에 지는 달빛이 참으로 그윽하여, 잠든 갈매기도 놀라 날지 않는데, 하늘가에는 채운이 피어오르네. 갈대 모래톱에 굳히 누워 아무 일 없이, 해가 세 길이나 솟도록 그대로 눕장 부리네.

마음 가는 대로 뜻대로 지내니, 궁궐에서 추위에 떨며 시각을 살피는 조정 신하들이 어찌 나처럼 너그러울 수 있겠는가.”

나무꾼이 말했다. “자네 물가의 그윽함도 내 푸른 산의 그윽함만은 못하네. 여기 <임강선>이 있네.” 시로 이르되, “가을 깊은 날 이끼 낀 산길을 따라 도끼를 들고 가서, 서늘한 저녁에 지계를 지고 돌아오네. 들꽃을 귀밑머리에 꽃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구름을 헤치고 길을 찾아 나가서, 달이 뜨기를 기다려 문을 두드려 열게 하네. 어린 자식과 산속 아내가 웃으며 반겨 맞으니, 풀 침상과 나무 베개에 비스듬히 기대 누네. 배를 찌고 기장밥을 지어 곧바로 차려 내고, 향아리 속에는 새로 빚은 술이 익었으니, 참으로 그윽한 회포를 복돋우는구나.”

어부가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의 생업이요 몸을 먹여 살리는 일이지만, 자네에게는 나처럼 한가할 때의 좋은 점이 없네. 시로써 증명하겠네. 시로 이르되, ‘푸른 하늘에 백학 나는 것을 한가로이 바라보다, 시냇가에 배를 멈추고 사립문을 닫네. 봉창에 기대어 자식에게 낚싯줄 꼬는 법을 가르치고, 노를 거두고는 아내와 함께 그물을 펼쳐 말리네. 마음이 안정되니 과연 물결이 잔잔한 듯하고, 몸이 편안하니 절로 바람이 잔잔함을 느끼네. 푸른 도롱이와 청색 샷갓을 철따라 걸치니, 조정에서 자줏빛 인끈 옷 걸치는 것보다 낫구나.’”

나무꾼이 말했다. “자네의 한가한 때도 내 한가한 때만 못하네. 역시 시로써 증명하겠네. 시로 이르되, ‘아득히 흰 구름 나는 것을 한가로이 바라보다, 홀로 초암에 앉아 대나무 사립문을 닫네. 일이 없으면 아이를 가르치며 책을 펴 읽고, 때로는 손님을 마주하여 바둑을 두네. 흥이 나면 지팡이 짚고 꽃다운 오솔길에서 노래하고, 흥이 일면 거문고를 안

고 푸른 산기슭에 오르네. 짙신에 삼꾼, 거친 베 이불이지만, 마음이
너그러우니 비단옷 입은 것보다 낫구나.”

장초가 말했다. “이정, 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낮게 읊조리며 서로
친히 즐길 만하니, 박자판이나 금 술잔이 따로 필요 없네. 다만 이렇게
사장(詞章)을 흠어 읊는 것은 그리 진귀할 게 없으니, 각자 몇 구절씩
이어 지어 우리 어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어떠한지 보는 것이 어떻겠
나?” 이정이 말했다. “장 형의 말이 참으로 묘하구려. 형이 먼저 읊어
보시게.” 장초가 읊었다. “배는 푸른 물 안개 물결 속에 멈추고, 집은
깊은 산 너른 들에 자리하네. 시내 다리에 봄물 불어남을 유난히 사랑
하고, 바위 봉우리에 새벽 구름 자욱함을 가장 어여뻐 여기네. 용문의
싱싱한 잉어를 때때로 삶아 먹고, 벌레 먹은 마른 뽕나무를 날마다 태
우네. 낚싯대와 그물 여러 가지로 늙은 몸을 먹여 살릴 만하고, 지게와
새끼줄 두 가지면 일생을 마칠 만하네. 작은 배에 누워 나는 기러기를
바라보고, 풀 오솔길에 비스듬히 기대 우는 기러기 소리를 듣네. 구설
(口舌)의 마당에 내 뭇이 없고, 시비(是非)의 바다 안에 내 자취가 드무
네. 시냇가에 그물을 걸어 말리니 비단 같고, 바위 위에 도끼를 거둬 가
니 칼날 같네. 가을 달 밝은 밤에 늘 홀로 낚시하고, 봄 산 적막하여 사
람을 만나지 못하네. 고기가 많으면 술과 바꾸어 아내와 함께 마시고,
뽕나무가 남으면 술병을 사 자식과 함께 나누네.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
로 따르며 자유로이 지내고, 길게 노래하고 길게 탄식하며 거센 바람에
맡기네. 형을 부르고 아우를 불러 뱃동무를 청하고, 벼를 이끌고 친구
를 데려 시골 늙은이들과 모이네. 주령(酒令)을 행하고 주먹 켜며 하
자주 잔을 돌리고, 패를 떼고 글자를 맞히며 한가로이 술잔을 전하네.
새우를 삶고 게를 끓이며 아침마다 즐겁고, 오리를 볶고 닭을 고으며

날마다 풍성하네. 어리석은 아낙은 차를 달이니 정이 담박하고, 산속
 아내는 밥을 지으니 마음이 느긋하네. 새벽이면 막대를 들어 잔물결을
 일고, 해 뜨면 땀나물을 지고 큰 개울을 건너네. 비 온 뒤엔 도롱이 걸
 치고 살아있는 잉어를 잡고, 바람 앞에선 도끼를 놀려 마른 소나무를
 베네. 자취를 숨기고 세상을 피해 어리석은 척 꾸미고, 성을 감추고 이
 림을 묻어 병어리·귀머거리 행세를 하네.” 장초가 말했다. “이 형, 내가
 외람되이 먼저 구절을 시작했으니, 이제 형 차례라네. 형이 먼저 한 연
 을 떼면 이 아우가 마땅히 이어가겠네.” 이정이 읊었다. “바람과 달에
 거짓 미친 척하는 산야의 사내요, 강호에 오만함을 부치는 늙은 장정이
 라. 청한(淸閑)함에 분수가 있어 소탈함을 따르고, 구설이 들리지 않으
 니 태평을 기뻐하네. 달밤엔 초가집에서 편안히 몸을 누이고, 날 저물
 면 가벼운 대 도롱이로 몸을 덮네. 정을 잊고 소나무·매화를 벗으로 사
 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매기·해오라기와 맹세를 맺네. 명리(名利)는
 마음에 켜하지 않고, 전쟁(干戈) 소리는 귓가에 들리지 않네. 때때로
 향기로운 막걸리 한 잔 따르고, 날마다 세 끼 산나물국으로 지내네. 땀
 나무 두 묶음이 생계가 되고, 낚시대 하나가 살림이 되네. 한가로이 어
 린 자식 불러 강철 도끼를 갈게 하고, 조용히 어수룩한 아이 불러 낚은
 그물을 집게 하네. 봄이 오면 푸른 버들 보기를 좋아하고, 철이 풀리면
 푸른 갈대 보기를 즐기네. 여름엔 더위를 피해 새 대나무를 손질하고,
 유월엔 서늘함을 타고 연한 마름을 따네. 상강(霜降)엔 닭이 살져 늘
 잡아먹고, 중양(重陽)엔 게가 통통해 때맞춰 삶네. 겨울이 오면 해가
 떠도 도리어 깊이 잠들고, 한겨울 하늘 높아도 절로 춥지 않네. 여덟 절
 기 산속에서 성정을 마음껏 풀고, 사철 호수에서 정취를 마음대로 즐기
 네. 땀나무 캐는 데 절로 신선의 흥이 있고, 낚시를 드리움에 전혀 세속
 의 모습이 없네. 문밖엔 들꽃이 향기롭게 곱고, 뱃머리엔 푸른 물결이

잔잔하네. 몸이 편안하니 삼공(三公)의 자리를 말하지 않고, 성정이 안정되니 십 리 성보다 낮네. 십 리 성이 높아도 문지기의 명령을 막아야 하고, 삼공의 자리가 높아도 임금의 명을 들어야 하네.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길 것이 참으로 드무니,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신명께 감사하네.”

두 사람은 서로 시를 읊고 노래를 주고받으며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다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자 몸을 굽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장초가 말했다. “이 형님, 가는 길에 몸조심하십시오. 산에 가실 때는 호랑이를 조심하시고요. 만약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그게 바로 ‘내일 거리에서 옛 친구를 못 보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게으름뱅이 같은 놈! 진정한 친구라면 생사도 함께할 수 있는 법인데, 어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느냐? 만약 내가 호랑이를 만나 해를 입는다면, 자네는 반드시 물결에 휩쓸려 강에 빠질 것이야!”

장초가 대꾸했다. “나는 영원히 강에 빠질 일 없을 걸세.”

이정이 말했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구름이 있고, 사람에게는 잠시 닥치는 화와 복이 있는 법’이라네. 자네는 대체 어떻게 아무 탈 없이 지내겠다는 건가?”

장초가 말했다. “이 형님,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신 모양이구려. 차라리 내 생업이 갈피를 딱 잡고 있으니, 이런 일은 절대 겪지 않는 것이라네.”

이정이 물었다. “자네가 물 위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일인데, 대체 무슨 갈피가 있다는 말인가?”

장초가 말했다.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네. 장안성 서문가에 점을 치는 선생이 한 분 계시거든. 내가 매일 그분께 금잉어 한 마리를 대접하면, 그분이 소매 속에서 점괘를 하나 적어주시는데, 그 방향대로만 하면 백 번을 해도 백 번 다 맞아떨어진다네. 오늘 내가 가서 점을 쳐보니, 경하 물굽이 동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서쪽 기슭에 낚싯바늘을 던지면 반드시 물고기와 새우를 가득 잡아 돌아올 것이라더군. 내일 성안으로 올라가서 물고기를 팔아 술을 사 들고 올 테니, 그때 다시 형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세나.”

두 사람은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길을 가다 말을 들으니 풀숲에 사람이 숨어 있더라."

원래 경하의 수중 궁전에는 물을 순찰하는 야차가 하나 있었는데, 점술가가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급히 수정궁으로 돌아가 황급히 용왕에게 보고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용왕이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야차가 대답했다. "신이 물을 순찰하러 강가에 갔다가 어부와 나무꾼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헤어질 때 나누는 말이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니다. 그 어부가 말하기를, 장안성 서문가에 점을 아주 잘 치는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잉어 한 마리를 대접하면, 그 선생은 소매 속에서 점괘를 꺼내어 백발백중으로 맞힌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점괘가 정말로 다 맞다면, 수중 생물들이 죄다 잡혀 죽고 말 텐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중 궁전이 어찌 위엄을 세우고 물결을 일으키며 대왕님의 위력을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용왕은 크게 노하여 급히 칼을 치켜들고, 당장 장안성으로 올라가 그 점술가를 죽여버리려 했다. 이때 용자(龍子), 용손(龍孫), 하신(蝦臣), 해사(蟹士), 시군사(鰐軍師), 꺄소경(鰐少卿), 이태재(鯉太宰)가 곁에서 나서며 일제히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히소서. 예부터 '귀에 스치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가시면 반드시 구름이 따르고 비가 도와줄 터인데, 자칫 장안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하늘의 별을 받을까 두렵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모습을 숨기거나 나타내는 것이 해아릴 수 없고 변화무쌍하시니, 그저 선비로 변장하여 장안성에 들어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어떠하옵니까? 만약 정말로 그런 자가 있다면 그때 가서 처단해도 늦지 않으나, 만약 그런 자가 없다면 공연히 남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왕은 상소한 대로 보검을 내려놓고 비바람을 일으키는 일도 그만둔 채, 강가로 나와 몸을 흔들어 변신했다. 그러자 정말로 다음과 같은 모습의 백의 선비로 변했다.

시로 이르되,

풍채는 늠름하여 산맥을 솟구치고 하늘에 닿을 듯하며, 걸음걸이는 단정하여 법도에 어긋남이 없구나. 말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절은 주나라 문왕의 법도를 두루 갖추었네. 몸에는 옥빛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유유자적인 일자 모양의건을 썼도다.

길을 따라 구름을 헤치듯 성큼성큼 걸어가 장안성 서문가 대로에 다
다르니, 사람들이 떼 지어 북적이며 떠들썩하게 모여 있는 것이 보였
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용띠는 본
명에 이롭고, 호랑이띠는 상충한다네. 인, 진, 사, 해가 비록 합을 이룬
다 해도, 가장 두려운 것은 해를 다스리는 운수와 부딪히는 것이지!”
용왕은 그 말을 듣고 이곳이 점을 치는 곳임을 직감했다. 용왕이 앞으
로 나아가 사람들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니, 다음과 같았다.

사방에는 진주가 박혀 빛나고, 방 안은 화려한 비단으로 가득하다.
향로에서는 끊임없이 향기가 피어오르고, 도자기 병에 담긴 물은 맑기
그지없다. 양옆에는 왕유의 그림이 늘어서 있고, 상좌에는 귀곡자의
형상이 높이 걸려 있다. 단계의 벼루와 금연목, 그리고 서리가 내린 듯
한 붓이 어우러져 있고, 화주림과 괘박의 수법이 대정의 신경과 나란히
놓여 있다. 육효에 능숙하고 팔괘에 정통하여, 천지의 이치를 알고 귀
신의 형편을 훤히 꿰뚫어 본다. 자오의 운수를 한 판에 정해두니, 가슴
속에는 별들의 흐름이 맑게 펼쳐져 있다. 참으로 다가올 일과 지나간
일을 달빛 비친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어느 집안이 흥하고 망할지를 신
명처럼 알아맞히니, 흥함을 알고 길함을 정하며 죽을 자와 살 자를 판
별한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붓을 놀리면 귀
신조차 놀라게 한다. 간판에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점술가 원수성 선
생이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당나라 천문 관청인 흠천감 대정 원
천강의 숙부인 원수성이다. 이 선생은 과연 생김새가 기이하고 용모가
수려했으며, 그 명성은 대국에 떨치고 술법은 장안에서 으뜸이었다.

용왕이 문 안으로 들어와 선생과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를 마친 뒤 용왕을 상석에 모시고 동자가 차를 올렸다. 선생이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물으러 오셨습니까?” 용왕이 말했다. “하늘의 날씨가 어떠할지 점을 치고 싶소.” 선생은 즉시 소매 안에서 점괘를 꺼내어 말했다. “구름은 산꼭대기를 가리고 안개는 숲 끝을 덮었습니다. 만약 비가 내릴지를 점친다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용왕이 다시 물었다. “내일 몇 시에 비가 내리겠소? 그리고 비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겠소?” 선생이 답했다. “내일 진시(오전 7~9시)에 구름이 끼고, 사시(오전 9~11시)에 천둥이 치며, 오시(오전 11~오후 1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미시(오후 1~3시)가 되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비의 양은 모두 물 세 자 석 촌에 사십팔 점이 될 것입니다.” 용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아니오. 만약 내일 비가 내리고 당신이 말한 시각과 양이 정확하다면, 사례로 금 쉼 냥을 보내겠소. 하지만 만약 비가 오지 않거나, 시각과 양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반드시 당신의 체면을 깎아버리고 간판을 찢어버린 뒤 장안에서 당장 쫓아내어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선생은 기쁘게 대답했다. “그 말씀은 꼭 따르겠습니다. 그럼 내일 비가 온 뒤에 다시 뵙지요.”

용왕은 작별 인사를 하고 장안을 떠나 수중 궁전으로 돌아갔다. 크고 작은 수신들이 뒤따라오며 물었다.

"대왕님, 그 점쟁이는 어떠했습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있고말고, 아주 대단하더군. 하지만 입만 살아서 허풍을 떠는 선비 일 뿐이야. 내가 언제 비가 내릴지 물으니 내일 비가 올 것이라 하고, 몇 시에 내릴지, 비의 양은 얼마나 될지 물으니 진시(오전 7~9시)에 구름이 끼고, 사시(오전 9~11시)에 천둥이 치며,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미시(오후 1~3시)가 되면 비가 그칠 것이며, 물의 깊이는 3척 3촌 48점(약 1m)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내기를 하나 걸었지. 만약 그의 말이 딱 들어맞으면 사례금으로 은 50냥을 주겠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의 가게를 때려 부수고 쫓아버려서 다시는 장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야."

수중 신족들이 웃으며 말했다.

"대왕님은 여덟 강을 총괄하시고 비를 관장하시는 거대한 용신이 아니십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오직 대왕님만이 아시는 법인데, 그 점쟁이가 어찌 감히 그런 망언을 한단 말입니까? 그 점쟁이는 틀림없이 질 것이고, 분명히 질 것입니다!"

이때 용자, 용손과 어경(魚卿), 계사가 이 일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경하 용왕은 어명을 받들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금빛 옷을 입은 역사가 옥제의 칙지를 손에 받쳐 들고 수중 궁전으로 곧장 날아 내려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용왕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엄숙한 태도를 갖춘 뒤, 향을 피우며 칙지를 받았다. 금의 역사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자, 용왕은 은혜에 감사하며 봉투를 뜯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덟 강을 다스리는 자에게 명하노니, 뇌성과 번개를 부려 내일 아침 비를 내려 장안성을 널리 구제하라." 칙지에 적힌 시간과 비의 양은 점술

가 원수성이 예언했던 것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다. 이를 본 용왕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용왕이 수중 신족들에게 말했다. "속세에 저토록 영험한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천지의 이치를 꿰뚫고 있구나.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겠어!" 그러자 시군사(鱗軍師)가 아뢰었다. "대왕님, 안심하십시오. 저자를 이기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저에게 작은 계책이 있으니, 반드시 저놈의 입을 다물게 만들겠습니다." 용왕이 계책을 묻자 군사가 말했다. "비를 내리는 시간이나 양을 조금만 틀리게 하면, 저놈의 점괘가 맞지 않게 되니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저놈의 간판을 부수고 쫓아버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용왕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

다음 날, 용왕은 풍백과 뇌공, 운동과 전모를 불러 모아 장안성 구만리 상공까지 올라갔다. 그는 사시(巳時, 오전 9~11시)가 되어서야 구름을 깔고, 오시(午時)에 천둥을 치게 하며, 미시(未時)에 비를 내리게 하고, 신시(申時)에 비가 그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빗물은 겨우 삼척 사십 점밖에 내리지 않았다. 점쟁이가 예언한 시각을 한 시진(時辰) 어긋나게 하고, 예언한 빗물 양에서 삼촌 팔 점을 깎아낸 것이었다. 비가 그친 뒤 장수들에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라 명한 용왕은 다시 구름에서 내려와, 또 흰 옷 입은 선비로 변장하여 장안 서문 안 대로로 가더니, 원수성의 점술 가게로 들이닥쳐 앞뒤 가릴 것 없이 간판과 붓, 벼루 등을 모조리 때려 부수었다.

원수성은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용왕은 문짝까지 들어 올려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복과 화를 함부로 점치

는 요망한 놈 같으니! 사람들을 홀리는 망나니 같은 놈! 네 점괘는 영험
 하지도 않은 데다 말은 또 어찌 그리 허무맹랑하나? 오늘 비가 내리는
 시간과 양을 하나도 맞히지 못했으면서, 어찌 겁도 없이 저렇게 높이
 앉아 있느냐? 어서 여기서 꺼지지 못할까! 이번 한 번만 죽을죄를 용서
 해 주마!" 원수성은 눈곱만큼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냉소를 지었다.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아. 내게는 죽을죄
 가 없으나, 오히려 네놈에게 죽을죄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나는 네놈을 알아보겠다. 너는 선비가
 아니라 경하의 용왕이로구나! 너는 옥제의 칙령을 어기고 비 내리는 시
 각을 바꾸고 빗물 양을 깎아 천조(天條, 하늘의 법도)를 범했다. 너는
 과룡대(剛龍臺) 위에서 한 칼을 면키 어려울 터인데, 아직도 여기서 나
 를 꾸짖느냐?" 그 말을 들은 용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의 털이
 쭈뼛 설 정도로 겁에 질렸다. 그는 급히 문짝을 내던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선생님, 제발 꾸짖지 마십
 시오. 앞서 한 말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인데, 설마 거짓이 진짜가 되어
 정말로 천조를 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디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을지언정 당신을 가
 만두지 않겠습니다." 원수성이 말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
 다만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살길 하나를 일러줄 뿐이다." 용왕이
 간청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원수성이 이어서 말했다. "너는
 내일 오시 삼각(午時三刻, 오전 11시 45분경)에 인조관(人曹官) 위징
 에게 끌려가 참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목숨을 보전하고 싶다면,
 서둘러 지금의 당태종 황제에게 달려가 고해야 한다. 위징은 당나라 황
 제 휘하의 승상이니, 그에게 사정을 청해야 비로소 무사할 수 있을 것
 이다."

용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어느덧 붉은 해는 서산으로 지고, 달과 별이 떠오르는 밤이 되었다.

시로 이르되,

보랏빛 안개 낀 산에는 까마귀들 지쳐 돌아가고 먼 길 떠나는 나그네는 여관을 찾아드네. 나루터 모래사장에는 기러기 떼 깃들었는데 은하수 흐르고 북소리 울리니, 외딴 마을 등불은 불꽃도 없이 희미하구나. 바람은 일렁이고 화로 연기는 고요한 사찰에 피어나는데 나비 꿈속의 사람은 보이지 않네. 달빛은 옮겨가 꽃 그림자 난간 위에 드리우고 별빛은 어지러운데 물시계 소리만 바뀌어가니, 어느덧 깊은 밤이 절반이나 지났구나.

경하의 용왕은 수중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허공에 머물렀다. 그러다 자시(子時, 밤 11시~새벽 1시) 전후가 되자 구름을 거두고 안개를 걷어낸 뒤, 곧장 황궁 문 앞으로 날아왔다. 이때 당태종은 꿈속에서 궁궐 문 밖으로 나와 달빛이 비치는 꽃그늘 아래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용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외쳤다.

“폐하,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태종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짐이 그대를 어찌 구한단 말인가?”

용왕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참된 용이시지만, 신은 업보를 쌓은 용입니다. 신이 천조(天條, 하늘의 법도)를 어기는 바람에 폐하의 현명한 신하인 위징에게 처형당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찾아와 엎드려 빌며 폐하께서 저를 한번만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태종이 대답했다.

“위징이 처형하라고 한 것이라면 짐이 그대를 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보게나.”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물러갔다.

한편, 태종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일이 내내 마음속에 맴돌았다.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새벽 세 시경이었으나, 태종은 곧바로 조회를 열어 문관과 무관들을 불러 모았다. 조정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안개는 봉황이 머무는 궁궐을 감싸 안고, 향기는 용이 거처하는 누각에 가득하구나. 붉은 병풍 너머로 빛이 일렁이고, 비취색 깃발 위로 구름이 흐른다. 임금과 신하가 요순시대의 성군들처럼 마음을 합하니, 예악의 위엄은 한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맞먹는도다. 신하들의 등불과 궁녀들의 부채가 나란히 빛을 발하고, 공작 문양 병풍과 기린이 새겨진 전각마다 광채가 넘쳐흐른다. 만세와 천추를 기원하는 외침이 산천을 울리니, 고요한 채찍 소리 세 번에 신료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면류관을 쓴 채 엎드려 절한다. 궁궐의 꽃들은 찬란하고 하늘의 향기가 감도는 데, 제방의 버들가지 부드럽게 흔들리며 궁중 음악에 맞춰 노래하듯 춤춘다. 진주와 비취로 장식된 발은 금 갈고리에 높이 걸려 있고, 용과 봉

황이 그려진 부채와 산하가 새겨진 부채가 가득하며, 보배로운 가마가 멈춰 서 있다. 문관들은 빼어난 재주를 뽐내고 무장들은 늠름한 기개를 떨치니, 어도에는 품계에 따라 줄을 섰고 붉은 계단에는 관직의 위엄이 늘어서 있다. 금빛 장식과 자줏빛 띠를 두른 이들이 코끼리 세 마리가 끄는 가마를 타고 나아가니, 이 나라의 영광이 하늘과 땅처럼 영원토록 만만년 이어지리라.

신하들이 모두 조례를 마치고 각자 자리로 물러갔다. 당태종은 눈을 번뜩이며 신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문관 중에는 방현령, 두여회, 서세적, 허경중, 왕규 등이 보였고, 무관 중에는 마삼보, 단지현, 은개산, 정교금, 유흥기, 호경덕, 진숙보 등이 보였다. 모두가 위엄 있고 엄숙한 모습이었으나, 정작 위징 승상은 보이지 않았다.

태종이 서세적을 전각 위로 불러 말하였다. "짐이 밤사이에 기이한 꿈을 꾸었노라. 어떤 사람이 정면으로 다가와 절을 하며 자신을 경하용왕이라 하더구나. 그가 천조(하늘의 법도)를 어겨 인조관(人曹官) 위징에게 처형당하게 되었으니, 짐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여 짐이 이미 허락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조례를 하는데 어찌 위징만 보이지 않는 것이냐?" 서세적이 대답하였다. "그 꿈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징을 불러 조례에 참석하게 하소서. 폐하께서는 그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꿈속의 용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명을 내려, 내관을 통해 위징을 불러 조례에 참석하게 하였다.

한편, 위징 승상은 집에서 밤새 하늘의 형세를 살피며 보배로운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만리 높은 하늘에서 학의 울음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천계의 신선이 내려와 옥제의 금지(金旨, 옥황상제의 명령)를 받들어 전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오시 삼각(오전 11시 45분경)에 꿈속에서 경하 노룡(老龍)을 베라는 것이었다. 위징은 천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갈히 한 뒤, 집에서 지혜의 칼을 시험하고 원신(元神, 참된 정신)을 운용하느라 조정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황제의 명을 받드는 관리가 찾아와 명령을 전하자, 위징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감히 임금의 명을 어길 수 없었기에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띠를 묶은 뒤, 명령을 받들고 조정으로 나아가 황제 앞에 엎드려 죄를 청했다.

태종이 말했다. "경에게 죄가 없으니 사면하노라."

당시 신하들이 아직 조회를 마치고 물러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태종은 휘장을 거두고 조회를 끝내라고 명했다. 오직 위징만을 남겨 금빛 옥좌로 불러들인 뒤, 편전에서 먼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방책과 나라를 굳건히 할 계책을 논의했다. 사시 말에서 오시 초쯤 되었을 때, 태종이 궁인들에게 명했다. "커다란 바둑판을 가져오너라. 짐이 현명한 경과 바둑 한 판을 두겠노라." 여러 후궁들이 저마다 바둑판을 챙겨와 어안에 펼쳐 놓았다. 위징은 은혜에 감사하며 태종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한 수 한 수 주고받으며 형세를 갖추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난가경》에 나오는 바둑의 도리와 같았다.

바둑을 두는 도리는 엄격하고 신중함에 있다. 고수는 중앙을 중시하고, 하수는 변을, 중수는 귀를 살피는 것이 바둑꾼의 상례이다. 법도에 이르기를, "한 수를 내어줄지언정 먼저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

다"라고 하였다. 왼쪽을 치면 오른쪽을 살피고, 뒤를 공격하려면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먼저가 있으면 나중에 있고, 나중에 있으면 먼저가 있는 법이다. 양쪽 모두 살 길이 있으면 끊지 말아야 하고, 모두 살아있다면 (억지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간격이 너무 넓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뻣뻣해서도 안 된다. 한 수에 집착하여 살길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수를 버리고 승리를 취하는 것이 낫고,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자리를 굳히고 스스로 보충하는 것이 낫다. 적군이 많고 아군이 적으면 먼저 살아남을 길을 도모하고, 아군이 많고 적군이 적으면 반드시 세력을 넓혀야 한다. 승리에 능한 자는 다투지 않고, 진법에 능한 자는 싸우지 않으며, 싸움에 능한 자는 패하지 않고, 패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바둑은 처음에 정석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기묘한 수로 승부를 결정짓는 법이다. 적이 아무 일도 없는데 스스로 보충한다면 이는 침범해 들어오려는 뜻이 있는 것이요, 작은 것을 버리고 구하지 않는다면 큰 것을 도모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저 손 가는 대로 두는 자는 꺾이 없는 자요, 생각 없이 응수하는 자는 패배할 길을 걷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하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말이다.

시로 이르되, 바둑판은 땅이요 돌은 하늘이니, 음양의 색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만드네. 미묘하고 깊은 변화의 경지에 이르면, 옛날 난가(爛柯)의 신선도 웃으며 칭송하리라.

임금과 신하가 바둑을 두었는데, 마침 오시 삼각(오전 11시 45분경)에 이르러 한 판의 끝맺음이 남은 상태였다. 그때 위징이 갑자기 탁자 옆에 엎드려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다.

태종이 웃으며 말했다. “경은 참으로 나라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지극하고, 강산을 일구는 힘이 고단하여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것이로군.”

태종은 위징이 잠든 것을 그대로 두었을 뿐, 깨우지도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위징은 바닥에 엎드려 빌며 말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제멋대로 행동하였으니, 부디 폐하께서는 신이 임금을 소홀히 대접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이 말했다. “경에게 무슨 소홀함이 있겠는가? 어서 일어나게. 남은 바둑판은 치워 버리고, 자네와 다시 새로 한 판 두세나.”

위징이 은혜에 감사하며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정 문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진숙보와 서무공 등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용의 머리 하나를 들고 황제 앞에 이르러 이렇게 아뢰기 시작했다.

“폐하, 바다가 얕아지고 강이 마르는 일은 보았어도, 이토록 기이한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종과 위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진숙보와 서무공이 대답했다.

"천보랑 남쪽 십자거리에 있는 구름 사이에서 이 용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신들이 감히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종이 놀라 위징에게 물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위징이 몸을 돌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방금 꿈속에서 신이 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태종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경이 잠시 졸고 있을 때, 몸을 움직이거나 손을 쓴 적도 없고 칼이나 검을 쥐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 용을 베었던 말이냐?"

위징이 아뢰었다.

"주군, 신의 몸은 폐하 앞에 있으나 정신은 꿈속에서 폐하를 떠났나이다. 몸은 폐하 곁에서 정사를 돌보느라 눈꺼풀이 무거웠으나, 꿈속에서 폐하를 떠나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용은 용대(龍臺)라는 곳에서 천병들에게 결박당해 있었나이다. 이에 신이 이르기를, '너는 천조를 어겼으니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네 남은 생을 끊으리라' 하였나이다. 용이 슬프게 울부짖으니 신의 정신이 더욱 또렷해졌나이다. 용이 애처롭

게 울며 발톱을 거두고 비늘을 낚은 채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기에, 신은 정신을 가다듬고 옷자락을 걷어 올린 채 한 걸음 나아가 서리처럼 차가운 칼날을 치켜들었나이다. 쟁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지나가자, 용의 머리가 허공에서 떨어졌나이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기쁜 것은 위징 같은 훌륭한 신하가 조정에 있으니, 나라가 어지러울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고, 슬픈 것은 꿈속에서 용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도리어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태종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서무공에게 명을 내려, 용의 머리를 시조(市曹, 시장 관리 관청)에 걸어두고 장안의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게 했다. 위징에게 상을 내린 뒤 여러 관리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날 밤 궁으로 돌아온 태종의 마음은 근심과 우울함으로 가득했다. 꿈속에서 본 그 용이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인생의 무상함이란 이토록 허망하여, 어찌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점차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게 불안해졌다.

그날 밤 이경(밤 9시~11시 사이)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궁궐 문밖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종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겨우 잠이 들려는데, 이번에는 경하 용왕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 하나를 손에 든 채 나타났다. 용왕은 크게 소리쳤다.

"당태종, 내 목숨을 돌려다오! 내 목숨을 돌려달란 말이다! 어젯밤에 는 분명히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어찌 해가 뜨자마자 관직에 있는 자를 보내 내 목을 베게 한단 말이나! 당장 나오너라, 어서 나오란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염라대왕께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용왕은 태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몇 번이고 소란을 피우며 놓아주지 않았다. 태종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한 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몸부림칠 뿐이었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였다. 정남쪽 하늘에서 향기로운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오색 안개가 넘실거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이 버들가지 하나를 손으로 가볍게 휘두르자, 머리 없는 용이 슬프게 울부짖으며 곧장 북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알고 보니 이는 관음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동토(東土)로 떠날 구도자를 찾으러 장안성의 토지묘에 머물던 중이었다. 밤마다 귀신이 울부짖고 신령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황제를 구하기 위해 특별히 내려와 엽보를 쌓은 용을 꾸짖어 쫓아낸 것이었다. 용은 그대로 저승으로 달려가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고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태종은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 바람에 세 명의 황후와 여섯 궁의 후궁들, 그리고 가까이 모시던 내관들은 겁에 질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어느덧 새벽 세 시경이 되자, 조정의 문관과 무관들은 모두 조정 문밖에서 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황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관리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안절부절못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교지가 내려왔다. "짐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모든 관리는 조회를 면하라." 그렇게 닳새가 훌쩍 지나갔다. 관리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떨며 문을 두드리서라도 황제를 뵈고 안부를 여쭙려 했으나, 태후의 교지가 내려와 의관들을 궁으로 불러 약을 쓰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조정 문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애를 태웠다. 잠시 후 의관이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다급히 어떤 병인지 물었다. 의관이 대답했다. "황제 폐하의 맥이 바르지 못합니다. 맥이 허하면서도 빠르게 뛰고, 헛것이 보인다는 망언을 하십니다. 또한 맥을 짚어보니 열 번 뛰는 사이에 한 번씩 멎으니(십동일대, 十動一代), 오장(五臟)의 기운이 다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칠일 안에는 돌아가실 듯합니다." 관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경악했다.

한창 경황이 없는 와중에, 태후의 명이 내려 서무공, 호국공, 울지공을 불러들여 뵈게 하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 사람은 명을 받들어 급히 별궁 누각 아래로 들어갔다. 예를 올리자 태종이 엄숙한 얼굴로 억지로 말을 이어갔다.

“경들이여, 과인이 열아홉 살에 군사를 이끌고 남쪽과 북쪽으로 정벌을 다니며 동서의 적들을 물리치며 수년 동안 고생을 해보았으나, 단 한 번도 사악한 기운을 본 적이 없었소. 그런데 오늘 도리어 귀신을 보게 되었구려.”

그러자 울지공이 말했다.

“이 나라를 세우며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는데, 귀신 따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태종이 다시 말했다.

“경들이 믿지 못하는 모양이구려. 짐의 침전 문밖에서는 밤만 되면 무언가 던지고 깨뜨리는 소리와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소. 낮에는 그나마 괜찮으나 밤이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울지공이 대답했다.

“폐하,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오늘 밤은 저와 경덕(울지공의 자)이 궁문을 지키며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서무공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나갔다.

그날 밤, 두 장군은 각자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금도끼와 큰 도끼를 든 채 궁궐 문 밖을 지켰다. 홀륭한 장군들이여, 그들의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보라.

머리에는 번쩍이는 금투구를 쓰고, 몸에는 용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도다. 가슴을 보호하는 보경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고, 사자 문양의 허리띠는 단단히 조여져 있으며, 색색의 노을이 수놓아진 띠가 아름답구나. 한쪽 눈은 하늘을 향해 봉황처럼 치켜떠 별조차 두려워하게 하고, 다른 쪽 눈은 번개처럼 빛나 달빛마저 비추는 듯하도다. 본래

영웅호걸이자 공을 세운 옛 신하였으나, 지금은 그저 대대로 호위병이 되어 만고에 묻히기 신으로 남았구나.

두 장군이 문 곁에 곳곳이 서서 밤을 지새우니, 날이 밝도록 사악한 기운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종은 궁궐에서 아무 탈 없이 편안히 잠들었다. 날이 밝자 태종이 두 장군을 불러 큰 상을 내리며 말했다.

"짐이 병을 얻은 뒤로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밤 그대들의 위엄 덕분에 아주 편안히 잤다. 오늘은 그대들도 가서 푹 쉬고 있다가, 오늘 밤에 다시 나와서 궁을 지켜주도록 하라."

두 장군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갔다.

그렇게 이삼 일 동안 장수들이 밤을 지새우며 지켰더니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다만 황제의 수라가 줄어들고 기운이 빠지면서 병세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태종은 두 장수가 밤새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다시 숙보와 경덕, 그리고 두여회와 방현령 등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말했다.

"지난 이틀간 나는 잠을 좀 설쳤으나, 진 장군과 호 장군이 밤을 꼬박 새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불러 두 장군의 모습을 똑같이 그려 문 앞에 붙여두려 하니, 장군들이 밤새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것이요. 어찌 생각하시오?"

신하들이 즉시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 두 명을 뽑았다. 그리고 호 장군과 진 장군에게 이전처럼 무장을 하게 한 뒤, 그

모습 그대로 그려 문 앞에 붙였다. 그러자 밤사이에도 아무런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렇게 이삼일이 지나자, 또다시 후재문 쪽에서 벽돌과 기와가 깨지는 듯한 쟁그랑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날이 밝자 태종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며칠 전에는 정문 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밤에는 또 후문 쪽에서 소리가 나니, 이대로 가다간 내 간장이 다 녹아내리겠구나.” 그러자 서무공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정문이 소란스러운 것은 경덕과 숙보가 호위하고 있으나, 후문이 소란스러운 것은 마땅히 위징이 호위해야 할 일입니다.” 태종이 그 말을 허락하고 위징에게 오늘 밤 후문을 지키라고 명했다. 위징은 명을 받들어 그날 밤 정비를 마친 뒤, 용의 목을 벤 그 보검을 들고 후재문 앞에 엄숙히 섰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용맹한 영웅다웠다. 그의 차림새는 이러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푸른 머리띠를 두르고, 비단 도포에 옥띠를 허리에 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옷소매는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펄럭이며, 위엄 있는 신의 모습은 마치 재앙을 누르는 신과 같았다. 검은 장화를 신고 곳곳이 앓아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니 그 기세가 흥맹하기 그지없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매섭게 살피니, 어떤 사악한 귀신이 감히 나타날 수 있겠는가?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지켰으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앞뒤 문 모두 평온했으나, 위징은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태후가 다시 어명을 내려 여러 신하를 불러 모으고 장례를 치를 뒷수습 방안을 의논하게 했다. 태종은 서무공을 따로 불러 국가의 대사를 당부하며, 옛날 촉(蜀)의 군주 유비(劉備)가 유언을 남겨 후사를 맡겼던 것처럼 자신도 간곡히 부탁했다. 말을 마친 태종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위징이 곁으로 다가와 태종의 용포를 붙잡으며 말했다. "폐하, 마음을 놓으십시오. 신에게 폐하를 오래 살 수 있게 할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태종이 물었다. "병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살 수 있단 말이냐?" 위징이 대답했다. "신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폐하께 올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저승으로 가져가 풍도(豐都) 판관 최각(崔珏)에게 전해 주십시오." 태종이 물었다. "최각이 누구냐?" 위징이 말했다. "최각은 돌아가신 선헌제 시절의 신하로, 예전에 자주(茲洲)의 현령을 맡았다가 나중에 예부시랑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생전에 저와는 절을 나누며 사귀어 아주 두터운 벗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을 떠나 저승에서 삶과 죽음을 기록하는 명부를 관리하는 풍도 판관이 되었는데, 꿈속에서 저와 자주 만납니다. 만약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해준다면, 그는 신의 미천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폐하를 놓아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혼백이 다시 양세(陽世)로 돌아오게 되면, 분명 폐하의 용안을 다시금 황도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편지를 받아 소매 속에 넣은 뒤, 이내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궁 안의 수많은 후궁과 빈, 세자를 보필하는 이들, 그리고 조정의 문무백관 모두가 슬퍼하며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백호전 위에는 관(梓宮)이 놓인 채 장례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태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